

2017 서울특별시의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마을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 연구

2017. 12.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제 출 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귀하

이 보고서를 「마을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 12.

- 과제제안 : 허기회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연구기관 :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 책임연구원 : 이기성 (숭실대학교 글로벌HRD연구소장)
- 연 구 원 : 김남숙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강은숙 (숭실대학교 글로벌HRD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윤진 (숭실대학교 글로벌HRD연구소 선임연구원)
- 자문위원 : 안주형 (조원초등학교 교장)
김천섭 (잠실여자고등학교 교사)

(요약문)

마을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 연구

송실대학교 산학협력단

요 약

지역과 교육의 연계는 시대를 막론하고 고민하고 있는 과제이다. 2016년 시범사업으로 출발한 마을방과후학교는 학교와 지역이 함께 미래 시민을 키운다는 관심사에서 시작하였다(이혜숙·이영주, 2016). 마을방과후학교는 마을교육공동체 구축과 더불어 마을의 우수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방과후학교의 목적을 달성하고 방과후학교를 활성화 취지로 볼 수 있다. 마을과 방과후학교의 결합은 공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시작된 방과후학교에 다양한 자원이 유입되면서 학교와 지역의 경계를 허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학교와 마을로 분리되었던 역할을 연계하여 교육생태계를 공고히 하는데 그 의미를 함께 하고 있다. 한편 마을중심의 교육생태계 조성은 아동·청소년들이 마을이라는 삶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기존 방과후학교가 추구하고자 했던 정책의 의미를 되살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방과후학교의 사교육비 경감에 따른 교육격차해소와 공교육 정상화의 노력은 마을방과후학교가 지향하는 방향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마을방과후학교와 방과후학교를 다른 차원의 교육정책으로 이원화하여 구분하기보다는 통합적 관점에서 활성화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마을과 학교의 연계, 마을 교육공동체라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방과후학교와 마을방과후학교의 현황을 살펴보고 마을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분석과 다양한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간담회와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심층·서면면담, 관계자협의회, 포럼 등의 참여관찰과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실제 현장의 다양한 관계자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먼저, 마을방과후학교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마을방과후학교는 마을의 개념과 의미에서부터 이해될 수 있다. 마을의 의미는 지역성보다는 상호관계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변화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심화됨으로 인해 공동체의 의미가 강한 마을의 개념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현대에서 와서 ‘마을’은 공동체의 소멸에 대응하여 모두가 살아가기 위한 노력으로서의 적극적 의미가 강조되었다.

마을, 공동체, 마을공동체 개념이 상호 분리된 것이 아닌, 지역정보다는 관계망,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성과, 공통의 유대가 강조된, 연결된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적합하다.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운동을 기반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학교 교육과 지역 행정이 결합한 혁신적인 지역교육공동체 모델을 실험하기에 이르렀다. 마을방과후학교의 개념은 먼저 마을을 통한 교육으로 이해될 수 있다. 마을을 통한 교육은 학교가 마을을 기반으로 인적·문화적·문화적·환경적·역사적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형태로 볼 수 있다. 학생들은 마을의 인프라와 자원을 통해 배우게 되고 참여, 실습, 체험 등을 통해 배움을 실천하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학습역량을 키워나간다. 마을을 통한 교육, 마을교육과정 등은 온 마을이 학교가 되고 마을에서 소통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나아가 기존의 교육과정을 마을이라는 자원을 활용하는 차원으로 설명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의미에 기초하여 마을방과후학교는 ‘마을과 학교가 연계·협력하여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활동체제를 구축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개념 정리 할 수 있다.

마을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해서는 먼저 일선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현황 및 실태분석을 실시하였다. 현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초·중·고등학교별 과목 운영에 차이가 있었다. 초등학교에서는 특기적성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었으며, 중·고등학교에서는 교과 프로그램의 비율이 초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교유형별 다른 형태로 운영되었으나, 대부분 교과과목 보완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설되었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진로 탐색, 자격증 취득 관련 프로그램이 개설되었다. 2017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필수과제로서 마을학교 연계사업의 하나로 마을방과후활동 체제 구축이 제시되었다. 그 일환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9개 자치구에서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는 마을방과후학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마을과 방과후학교의 결합은 공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시작된 방과후학교에 다양한 교육 자원들이 학교로 유입되면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경계가 허물어지며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을방과후학교 시범사업 지구의 프로그램은 학교가 주도적으로 담당하며 지자체에서는 코디 등을 파견하여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되거나 프로그램을 학교에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실태분석 결과 시범사업과정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정인력지원과 예산, 관련 법령 정비와 함께 사업을 전담하고 각 주체와 연계할 수 있는 전담조직 등에 대한 요구들이 있었다. 마을방과후학교 사업 관계자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전략적 홍보와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이 요청되고 있었다. 마을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먼저, 현행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현장 운영 실태 파악과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의견수렴간담회 및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또한, 방과후학교 및 마을방과후학교 관계자,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위한 심층면담 및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질적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은 2017년 9월~11월에 진행하였다. 공식적인 의견수렴간담회 및 공청회, 심층면담, 관계자 회의 및 포럼에 참가하여 참여관찰을 하는 등 폭넓게 자료를 취합하여 현장의 소리를 통해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연구결과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실태분석 및 질적 연구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첫째, 마을방과후학교에 대한 개념 정립 및 사회적 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둘째, 마을방과후학교 운영체계 구축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마을방과후학교 지속성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전담부서 신설, 체계적인 추진체계 구축, 지속적인 사업비 확보 등이 선결과제로 요청 되었다. 셋째, 마을과 학교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 명확한 주체 선정과 역할 규명이 필요했다. 넷째, 마을방과후학교에 대한 법령과 제도개선의 요청되었다. 기존 방과후교육에서 지원되는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연계를 위해서는 행정적 업무처리에 필요한 제도, 법령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방과후학교에 대한 종합적 평가 및 개선방향으로는 첫째, 법적체제와 기반정비가 요청된다. 지자체-마을-학교의 실질적 거버넌스 체계로의 이행을 위한 법적기반정비와 지역별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마을방과후학교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 계획수립, 실행추진 기구의 역할 구분, 예산, 지원 등이 명시된 조례 제정이 요청된다. 둘째, 마을방과후학교의 개념정립을 기반으로 합의된 비전공유가 필요하다. 셋째,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과 마을방과후학교 사업의 유기적 연계이다. 지자체 마을만들기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마을방과후학교 협의체에 참여함으로써 마을방과후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연계·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넷째,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으로 지원센터와 행정 전담 인력 투입, 그리고 코디네이터의 역할도 현재보다 확충되어야 한다. 다섯째, 참여주체별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이 요청된다. 마을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으로는 첫째, 각 학교 급별 특성을 적용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청된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돌봄 프로그램과 다양한 체험 중심 활동이 필요하다. 중학교에서는 교과과정과 연계·보완되는 과정, 동아리 구성 및 지원을 통한 자기주도적 활동 프로그램 등이 적절하다. 고등학교에서는 현실적 수요를 고려한 주요 교과목 보충 및 연계학습, 진로 및 취업준비과목으로는 마을자원을 활용한 직업체험 프로그램 등이 제안될 수 있다. 둘째, 마을자원과 학교의 연계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우수한 강사의 확보 및 활용이 요청된다. 넷째, 지역연계의 필요성, 마을 방과후학교의 취지, 철학 등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개선이다. 국·내외 마을방과후 프로그램 분석을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기반이 필요하며, 둘째, 실질적인 운영과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행정적 시스템으로서의 중간거점조직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호 개방·협력하는 자세가 요청된다.

목 차

I .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5
3. 연구 방법	6
가. 문헌연구	6
나. 의견수렴간담회 개최	7
다. 공청회 개최	7
라. 사례분석	7
마. 질적 연구	7
II . 이론적 배경	9
1. 방과후학교 정책 변천과정	11
가. 방과후학교 전개과정	11
나. 지역사회와 방과후학교의 연계	14
2. 마을방과후학교의 개념 및 주요내용	15
가. 마을방과후학교의 개념	15
나. 마을공동체와 학교교육	17
다. 마을방과후학교 의미와 개념	19
라. 마을방과후학교 주요내용	21
III . 일선 방과후학교 및 마을방과후학교 운영 실태 분석 ...	25
1. 일선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현황 및 실태분석	27
가. 방과후학교 운영개요	27

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현황	29
다.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사례	32
라. 방과후학교의 성과	36
마. 방과후학교 운영에 따른 시사점 및 한계분석	39
2. 자치구별 마을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	40
가.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마을방과후학교	42
나. 자치구별 학교-마을연계사업 프로그램	42
3. 마을방과후학교 시범사업지구 프로그램 현황	44
가. 구로구	44
나. 노원구	45
다. 도봉구	46
라. 은평구	47
마. 양천구	48
바. 시사점 및 한계분석	49
4. 방과후학교 및 마을방과후학교 질적 연구	50
가. 질적 조사 개요	50
나. 간담회 및 공청회 주요 의견	57
다. 질적 연구 분석결과	62
5. 실태 및 질적 연구 분석 결과	83
가. 마을방과후학교 운영상 문제점	83
나. 마을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85
IV. 국내·외 마을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분석	89
1. 다른 시·도 교육청별 마을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분석	91
가. 다른 시·도 운영 현황	91
나. 경기도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현황	94
다. 경기도 마을교육공동체 프로그램 사례	97
라. 시사점	103

2. 교육선진국의 마을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분석	104
가. 미국	105
나. 일본	109
다. 독일	112
라. 홍콩	113
마. 시사점	114
 V. 마을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	 115
1. 마을방과후학교에 대한 종합적 평가 및 활성화 방안	117
가. 법적체제와 기반정비	117
나. 마을방과후학교 개념 정립과 비전 공유	118
다.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118
라. 지역특성기반 마을사업과의 연계	119
마. 실질적 지원체계 확충	119
바. 참여주체별 역량강화	120
 2. 마을방과후학교 운영모델로서의 학교급별 활성화 방안 ..	120
가. 초등학교 마을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120
나. 중학교 마을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121
다. 고등학교 마을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122
 3. 국·내외 우수사례 시사점과 방향성 제시	123
 4. 일선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차별화정책	124
 참고문헌	125

표 목차

〈표 3-1〉 2017년도 서울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현황	30
〈표 3-2〉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전남 진원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현황	33
〈표 3-3〉 을숙도초등학교의 지역사회 인프라 활용 방과후프로그램	34
〈표 3-4〉 만수초등학교의 마을과 함께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 ..	35
〈표 3-5〉 자치구별 학교-마을연계 사업	42
〈표 3-6〉 구로구 마을방과후학교 프로그램	45
〈표 3-7〉 노원구 마을학교 프로그램 유형	46
〈표 3-8〉 2017년 선정 도봉 거점 마을학교	47
〈표 3-9〉 양천구 거점형 마을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현황	48
〈표 3-10〉 질적 연구 대상 및 연구참여자 정보	53
〈표 3-11〉 대상별 주요 질의 및 의견 수렴내용	55
〈표 3-12〉 간담회 발표자 주요 의견	58
〈표 3-13〉 공청회 발표자 주요 의견	61
〈표 3-14〉 마을방과후학교에 대한 인식	83
〈표 3-15〉 각 급 학교별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86
〈표 4-1〉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내용	91
〈표 4-2〉 2017년 경기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계획	96
〈표 4-3〉 시흥창의체험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	99
〈표 4-4〉 의정부 E여중 ‘학교에서 마을로~’ 교과통합프로젝트	101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목적과 연구내용	4
〈그림 1-2〉 연구방법과 연구내용	6
〈그림 3-1〉 2017년 방과후학교 운영체제	27
〈그림 3-2〉 부산 을숙도초등학교 ‘지역사회 인프라 활용 방과후학교프로그램 운영 일반화 모형’	33
〈그림 3-3〉 자료 분석 흐름 및 분석기준	57

제 I 장

서론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역과 교육의 연계는 시대를 막론하고 고민하고 있는 과제이다. 최근 시행되고 있는 마을방과후학교는 학교와 지역이 함께 미래 시민을 키운다는 관심사에서 시작(이혜숙·이영주, 2016)하여, 2017년 서울형혁신지구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다. 마을방과후학교는 지역이 아동·청소년의 교육을 학교와 함께 한다는 취지라 할 수 있다. 2017년 현재 마을방과후학교는 서울의 9개 자치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마을의 자원을 활용하고 연계한다는 관점에서 기존의 마을결합형 방과후학교 사업에서도 그 유사성을 찾아 볼 수 있다.

기존 방과후학교는 각 급 학교의 계획에 의해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학교 교육활동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수렴하여 수익자 부담 혹은 재정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활동을 의미한다. 1995년 5·31교육개혁을 시초로 하여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완화, 돌봄서비스 제공, 지역사회학교 실현을 위해 처음 시행되었다. 방과후학교는 지금까지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기적성 및 교과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왔는데 본래 취지에 지역사회학교 실현이라는 가치가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마을방과후학교가 추구하는 비전 및 목적과 유사한 점을 찾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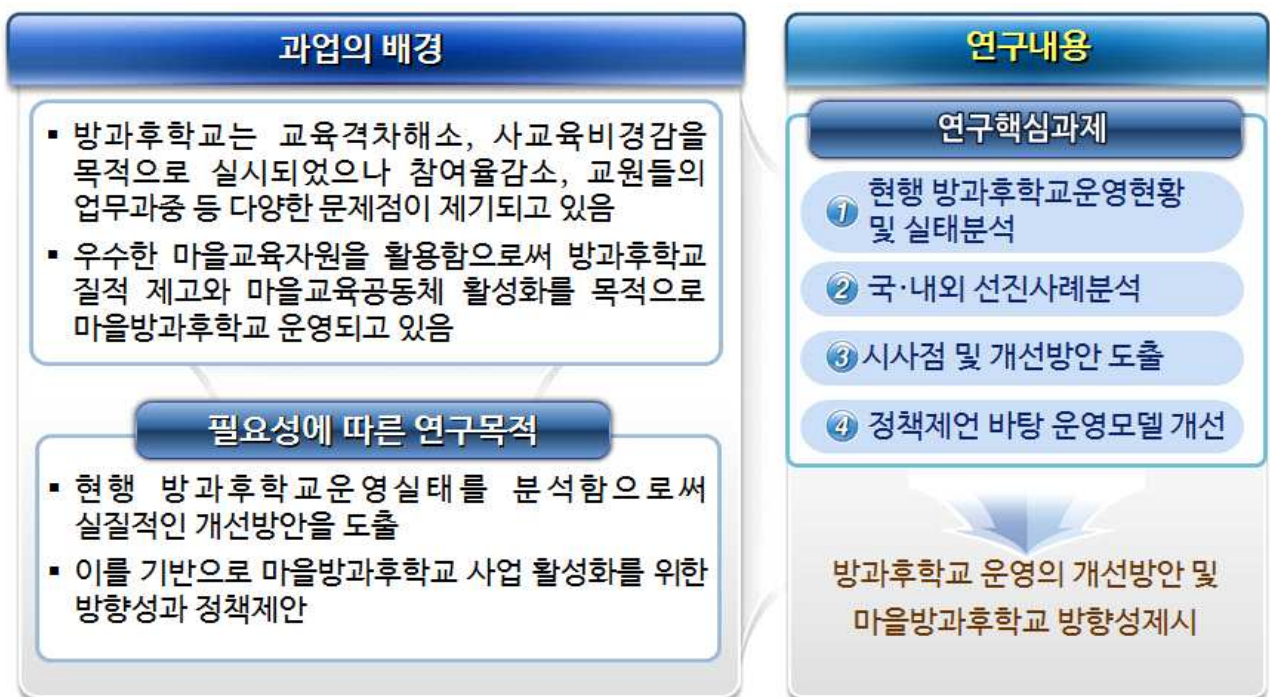
그간 방과후학교는 공교육 보완과 사교육비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학교수업을 단순히 반복하거나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실제 사교육비 경감에 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의 일환으로 초·중·고교에서는 방과후학교 운영의 다각화를 시도하며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방과후학교를 마을단위에서 접근하여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마을교육공동체 구축과 더불어 마을의 우수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방과후학교의 목적을 달성하고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라 할 수 있다. 마을과 방과후학교의 결합은 공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시작된 방과후학교에 다양한 자원이 유입되면서 학교와 지역의 경계를 허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마을과 학교의 연계라는 차원을 넘어 마을방과후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사, 그리고 마을이 학교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협력하고 연대하는 공동체로 학교 밖 마을학교의 활용, 학교 협동조합, 마을의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모델로 나타나기도 한다. 즉, 학교와 마을로 분리되었던 역할을 연계하여 교육생태계를 공고히 하는데 그 의미를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마을중심의 교육생태계 조성은 아동·청소년들이 마을이라는 삶터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기존 방과후학교가 추구하고자 했던 정책의 미를 되살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교육비 경감을 통한 공평한 교육기회의 제공과 교육격차 해소라는 교육의 공공성 회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현장의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마을방과후학교가 지향하는 방향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마을방과후학교와 방과후학교를 다른 차원의 교육정책으로 이원화하여 구분하기보다 통합적 관점에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마을과 학교의 연계, 마을교육공동체라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연구목적에 따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그림 1-1〉참조).

〈그림 1-1〉 연구목적과 연구내용



이에 본 연구는 방과후학교와 마을방과후학교의 현황을 살펴보고 마을방과후학교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분석과 다양한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의견수렴을 위한 공식적 간담회와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심층면담, 서면면담, 관계자협의회 및 포럼의 참여관찰 등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실제 현장의 다양한 관계자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마을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방과후학교의 그간의 제도와 정책을 개괄하여 살펴보고, 마을교육공동체의 개념 및 발생배경과 마을방과후학교의 변천과정 등을 문헌고찰을 통해 분석하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마을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전반을 살펴보고, 자치구별 마을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이에 따른 시사점과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서울시교육청 이외의 다른 시·도교육청별 마을방과후학교의 운영현황과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더불어 국외 교육선진국의 마을방과후학교 운영사례를 조사하여 운영모델 및 교육프로그램 현황을 분석하고 서울시의 교육적 상황과 마을방과후학교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현장의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와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방과후학교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학부모, 일선학교 교사 등을 대상으로 현행 방과후학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을방과후학교 실태, 개선방향 등에 대해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관계자협의회 및 연구주제와 관련이 있는 포럼에 참여하여 관찰함으로써 폭넓게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마을방과후학교 관리·운영 모델 및 프로그램을 유형화하였다. 그리고 마을방과후학교의 전반적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내용과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방과후학교의 개선방안 및 향후 마을방과후학교 정책 및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서울시 교육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3. 연구 방법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자료 및 각 지자체의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토대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고, 간담회와 공청회 및 각종 면담과 참여관찰을 통해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방법에 따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그림 1-2〉 참조).

〈그림 1-2〉 연구방법과 연구내용



가. 문헌연구

방과후학교의 개념 및 제도와 변천과정을 기존 문헌을 통해 살펴보고,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방과후학교의 변천 과정 및 등장배경 분석, 기존의 마을과 방과후학교의 상호협력체제 구성을 위한 기존의 논의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방과후학교의 운영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최근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진단해 보았다. 또한 방과후학교 및 마을방과후학교의 우수사례를 발굴·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나. 의견수렴간담회 개최

관련 전문가와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방과후교육현황 및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일선 방과후학교강사, 학교관계자, 방과후학교 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방과후학교 실태 및 문제점, 그리고 마을과 학교연계사업 사례 등을 토론했다. 또한 현장에 참가한 지자체 관계자,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다. 공청회 개최

방과후학교 참여율 감소와 함께 최근 들어 방과후교육 담당교원의 업무과중, 위탁운영에 대한 의견불일치, 불안정한 강사 처우 문제 등 운영상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제도의 실질적인 수요자인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공청회의 주제는 ‘학교급별 방과후학교의 현황, 방과후학교 운영사례 그리고 마을방과후운영 사례’ 등으로 하여 개최되었다.

라. 사례분석

마을방과후학교 운영의 시사점 및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고자 교육선진국의 마을방과후 프로그램 분석, 다른 시·도교육청별 마을방과후프로그램 운용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은 프로그램 유형, 특성 그리고 개선 방향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마. 질적 연구

방과후학교와 마을방과후학교의 실질적인 현장요구와 실태 그리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질적 연구는 심층면담, 참여관찰 방법을 사용하였다. 방과후학교에 관해서는 학부모의 실질적인 요구와 관심을 중심으로 심층면담 등을 실시하였다. 마을방과후학교에 관해서는 정책방향과 비전 그리고 실질적인 제도 운영 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어려운 점, 개선방안 그리고 활성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제 II 장

이론적 배경

Ⅱ. 이론적 배경

1. 방과후학교 정책 변천과정

마을방과후학교는 방과후학교, 마을공동체, 지역교육공동체, 지역사회교육 또는 마을 교육과정 등의 서로 다른 목적과 의미를 갖는 여러 개념과 활동이 결합되어 나타난 개념으로, 그 복합적 성격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출현배경과 의미를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가. 방과후학교 전개과정

방과후학교란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정규 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 활동으로, 학교 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학교 교육활동을 의미한다(서울시교육청, 2017). 1995년 5·31 교육개혁 당시 교육개혁위원회는 “각 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방과 후 학생의 흥미, 취미 및 학교 실정과 지역 특성에 알맞은 교육활동을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학생들의 인성과 창의성 함양을 위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방과 후 교육활동’을 제안하였다(교육개혁위원회, 1995).

이것이 방과후학교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당시 교실붕괴론, 학교교육위기론 등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과 반성이 거세게 일었고, 정부나 교육계는 교육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교육혁신에 대한 교육비전을 찾고자 하였다. 1996년 2월 ‘방과 후 교육활동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었고, ‘방과 후 활동’은 사교육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인식되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확대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1999년 2월에는 ‘특기·적성 교육 활동’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운영되었으며,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고, 취미와 특기를 신장할 수 있는 교육기회의 제공, 동아리 활동 중심의 학생 문화를 만들어 입시중심의 교육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한편, 1997년 교육개혁위원회는 ‘과외대책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방안’의 하나로 방과 후 교육활동을 제안하였다.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 개인의 경쟁이 과도화되면서 사교육이 학생들의 주요 학업 수단이 되었고(박진은, 한신일, 김현철, 2011), 사교육비가 가계

경제를 위협하는 주범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었다(양정호, 2005). 이에 사교육 수요를 학교 내로 흡수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과외육구를 충족시키고 가계의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기 위해 방과후학교를 활용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발전과 함께 사회구성원들의 생각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다품종 소량생산’, ‘개인의 선택권 존중’이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는 획일화된 공통의 교육과정을 균등 배분하는 기존의 공교육 설계를 개혁하고자, ‘개인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교육방법의 확립 방안’으로 방과후 교육활동의 활성화를 제안하면서 학생 개개인의 흥미에 기초하여 학교 실정과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활동을 지향하게 되었다.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는 ‘2·17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안으로 방과 후 교육을 포함하면서, 이후 ‘방과후학교’는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복지 구현, 돌봄 및 보호, 평생학습 제공 등의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 기능과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2005년 3월에는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이루어지고 있는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방과 후 교실 등 방과후교육 활동을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고자 시도하면서 이를 방과후학교로 총칭하게 되었다. 방과후학교가 학교의 기능을 강화하고,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수동, 2007). 같은 해 방과후학교 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며 방과후학교 시범운동을 실시하였고¹⁾ 지금과 같은 운영체제를 수립하게 되었다. 방과후학교는 2008년 학교자율화 조치 이후 시·도교육청 사업으로 이양되어, 17개 시·도교육청이 매년 시·도교육청 담당관 협의회를 통해 전국 단위의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고, 전국 단위의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지역적 상황을 반영하여 시·도 단위의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작, 학교 현장의 상황에 맞춰 적용·운영하고 있다.

방과후학교는 ‘학습자 다양성 존중’, ‘잠재능력 향상’이라는 교육 이상 실현이 아닌 ‘공교육혁신’,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정권의 도구적 목적 안에서 확장되어 왔다. 이러한 목

1) 2005년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시도교육청별 각 급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장 운영 32개교, 위탁운영 16개교 총 48개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였다.

적으로 지역과 민간의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 학교교육의 닫힌 문을 열고 들어오기 시작하였고, 2016년도에는 위탁업체 선정방식으로 전환, 최저가입찰제를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 제공이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방과후학교는 그 동안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공교육에 대한 보완을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방과후학교는 학교의 장이 학교 여건과 학생·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1995년 ‘방과후교육활동’ 등으로 도입된 이후 전국 초·중·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방과후학교는 최근 몇 년 동안 학생 참여율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출산율 감소에 의한 학생 인구 수 감소,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이후 교과프로그램 감소 등이 이유로 제시되고 있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5). 또한, 최근에는 여러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부각되면서 방과후학교 운영상 문제점 진단과 그에 대한 대안모색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방과후학교의 양적 증대와 함께 질적 수준의 향상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는데,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긴밀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다양한 교육자원의 발굴 및 활용, 우수강사와 프로그램의 발굴 및 보급, 우수사례의 발굴 및 보급, 지역 내 방과후학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정보제공, 학교교원의 업무경감 등의 논의가 제기되고 있었다. 이러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차원에서 단위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수립 및 관리, 지원 및 협조체제 등 방과후학교 활성화와 질 높은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7).

서울시교육청 방과후학교지원센터의 운영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방과후학교지원센터는 서울 시내의 초·중·고의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의 활용가능한 자원을 학교와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방과후학교’ 실현

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방과후학교지원센터는 방과후학교 운영관련 강사 구인 및 구직정보 그리고 유관기관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나. 지역사회와 방과후학교의 연계

공교육을 보완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출범한 방과후학교가 최근 참여율의 정체 등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지적되면서 문제 진단과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 대안 중의 하나가 마을과 방과후학교의 결합이다. 2017년 주요 정책 사업 중 하나로 서울, 경기, 강원, 충남, 세종, 전북 등의 시도에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과거부터 있어온 마을과 교육의 연계에 대한 노력에 주목하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마을과 교육의 연계는 마을방과후학교로 시도되고 있으며, 마을과 방과후학교의 결합이라는 차원에서 마을의 관점은 지역사회와 유사한 맥락으로 접근할 수 있다. 지역사회와 학교의 협력은 1960년대 향토학교 정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시 향토학교 정책은 향토사회의 특성에 맞는 교육활동 실시와 지역사회의 발전과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학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5·16 군사정부 하에 국가정책이 향토사회에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강한 중앙집권 체제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후 향토학교 정책은 새마을운동으로 흡수된다.

향토학교 정책과 더불어 지역사회학교 또한 마을과 학교의 결합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미국에서 시작된 지역사회학교(community school)를 통해 지역사회학교운동이 펼쳐지게 되었고, 전후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1960년대 초 국가적 과제로서 지역사회학교 건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지역사회 개선의 일환으로 학교의 관심과 협동, 교사의 지도자로서의 역할 수행, 지역 중심의 교육문화 향상을 위한 학교시설의 활용 및 개방 등을 제안하였다(황종건, 1986; 이희수, 2016에서 재인용). 전후였던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토대로 살펴 보건대 지역사회에서 요구되는 학교의 역할은 지역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사회개혁을 추구하는데 있다. 이것이 지역사회학교의 기본적 역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역사회학교는 학교를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

다. 지역사회학교에 대한 기존의 개념 정의를 살펴보면 ‘각 학교가 위치하는 지역사회와 학교교육을 밀접하게 관련시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함과 동시에 학교 교육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개방, 운영하는 학교(네이버 지식백과, 2017)’ 라고 제시되어 있다. 지역사회와 학교교육을 분절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상호교류의 주체로 관계 짓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학교의 교육을 운영한다는 역할과 지향점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지역의 특성이 상이한 만큼 유동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학교의 선구적인 역할 수행이 강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사회가 다양한 만큼 지역사회학교의 역할도 지역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역사회학교운동 현재까지도 그 흐름과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교육협의회를 설립하여 전국적으로 지역사회교육운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며,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합해야 한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교육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한다.

지역사회의 또 다른 학교의 형태로 지역아동센터를 들 수 있다. 1980년대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공부방이 생겨났고, 2004년 법제화를 통해 아동복지시설의 자격이 부여되면서 지역아동센터가 설립되었다.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취약계층의 아동보호 및 아동의 학습역량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이외에도 원활한 학교생활 및 적응을 위해 교육적 지원을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3). 또한 문화서비스 지원기능, 심리 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원,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아동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는 방과후학교지원의 역할을 수행하며 공교육의 보완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마을방과후학교의 개념 및 주요내용

가. 마을방과후학교의 개념

1) 마을의 개념

‘마을’이란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간의 긴밀한 상호부조적 관계망을 통해 더불어

어 살아가는 사회(이호, 2006)를 의미한다. 2012년도 서울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에 따르면 마을은 일상생활을 함께하면서 소통을 바탕으로 공동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마을이라는 개념이 공간이라는 실체적 개념과 공동체라는 사회적 개념의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는데(양병찬, 2014), 여기서는 마을의 의미가 지역성보다는 상호관계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1세기 인류는 산업화, 정보화,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사회 변화의 조류 가운데 더욱 불안하고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이희수, 2016). 게다가 도시화, 글로벌화로 의 진행은 1차적 관계의 공동체와 마을을 해체시켰는데, 이는 인류의 불안을 완충해 주는 최소한의 사회적 환경마저 박탈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에 큰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양극화와 주민간의 갈등, 지역 내 문제(생활안전, 고령화-복지, 일자리 창출, 실업, 다문화 가정 등)가 심화되면서 지역공동체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변화로 인해 공동체의 의미가 강한 마을이 불가피하게 대두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김기홍, 2015). 따라서 현대에 와서 ‘마을’은 마을과 공동체의 소멸에 대응하여 모두가 살아가기 위한 노력으로서 적극적 의미가 강조되어, 마을, 공동체, 마을공동체의 개념이 상호 분리된 것이 아닌, 지역성보다는 관계망, 사회적 상호작용, 공통성과, 공통의 유대가 강조된, 연결된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적합하다.

한편, 21세기 사회환경변화는 국가기능변화 및 행정환경변화를 야기하였다. 세계화와 지방화, 소수 정치인에 의해 독점되는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 복지재정부담의 한계, 신자유주의의 확산 등의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적 요구와 과제는 전통적 국가운영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통치방식을 고민하게 하였고, 이러한 위기를 헤쳐 나갈 대안으로 민과의 협력에 의한 새로운 국정운영 시스템인 거버넌스가 출현하게 되었다. 거버넌스는 주권자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여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도로 정부와 지방정부가 다양한 시민 주체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참여와 협력, 소통을 통해 국가개입과 통치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조직 간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새로운 조정 방식이다. 여기에 로컬 거버넌스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권한 행사를 중시하는 개념으로, 지방자치 차원에서 이해당사자와 주민이 직접 정책 또는 공동문제해결의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 모델을 상정한다(김의영, 2011).

이러한 거버넌스 모델로 인해 소규모 자발적으로 움직이던 지역의 공동체 활동들이 행정과 결합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고, 이러한 결합은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 내면서 지자체와 시민사회 양쪽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리고 이러한 거버넌스 개념이 마을공동체 개념과 만나 지자체의 마을공동체사업과 마을 만들기 운동을 이끌게 된다.

나. 마을공동체와 학교교육

1) 마을공동체 운동

마을공동체 사업과 마을만들기 운동 모두 같은 의미로 쓰인다. 이외에도 마을디자인, 주민자치운동, 마을의제운동, 마을진흥사업 등 다양한 이름이 있지만 실제로는 같은 의미이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전술한 마을공동체를 복원하려는 노력이 1990년대 ‘마을만들기’라는 이름으로 시민사회운동영역에서 출발하였다. 여기에 일본의 마을만들기 내용이 나와 있는 엔도 야스히로(1997)가 쓴 마찌즈쿠리 독본이 우리나라에 소개되면서 지역개발운동, 지역공동체 운동 맥락에서 활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2011년 취임 후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면서 마을공동체 운동은 사회 전반에 대두되게 되었고, ‘마을 단위의 소규모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현안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을 뜻하는 공식용어가 되었다.

서울시는 2012년 마을공동체 지원조례를 공포, 시행하였고 그해 9월 11일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개소와 마을공동체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계획의 취지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마을 공동체를 회복한다는 것이다. 이는 첫째, 마을 주민 상호간 유대를 형성하고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공동체 회복을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둘째, 마을과 관련된 다양한 행위주체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조율함으로써 마을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습득하며, 셋째, 성과와 효율이 아니라 마을 구성원 상호간의 호혜성, 활기, 시너지 증대뿐 아니라 새로운 민관협력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서울특별시, 2012).

구체적인 운영내용은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통해 주민들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주민이 사업 제안부터 계획 수립, 실행, 사후관

리 등 전 과정을 추진하는 주민 주도 형태로 이루어지며, 주민들이 함께 모여(주민모임·마을카페), 함께 기르고 돌보며(마을복지·공동육아), 건강한 공존을 고민하고(에너지자립·안전마을 등), 함께 일자리를 마련하여(마을기업), 함께 즐기는(마을축제·마을문화) 모든 활동들이 마을공동체 사업의 대상이다.

이때부터 자생적 마을공동체운동이 행정과 결합하게 되면서 새로운 융합과 확산을 거듭하게 된다. 정부와 주민의 중간 역할을 담당하는 마을공동체 운동 조직이 탄생하면서 지역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지역 행정과 정치 구도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게 되었다. 그러나 주민생활에 밀착되어 지역 주민 스스로 시작한 활동이 정부정책 영역으로 흡수되면서 민간 횡적 연대는 상실되고 행정에 종속되어 가기 시작하고, 주민자치의 유연성과 운동성이 상실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오카다 도모히로, 2016).

2) 학교와 마을공동체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1960년대 향토학교 정책은 향토사회의 특성에 맞는 교육활동 실시와 지역사회의 발전과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학교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범국민적 계몽운동을 통해 국민생활개선과 사회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사상 계몽운동에 가까웠다. 이후 5·16 군사정부 하에 국가정책이 향토사회에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강한 중앙집권 체제의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향토학교 정책은 새마을운동으로 흡수된다.

그리고 1990년대 들어 지역사회학교로 변모한 모습을 드러낸다. 지역사회학교는 학교가 지역사회에서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학교를 개방하고 지역과 학교의 교육협력체계를 구축해야한다는 논의를 기반으로 형성된 개념으로서 학교와 가정, 사회 간의 밀접한 유대관계로 지역 전체의 성장과 발전을 도우며 학생과 주민이 동시에 주인이 되는 학교로 설명될 수 있다(김경근, 2009). 향토학교와 지역사회학교는 지역사회와 학교를 분절적 관계가 아닌, 지역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주체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학교는 중앙정부와 교육청의 감독을 받는 하나의 관료조직으로서 권력관계에 따른 위계질서가 강하다. 이는 조직 자체가 민주적 질서를 이루기 어렵고 폐

쇄적이며 지역사회와 분리되고, 외부 조직과 민주적 협력 관계를 맺기는 더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교육 양극화, 전인성을 상실한 경쟁주의 입시교육의 폐단이 현 교육 상황을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몰고 있는 현상과 복잡한 문제들이 중첩되어 나타난 결과로 학교의 힘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들임을 이제 사회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마을이 학교다’,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통해서 지역과 학교의 어른들을 일으켜 세우며 학교 교육의 한계를 지역사회와의 협력으로 극복해보자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학교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하고, 지역도 학교와 교육적 목표를 같이하며, 서로 공동의 정체성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만들어가는 교육공동체를 지향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역교육공동체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2014년 9월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 간에 이루어진 협력적 거버넌스 선언을 바탕으로 시 교육청은 서울특별시의 지원을 받아 자치구와 결합한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하고, 서울특별시는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마을과 학교가 상생하는 ‘마을과 학교 상생프로젝트’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시교육청과 시가 각각 학교와 마을을 매개로 학교는 마을을, 마을은 학교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학교 교육과 지역 행정이 결합한 혁신적인 지역교육공동체 모델을 실험하기에 이른 것이다.

다. 마을방과후학교 의미와 개념

1) 마을방과후학교의 의미

실생활과 유리된 교과서 위주의 문제풀이 방식의 근대교육체제는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더욱이 지금은 4차 산업혁명 및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이 사회는 물론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강력한 동인으로 인지되는 시점이다. 입시와 경쟁 중심의 교육이 아닌 삶과 결합된 교육, 스스로 자기 삶과 세계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지향하고 이를 위해 실천적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생이 학습의 주체가 되도록 하고, 다양한 세계

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 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교육하는 교육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체험과 활동 위주의 교육과정에서 마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마을이 갖는 여러 가지 자원, 즉, 시장과 공원, 공공시설, 미술관, 공장, 병원과 같은 지역 인프라, 지역의 이야기나 역사, 주민들이 지니고 있는 재능이나 경험 등을 활용할 경우 더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펼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교육과정을 지역사회교육과정이라고 한다.

마을에서는 마을의 일상이 교육적 재료와 환경으로 구성되고, 마을 주민이 직·간접적으로 교수학습에 참여할 경우,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 스스로 마을 주체로 성장할 수 있으며, 주민으로부터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성장단계에서부터 마을과 관계함으로써 새로운 마을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지역교육과정은 지역기반의 주민순환 지식생태계를 만들고 마을 활동을 촉진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2) 마을방과후학교의 개념

마을방과후학교의 개념은 먼저 마을을 통한 교육으로 이해될 수 있다. 마을을 통한 교육은 크게 지역사회의 인적·문화적·문화적·환경적·역사적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형태로 볼 수 있다. 학생들은 마을의 인프라와 자원을 통해 배우게 되고 참여, 실습, 체험 등을 통해 배움을 실천하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학습역량을 키워나간다. 마을을 통한 교육, 마을교육과정 등은 온 마을이 학교가 되고 마을에서 소통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나아가 기존의 교육과정을 마을이라는 자원을 활용하는 차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한편, 마을교육공동체란 학생, 학부모, 교직원과 지역사회가 학생의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해 협력 및 연대하는 공동체를 지칭한다. 경기, 광주, 세종의 경우, 2015년에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서울시의 경우 2016년 말에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혁신교육지구 운영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다. 지역별로 마을교육공동체 개념 및 정의가 상이하기는 하나, 경기, 세종의 경우 학생의 교육활동지원에 초점을 맞춘 반면, 광주는 교육력 제고와 함께 지역사회 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운영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및 운영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 운영계획(서울특별시교육청, 2017)에 의하면 운영의 비전은 ‘참여와 협력으로 아동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학교-마을교육공동체’이며,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문화조성’, ‘배움과 돌봄의 마을교육공동체 형성’, ‘유기적인 민관학 협력체제 구축’을 전략목표로 수립하고 있다. 학교와 마을의 연계가 강조되고 있으며, 마을과 학교를 유기적인 공동체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는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을 이루기 위해 교육청, 서울특별시, 자치구,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하여 새로운 교육모델을 실현하도록 서울특별시와 교육청이 지정하는 자치구’를 의미한다. 자치구별로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지역사회와 학교가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러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필수과제로 제시된 것 중 하나가 ‘마을-학교 연계 사업’이다. ‘마을-학교 연계 사업’에서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교육과정’ 및 ‘마을방과후활동 체제 구축’을 제안하고 있으며, 마을방과후학교는 마을-학교 연계 사업의 필수과제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즉, 마을방과후학교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서 필수적인 사업과제의 일환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 사업운영 및 비전, 의미에 기반하여 마을방과후학교는 ‘마을과 학교가 연계·협력하여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활동체제를 구축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개념을 정리할 수 있다.

라. 마을방과후학교 주요내용

2012년 서울시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정책을 시작하였다. 이는 공교육혁신도 지원하면서 마을교육체계도 구축하는 아주 복잡하고 중층적인 목표에 도전하기 위해, ‘마을교육공동체 형성’을 통한 ‘공교육혁신’을, ‘교육’을 중심으로 ‘지역 공동체성의 회복’을 내세운 정책이다.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여 아이들의 성장과 삶을 책임지는 지역교육공동체의 이상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본격화하게 된 것이다. 2016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계획에서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비전으로 ‘마을교육생태계조성을 통한 공교육 혁신’을 목표로 하고 중점과제로 학교교육 지원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2017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필수과제로서 마을 학교 연계사업의 하나로 마을방과후 활동 체제 구축이 제시되었다. 그 구체적인 사업으로 ‘마을과 함께하는 독서·토론 교육’을 시행하고 또한 ‘지역사회 시설 및 인적 자원 연계 방과후 활동 강화’를 필수과제로 제시하면서 ‘마을방과후학교 시범사업’과 ‘현행 학교 방과후학교를 대체할 수 있는 마을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마을지원체제 구축’을 과제로 제시하였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7).

그 일환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9개 자치구에서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는 마을방과후 학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9개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는 마을방과후학교 시범사업은 필수사업으로 제시된 ‘현행 학교방과후학교를 대체할 수 있는 마을방과후학교 운영지원’의 구체적인 한 형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마을과 교육의 연계를 방과후학교를 통해서 시도하려고 하는 의도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마을과 방과후학교의 결합은 획일적 지식전달의 공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시작된 방과후학교에 다양한 교육 자원들이 학교로 유입되면서 학교와 사회의 경계가 허물어지며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방과후학교는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면서 정부 정책을 시험하는 도구적 역할을 하면서 유연성을 극대화하여 학교와 지역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진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 유연한 성격으로 다양성 교육, 지역자원 활용, 수요자 맞춤 교육, 학생자치활동 등 혁신교육의 다양한 실험장으로 활용되어 왔다.

여기에 최근 방과후학교 중·고등 참여율 저조 담당교사업무과중 고액강사료, 사교육기관 위탁과열경쟁, 본질적 학교 업무를 저해 하는 교사의 방과후 업무 담당 등 방과후학교 운영의 문제에 방과후학교 운영다각화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의 교육가능성과 지역의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방과후학교의 질 제고를 위한 우수한 마을교육자원을 활용과 학교와 지역사회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방과후학교 모델 운영을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본격화하게 된 것이다.

‘방과후의 지역화’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을 ‘정규과정은 학교에서, 학교를 마친 방과후

는 지역에서' 돌보고 교육하는 학교-지역의 협력 분업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이 학교교육을 지지하고 지원하면서도 아이를 돌보는 지역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한다. 특히 방과후의 지역화를 통해 지역이 교육복지와 돌봄, 직업체험과 문화예술교육, 지역사회 이해교육, 생활교육 등을 전담한다면 학교는 공동교육과정과 학과수업에 온전히 매진할 수 있게 되어,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면서도 시대가 요구하는 혁신교육을 함께 시도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마을이 방과후학교를 통해 학교와 함께 돌봄과 교육이라는 인류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학교와 지역의 상생을 도모하는 마을-학교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마을공동체는 한층 확장되고 활력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학교와 지역이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일해 본 경험이 없고, 각자의 상황에서 마을방과후에 대한 구체적 상이 제시되지 못해, 학교와 마을 각각 구체적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세부적 실현 방안에 대해 아이디어가 부족한 상황이다. 마을교사를 지역에서 발굴·양성해서 학교 안으로 진입시키는 것이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 핵심 사업으로 인식하는 정도이다.

그러나 학교 입장에서는 검증이 되지 않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마을교사를 학교로 마구 유입시킬 수는 없는 문제이다. 교육과 학교가 아이들을 인질로 이해관계가 얽힌 어른들의 각종 시험장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학교의 당연한 책무이다. 학교교육의 혁신을 강조하며 시작한 혁신교육지구마저도 교육을 단순히 교사를 활용하여 가르치는 일로만 인식하고, 일단 무조건 마을 사람들이 학교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고에 갇혀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한계가 드러난다는 지적이 있다(주정훈 외, 2017).

제Ⅲ장

일선 방과후학교 및 마을방과후학교 운영 실태 분석

Ⅲ. 일선 방과후학교 및 마을방과후학교 운영실태 분석

1. 일선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현황 및 실태분석

가. 방과후학교 운영개요

방과후학교의 가장 큰 성과는 학생들은 방과 후에 자신이 원하는 특기적성 및 교과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인성과 창의성, 소질, 학업능력을 함양한다는 점이고, 학부모는 사교육비가 경감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방과후학교를 통해서 맞벌이·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은 안전하고 교육적인 장소에서 질 높은 돌봄을 제공받고, 학교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지역의 교육문제를 해결하려는 지역사회학교 실천이 가능하다는 점을 성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방과후학교는 사교육비 경감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에 오랜 시간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시도교육청의 역할은 2008년 이후 방과후학교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확대되었는데, 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자체 예산 등을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교육지원청에 배분하여 지역 사정에 적합한 방과후교육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17년 방과학교 운영체계이다(〈그림 3-1〉참조).

〈그림 3-1〉 2017년 방과후학교 운영체계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2017, p. 3.

방과후학교는 학교교육의 기능보완 및 확대를 목적으로, 첫째, 사교육비 경감, 둘째, 저소득층 자녀지원을 통한 지역·소득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셋째, 학생 보호 및 돌봄서비스 제공 그리고 지자체등과 함께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 학교실현을 세부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1) 방과후학교 운영주체

방과후학교정책의 주요 추진 주체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단위학교 이며, 행정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부모, 사회적 기업 등의 민간 참여도 학교장이 학교여건과 학생·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자문)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및 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가능하다.

2)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

방과후학교 운영위원회는 연간운영계획 및 업체 위탁 등의 운영방식과 학부모 경비부담 사항(강사료, 교재비, 수용비 등 방과후학교 수강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생, 학부모의 수요조사 및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한다. 그러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선행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다. 이러한 형태는 『공교육 정상화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것이다. 교과 프로그램 운영 시 학교교육과정의 교과진도계획에 따라 심화·보충 학습으로 운영하며, 교과 진도 나가기 등 교육과정 정상화를 저해하는 프로그램은 운영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발간한 『2017년 방과후학교 길라잡이』를 살펴보면, 자기주도 학습력 신장, 창의성·인성·특기계발 등을 위한 특색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과 운영 주체의 다양한 접근을 통해 경쟁력 있는 우수 프로그램 편성으로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학부모 자원봉사, 교육기부 활용 프로그램 등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학습지 문제풀이 위주의 프로그램과 지나친 고액의 수강료를 납부해야 하는 유명강사 초청 및 특강 편성은 지양하며, 교사 본연의 업무인 입학상담 및 진로지도 등을 위한 유상 방과

후학교 프로그램 편성을 금지하고 있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7).

3) 교원의 방과후학교 참여

현직 교원에 대한 방과후학교 강사료는 강사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정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현직교원의 경우 정규수업, 교무업무 등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 수준의 주당 수업 시수로 과도한 프로그램을 담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시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현직교원의 방과후학교 수업시수는 정규수업 담당시수의 30% 이내(방학기간은 담당수업시수의 1.3배 이내)로 참여를 권장하며, 만일 권장시간을 초과하여 실시하는 현직교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정규수업 및 교무업무를 저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별도안건으로 학운위 심의(자문)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4) 방과후학교 교재 선정

교재는 강사(업체)가 프로그램별로 학생 수준에 따라 자체 개발한 교재를 사용하되, 부득이 외부 교재를 사용해야 할 경우 학생 개별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교재선정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도서 및 재료 선정기준’에 적합한 교재를 사용해야 하며, 교재판매를 위한 프로그램 개설, 강매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교재·교구 계약은 방과후 학교 업체위탁 계약과 분리계약 해야 한다.

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현황

2017년 기준 서울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현황²⁾ 파악 및 분석을 위해 서울시교육청 『방과후학교지원센터』 홈페이지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자세한 내용은 <표 3-1>과 같다.

2) 서울특별시교육청 방과후학교 홈페이지(afterschool.sen.go.kr)의 강사인력풀에서 강사구인(2017.1.1.~2017.10.30.)을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조사·정리함(검색일: 2017. 11. 12.).

〈표 3-1〉 2017년도 서울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현황

구분		교과프로그램						특기적성프로그램				계
		국어 관련	영어 관련	수학 관련	과학 관련	사회 관련	제2 외국어	미술 관련	음악 관련	체육 관련	기타	
프 로 그 램 수 (개)	초	191 (6.6)	100 (3.4)	277 (9.6)	138 (4.8)	35 (1.2)	62 (2.1)	371 (12.8)	586 (20.2)	652 (22.5)	487 (16.8)	2,899
	중	80 (8.6)	96 (10.3)	93 (9.9)	38 (4.1)	42 (4.5)	67 (7.2)	29 (3.1)	156 (16.7)	41 (4.4)	156 (31.3)	935
	고	13 (5.3)	2 (0.8)	1 (0.4)	1 (0.4)	0 (0)	1 (0.4)	13 (5.3)	44 (18.0)	55 (22.5)	114 (46.7)	244
	계	284	198	371	177	77	130	413	786	748	757	3,941
비율(%)		7.2	5.0	9.4	4.5	2.0	3.3	10.5	19.9	19.0	19.2	100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방과후학교 홈페이지(<http://afterschool.sen.go.kr>, 검색일 : 2017. 11. 12.).

1)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현황

서울시 초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경우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프로그램은 총 803개로 27.7%를 차지하였고, 미술, 음악, 체육 등의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2,096개로 72.3%를 차지하였다. 교과 프로그램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과목은 수학으로 수학심화, 사고력수학, 창의수학 등의 프로그램명으로 운영되었고, 국어의 경우 독서, 논술, 토론, 스피치 등의 프로그램명으로 운영되었다.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경우 체육, 음악 과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체육은 댄스, 줄넘기, 축구, 농구, 요가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었고, 음악의 경우 바이올린, 우쿨렐레, 오카리나 등의 각종 악기와 뮤지컬, 동요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었다. 미술은 공예, 클레이, POP손글씨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었고, 기타 과목으로는 요리, 마술, 한자, 연극, 바둑&체스 등이 운영되었다.

2) 중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현황

중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경우 총 935개로 초등학교 2,899개에 비해 프로그램 개수가 현저히 적었다. 프로그램의 종류 또한 초등학교와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교과 프로그램이 416개(44.5%), 특기적성 프로그램이 519개(55.5%)로 각 영역이 절반 가량을 차지하였다.

교과 프로그램의 경우 과학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초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보다 비중이 높았다. 영어 과목의 경우 영어회화, 영문법, 영미소설 등 과목이 세분화되는 현상이 있었다.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경우 음악을 제외하고 모두 비중이 낮았다. 음악 관련 프로그램은 보컬 과목이 초등 방과후에서는 2개교에 불과하였으나, 중학교의 경우 25개교로 증가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특기적성 프로그램 중 기타 과목으로는 댄스, 요리, 연극과 뮤지컬 등의 순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고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현황

고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 프로그램은 18개(7.4%)에 불과하며, 미술, 음악, 체육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이 227개(93.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교과 프로그램은 비중이 현저히 낮았고,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비중은 중학교와 비슷하거나 높은 양상을 보였다. 그중 기타 프로그램에는 컴퓨터 관련 프로그램 50개, 직업 관련 프로그램(병원관리사, 면접대비 등) 11개, 자격증 관련 프로그램(가베 지도사, 스피치 지도사 등) 10개가 있었다. 자격증 관련 프로그램도 대부분 직업 관련 프로그램인 것을 고려하면 고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중 21개 프로그램(8.6%)은 직업연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17년 서울특별시 학교급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학교급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영역별 비중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은 교과 프로그램 대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비중이 약 3:7로 특기적성 프로그램이 많았다. 이는 아직 대학입시로부터 자유로운 시기여서 예체능 관련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문·예·체 프로그램 활성화’ 정책방향에 따라 1학생 1예술활동 지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의 경우는 교과 프로그램과 특기적성 프로그램이 약 5:5의 비중으로 각각이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중학교부터는 대학입시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의 경우 교과 프로

그램이 대폭 줄어들고 특기적성 프로그램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자격증 관련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직업연계 프로그램의 비중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인다. 교과 프로그램의 비중이 많이 낮아지는 교과와 관련해서는 방과후학교보다 사교육을 더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다.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사례³⁾

최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교 내부의 자원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비롯한 많은 인프라를 활용하여 연계·운영하고 있다. 이는 2016 제8회 방과후학교 대상 심사위원회가 밝힌 심사 특징에서도 알 수 있다. 위원회가 열거한 방과후학교의 특징은 첫째, 방과후학교 운영 형태가 매우 다양해져 학교의 직영·민간위탁 혹은 지자체 및 지자체 유관기관·대학·단체 등의 운영이나 지원 등 방과후학교 운영에서 지역사회 단체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둘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준이 높아져 학생들의 돌봄과 전인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맞추어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주말 운영뿐 아니라 초등돌봄교실이 점차 내실화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연계도 활성화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7). 이처럼 최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단순한 교과·특기적성 프로그램에서 확장되어 좀 더 전문적이고 융합적인 프로그램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중 우수사례를 통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016 제8회 방과후학교 대상을 수상한 전남 진원초등학교는 학생들이 방과후학교에 92.8%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진원초등학교는 지역사회와 함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인근 1705부대와의 MOU 체결, 교육청 순회 강사·학부모 재능 기부 등을 통해 우수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발명교실 활용 등 교육자원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면민의 날·장성군민의 날 공연 협조, 마을회관 봉사 공연 등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이는 현대차 정몽구재단, 대한체육회, 창업진흥회, 1705부대, 자율동아리, 학부모 재능기부 등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내 기관들이 학생들의 돌봄과 꿈·끼 발산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였기에 가능했다.

3) 2016 제8회 방과후학교 대상 사례집(한국교육개발원, 2017)을 토대로 작성한 것임.

〈표 3-2〉 지역인프라를 활용한 전남 진원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현황

연번	사업명	연계기관	연계내용
1	탁구	1705부대	강사 지원
2	영어		
3	일본어		
4	학생영양교실	진원보건소	영양교육
5	온드림 창의, 비전스쿨	현대차 정몽구재단	동아리 지원
6	무용	한국예술문화진흥원	강사 지원
7	연극		
8	생활체육	대한체육회	강사 지원
9	힙합댄스부		
10	비즈쿨	창업 진흥회	동아리 지원
11	아침 그림책 읽어주기: 학생대상	학부모	재능 기부
12	냅킨아트, 자수 공예 등: 학부모 대상		
13	모듬북 공연: 학부모 재능 키움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2017, pp. 3-11를 참고로 재구성

부산 을숙도초등학교도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하여 꿈과 끼를 키우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을숙도초등학교에서는 〈그림 3-2〉과 같은 모형을 자체 개발하여 12개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을숙도 초등학교는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본격 시작한 2016년 5월을 기점으로 전체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높아졌고, 이를 통해 사교육비 총 절감액이 1억 3천만 원을 상회했다.

〈그림 3-2〉 부산 을숙도초등학교 ‘지역사회 인프라 활용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일반화 모형’



〈표 3-3〉 을숙도초등학교의 지역사회 인프라 활용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연번	지역인프라	프로그램명	대상
1	다대수영장	수영교실	3~6학년
	엄궁수영장	수영교실	1~6학년
2	렛츠런파크 승마장	승마교실	4~6학년
3	동아대학교 학생재능기부	만화그리기교실	1~6학년
4		테니스교실	4~6학년
5	대한체육회 지원	요가교실	3~6학년
6		밸리댄스교실	3~6학년
7		축구교실	3~6학년
8	학부모 재능기부	수화교실	3학년
9		돌봄요가교실	1~2학년
10		돌봄영어스토리텔링	1~2학년
11		배구교실	4~6학년
12		클레이아트교실	1~6학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2017, pp. 17-25를 참고로 재구성

충남 청라중학교는 충남 보령시 청라면의 구 탄광지역에 위치하는 전교생 95명의 소규모 학교로,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야간급식을 실시하여 학생의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높였다. 청라중학교에서는 교육공동체와 함께 하는 6개 한마음프로그램과 지역사회와의 한뜻프로젝트를 운영하였다. 또한 학습동행 프로그램 49개, 특기적성 프로그램 28개, 토요프로그램 4개, 창의캠프형 프로그램 27개 강좌를 운영하여 평균 학생참여율 200% 이상을 달성하였다.

청라중학교의 「한뜻프로젝트」는 지역사회 내 11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하여 유도관, 악기연습실, 악기, 체험학습, 재능기부, 강사, 컨설팅 등의 자원을 확보하였다. 또한 ‘지역 인사 초청의 날’을 개최하고 경찰, 공무원, 사회복지사, 간호사, 미용사를 초빙하여 특강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청라중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학생들에게는 배움을 나누어주고, 지역사회에는 청라은행마을축제, 청라어르신 경로잔치 참여 등을 통해 재능기부로 환원하고 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은 교육공동체의 소통문화 정착에 이바지하였고, 2016년 신입생 35명 중 타 지역 학생 21명이 유입되어 소규모학교 살리기를 실현하고 있다.

충북 만수초등학교는 오송 생명 산업 단지 조성으로 생긴 뻘뻘한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곳이나, 몇 개의 학원 외에는 교육 시설이 많지 않은 곳이다. 또한 문화시설은 차로 20분 거리인 청주시나 세종시에 분포함으로써 문화 소외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 성격을 고려하여 만수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꿈꾸고,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도록 학교가 교육문화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는 마음에서 필(Feel)-통(通)방과후학교를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 맞춤형 설계를 하였으며 마을전체가 함께 참여하였다.

〈표 3-4〉 만수초등학교의 마을과 함께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

연번	구분	지역인프라명	프로그램명
1	학생동아리 재능 기부	대학생 동아리	과학과 함께하는 예술 여행
2		오송고 학생동아리	저학년 어린이와 함께하는 놀이수업
3	학부모 재능기부	학부모	어린이를 위한 클래식 음악 이야기
4			종이접기, 냅킨아트
5			내 몸은 내가 지켜요(호신술)
6			동화(그림책)
7			외발자전거
8			공예
9	인근기관연계	한국교원대	환경학교
10		반딧불이	STEAM DAY(드론 비행 시뮬레이션 외 4)
11		생활체육협의회	신나는 주말생활체육학교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2017, pp. 59-67를 참고로 재구성

만수초등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나누는 학생 재능기부를 하여 청주 장애인 복지관 참여, 스팀 페스티벌 엔트리 체험 부스를 운영했으며, 학부모와 함께 지역 축제를 운영하거나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만수초등학교는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방과후학교로 도약할 수 있었으며, 프로그램 수 27%, 방과후학교 참여율 28% 증가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마을과 함께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는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 등을 연계하여 지역사회와 학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를 벗어나서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인근 대학교 동아리와 연계하여 최신 기술을 배우는 등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었다. 아울러 방과후전담교사의 업무가중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는

경우도 많았다. 계획 수립 단계부터 전담교사에 대한 배려를 해주고, 보조 인력을 갖추는 등 세밀하게 운영전략을 수립하고 있고, 지역사회 내 재단의 기금 등 학교 이외의 곳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강사료·대관료 등의 비용을 절감하는 등 운영의 다양화를 모색하고 있다.

라. 방과후학교의 성과

1)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과후교육

사교육이 학생들의 주요 학업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은 이미 우리 사회의 보편적 현상이다. 사교육시장이 조직화, 기업화하면서 일부에서는 공교육의 질을 능가한다는 평가도 있다. 단, 이러한 평가는 대학입학이라는 목적에서 볼 때 유효하다. 한편 공교육의 질이 사교육 의존율을 높인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대다수 학부모들이 사교육을 선택하는 이유로 학교의 교수-학습의 질이 사교육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개인차를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의 학교교육이 사교육을 찾게 한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서는 교원의 교과과정 전문성을 언급하기도 한다. 학교 행정 업무의 과다로 인해, 수업준비에 차질이 생기고 교육의 질도 떨어진다는 의견이다. 일선 교사의 업무 과다 현상은 방과후교육 운영에 일조하기도 한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교육인적자원부, 2004)’을 마련하는 등 정책적으로도 공교육을 통해 사교육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공교육과 사교육은 서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시·공간적으로 공교육제도와 사교육시장은 독립적으로 존재해 왔다. 서로 양립하여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던 공교육과 사교육시장의 이분화한 지형이 방과후학교 정책에 의해 공식적으로 연결되기 시작한 것이다.

방과후학교는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보육 등 방과후 교육활동의 운영체제를 개방형 체제로 전환하여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교육 수요를 학교 내로 흡수하기 위해 참여정부 시설에 도입한 제도로, 학교에서 학생의 신청을 받아 정규 수업 이후에 수업을 개설하여 운영하여 왔다. 초·중등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 방과후학교를 도입하여 공교육시장을 활성화하여 사교육 자원을 학교로 유입하

는 것이 초기의 목적이었다.

특히, 사교육시장에서 이루어지던 정규 수업 이외의 다양한 심화보충 수업과 예체능 활동을 학교에서 제공하여 사교육 의존율을 낮추고자 하였다. 사교육시장 축소를 위해 사교육시장의 인력과 콘텐츠가 공교육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한때 유명 학원 강사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거나 학원 강의를 학교에서 상영하기도 하였다. 공교육 내실화와 정상화의 기초아래 경쟁력 있는 사교육 운영 논리로 사회의 교육자원을 도입하여 공교육 제도를 개혁하였다. 사교육시장과 경쟁하기 위해 학교가 사교육기관의 운영원리를 벤치마킹하면서 사교육과 공교육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기 시작했다(한국교육개발원, 2013).

김인숙·변종임·조순옥(2009)은 2007년 실시된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국어과목 검사결과와 학교장 설문지를 통한 배경 변인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참여가 학업성취도(2007 국가수준 학업성취도의 국어과목 점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방과후학교의 참여는 학업성취도 향상과 함께, 학생의 교사 및 교우 관계 형성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한편,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방과후학교가 사교육의 대체제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교 교육이 부실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경호(2010)는 현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을 통해 학교의 교육 기능을 보완·강화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특기적성보다는 교과 프로그램 편중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며, 소질과 적성 계발보다는 국·영·수 교과목 중심의 입시학원 역할을 수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하며 방과후학교의 교과 교육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

또한 학교단위 방과후학교는 담당 교사의 행정 업무를 증가시켜 업무 부담을 주고 있고, 현직 교사의 수업 시수가 늘어남으로 인해 정규 수업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이경호, 2010). 이수정과 민병철(2009)은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일부 영리기업과 사교육기관의 강사들이 방과후학교 운영 및 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사교육을 더욱 조장하는 행태라고 비판하기도 하는 등 학교와 교실 수준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2)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후교육

방과후교육의 성과에 관한 연구는 김성숙·송미영·김준엽·이현숙(2011), 김경근(2009), 김인숙·변종임·조순옥(2009)의 연구들처럼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한다고 보기도 하지만, 변수용·황여정·김경근(2011)의 연구처럼 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지 못할 것이라는 연구들도 있다. 이들 연구가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 조사 1~3차 년도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방과후학교 참여가 중학생의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으며, 방과후학교 정책을 통해 계층 간 교육격차해소의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읍·면지역 학생의 국어, 영어 학업성취도 향상에는 다소 긍정적인 결과를 보임으로써 지역 격차 해소에는 다소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상의 연구는 방과후학교가 국가수준에서 사회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학교단위에서 방과후학교의 운영 방식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는 주목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지역 등 교육기회가 적은 지역에서는 방과후학교가 오히려 학업성취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배상훈·김성식·양애경(2010)의 연구에서는 방과후학교에 참여 정도에 따른 사교육 비지출 정도와 학업성취 정도를 함께 분석하였다. 방과후학교의 참여 정도는 방과후학교 교육비 지출 정도로 판단하였으며, 사교육비와 학업성취 정도는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의 학부모의 응답으로 도출하였는데, 학업성취 수준을 5개 등급의 서열척도로 구성하여 도출하였다. 방과후학교 교육비에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학생일수록 사교육비에 대한 지출이 낮아지는 상관관계를 확인하였고, 학생의 학업성취 정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방과후교육의 취지는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의 정상화에 있으나, 실제적 성과에서는 대학입학을 위한 사교육 시장이 공고한 교육환경에서 기대한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김진영(2012)의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방과후학교의

사교육 대체 효과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비용 대비 효과성 측면에서는 방과후학교가 훨씬 뛰어났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시장이 가지고 있는 가격상승효과를 국가적 통제로 조율한다는 방과후학교의 특성이 실제로 잘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 방과후학교 운영에 따른 시사점 및 한계분석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초·중·고등학교별 과목 운영에 차이가 있었다. 초등학교의 경우 음악(바이올린, 우쿨렐레, 오카리나 등), 체육(댄스, 줄넘기, 축구 등), 미술(미술, 클레이, 공예 등)과 같은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백화점식 프로그램처럼 대부분의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을 탐색하는 과정에 있는 초등학교의 경우는 좀 더 다양하고 미래지향적인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중학교에서는 프로그램 개수와 참여율이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교과프로그램이 44.5%, 특기적성 프로그램이 55.5%의 비율로 확인되었다. 입시위주의 교육이 본격화되는 시기여서 교과 프로그램 비중이 초등학교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선행학습 금지로 인하여 교과과정 프로그램은 주로 영어회화, 영미소설 등의 형태로 교과과정을 보완하여 심화 위주로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다.

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교유형별 차이를 드러냈다. 현재 고등학교 방과후교육 참여율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나,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에서는 방과후교육이 활성화되고 있었다. 자사고의 방과후학교는 주로 대학입시 준비를 위한 교과과정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일부 자사고는 일반고에 비해 3배 이상의 비싼 수업료를 받으며, 별도로 고액의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받는 등의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비해 특성화고등학교에서의 방과후교육은 취업률과 진로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가 많다. 특성화고등학교 특기적성 방과후학교에 참여한 학생 비율이 높을수록 학생취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특기적성 방과후 활동 대부분이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내용으로 강좌를 구성함으로써 인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학벌·학력 중심의 사회적 분위기로 인한 문제점, 폐해 그리고 변화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방과후학교에서 입시과목, 교과과정 프로그램 운영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이후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이 금지됨에 따라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떨어진다는 의견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난해 교육부는 방과후학교의 선행학습을 저소득층이 10% 이상인 중·고등학교는 방학 중에, 저소득층밀집학교 등은 학기 중에도 일부 시행을 허용한 바 있다. 한편에서는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을 진행한다면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방과후학교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강사료수준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도록 하여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이 어려워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들도 많다.

2. 자치구별 마을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

가.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마을방과후학교

서울특별시와 시교육청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마을교육생태계를 조성하여 공교육 혁신과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이 사업은 서울특별시 자치구를 혁신교육지구로 공모, 선정·지정하여 지역 내 교육공동체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행·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학교 등 다양한 주체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협력모델이다.

이러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은 2012년 혁신교육지구 추진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시교육청과 기초지자체 간의 교육협력 사업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의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4년 시는 자체적으로 11개 자치구를 선정하여 ‘교육우선지구’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다. 한편, 2014년 11월,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시장이 공동선언을 통해 ‘상생과 협력의 글로벌 교육혁신도시 서울’을 선언하고 혁신교육지구 통합 운영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때 부터는 서울시 교육청, 기초지자체,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서울시)의 참여를 통한 교육 거버넌스가 본격화되었다(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 2017b; 최창의, 2016).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2017b)은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 운영목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교육청, 서울특별시, 자치구, 지역주민, 학교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으로 아동·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학교-마을교육공동체를 형성한다. 둘째,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의 체계적 조직과 지원으로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재구성 활성화 및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한다. 셋째,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으로서의 민주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과후 마을활동 체제를 구축한다. 넷째,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모델 정립을 통한 서울교육 혁신방향을 제시한다.

이러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정책의 목적에 대해 주정훈 외(2017)는 다음과 같이 의미를 부여하였다. 첫째, 혁신교육지구는 교육 공공성의 전면화를 구현하는 정책이다. 이는 학교 밖 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능력에 좌우되는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안으로, 마을이 학교교육과 협력 속에서 ‘공공적 방식’으로 아이들을 함께 교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혁신교육지구는 학교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방과후학교, 돌봄 교실과 같이 학교가 어쩔 수 없이 떠맡고 있는 일들을 덜어내고, 아이들 교육을 위해 꼭 필요하나 학교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민·관·학 협력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셋째, 교육을 중심으로 학교와 마을을 전면적으로 재구조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즉, 학교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와 마을의 교육 전문가들이 함께 마을 교육 시스템(생태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서 지역의 공동체성도 회복될 수 있다. 넷째, 구성원들이 학교와 지역사회의 주체로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며 시민성을 기를 수 있으며, 따라서 학교를 포함한 마을 전체에 삶과 결합된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백병부 외, 2016).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필수과제와 지역특화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필수과제는 모든 혁신교육지구에서 수행해야 하는 사업으로 혁신교육지구의 기초사업이다. 지역 특화사업은 학교-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지역 특성이 반영된 사업이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 필수과제에는 마을-학교 연계사업이 있다. 이는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마을방과후활동 체제구축이 있다.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은 마을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과 학교와의 관계망 형성을 통해 학교교육과정을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과 삶의 통합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성공적인 운

영을 위해 마을 문화예술강사 모집, 학교 연계, 지역 내 연습장 등 자원 발굴 및 연계, 지역축제 연계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마을방과후활동 체제구축은 아동·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지역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여가 및 교육활동을 지원받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을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정비, 확충하고 마을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마을 교육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방과후학교」 시범 운영, 마을 강사 인증시스템 구축, 마을과 함께하는 독서·토론 문화 조성을 목표로 한 독서토론 멘토 ‘학부모 보너스’ 양성 연수, 가족 독서토론캠프 등이 운영되고 있다(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 2017a).

나. 자치구별 학교-마을연계사업 프로그램

마을방과후활동 체제구축 사업은 2017년 현재 20개 자치구에서 38개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자치구별로 마을강사 양성, 콘텐츠 지원, 지역 내 기관 간 연계 등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치구별 마을방과후활동 체제구축 사업 내용은 <표 3-5>와 같다.

<표 3-5> 자치구별 학교-마을연계 사업

교육지원청	자치구	사업명
동부	동대문구	마을-학교가 함께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우리 마을 교육멘토단 운영
서부	마포구	마을 방과후학교 체계 구축
	서대문구	우리 마을 강사, 학교 교육 활동 지원
		서대문 창조적 혁신교육의 기회 ‘누구나’ 프로젝트
	구로구	온 마을이 함께하는 방과후학교
		찾아가는 온마을강사(마을학교)
	금천구	금천형 마을방과후학교 시범학교 지원
	영등포구	마을방과후학교 ‘n개의 삶-n개의 학교’
		사회적 기업 연계 방과후학교
		지구시민-마을학교 프로젝트
		마을과 학교의 ‘설왕설래’
		안전한 학교밖 체험환경 조성

교육지원청	자치구	사업명
북부	노원구	마을방과후학교 운영
		다양한 마을학교 개설 및 운영
	도봉구	마을방과후활동 운영센터 운영
		도봉 마을학교 지정 및 프로그램 운영
중부	종로구	학교-마을방과후 연계사업
		종로마을학교 공모사업
		마을강사 양성 및 역량강화 연수
	중구	청년활동가와 함께 하는 방과후활동
강동송파	강동구	방학만큼 행복한 마을방과후활동
강서양천	강서구	마을결합형강서마을학교
	양천구	해누리 마을방과후 운영지원
강남서초	서초구	참여형 마을프로그램지원
동작관악	관악구	토닥토닥 마을학교 육성
	동작구	마을학교 '마을이 학교다'
		삼동이 마을학교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교육풀 구축
성동광진	광진구	참여와 협력,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성동구	아이들이 행복한 성동 마을학교 운영
		아이들이 행복한 성동 마을아카데미 운영
성북강북	강북	마을과 함께하는 마을방과후학교 운영
		마을배움터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지원
		마을에서 삶을 찾는 디딤돌 학교 운영
		마을교사 교육 지원
	성북	학교연계프로그램 지원(콘텐츠운영비)
		마을교사 역량강화 및 학교연계프로그램지원(모니터링단 운영)

출처: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 2017a, pp. 244-248를 참고로 재구성

3. 마을방과후학교 시범사업지구 프로그램 현황

서울시에서는 2017년 9개의 자치구(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양천, 구로, 금천구)와 MOU를 맺어 ‘마을방과후학교’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이혜숙·이영주, 2017). 마을방과후학교 시범사업은 시범학교에 코디를 파견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을 개설하거나 전담인력을 파견하는 등 점차 사업이 확장되는 모습이다. 각 시범사업 지역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구로구

9개의 자치구 중 구로구의 마을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학교지원형 마을방과후학교 모델’과 ‘마을공급형 모델’을 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학교지원형의 경우 학교가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에 자치구가 재정 지원과 행정인력,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시범학교 2개교를 선정하여 방과후학교 업무 지원 코디네이터를 파견하고 있다.

구로구는 온마을교육지원센터라는 전담기구에서 2017년 6월부터 9월까지 14개의 마을방과후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마을공급형은 마을 공간 및 마을 강사를 발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을방과후 프로그램 분야는 학력·교과 프로그램 5개, 창의프로그램 2개, 문화·예술 프로그램 4개, 신체·놀이프로그램 3개이며, 연령별로는 초등저학년 프로그램 7개, 초등고학년 프로그램 2개, 중등프로그램 5개였다. 수강 장소는 주민센터 4곳, 평생학습관 5곳, 도서관 2곳, 구로구청 1곳, 목공소 1곳, 소공원 1곳으로 다양하였다.

〈표 3-6〉 구로구 마을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연번	분 야	프로그램	장 소	대 상	정원
1	학력/ 교과	마을로 수학하자 『마을MATH』	수궁동주민센터	초등1~2	15
2		파워업! 수학(1)	평생학습관	중등1	20
3		파워업! 수학(2)	평생학습관	중등2	20
4		파워업! 영어(1)	평생학습관	중등1	20
5		파워업! 영어(2)	평생학습관	중등2	20
6	창 의	21세기 연금술 『이루어져라, 3D!』	구로구청	초등4~6	20
7		진로코칭수업 『진로나침반』	평생학습관	초등6~중등1	20
8	문화/ 예술	사진찍는 만화가의 『낭만사진교실』	꿈나무어린이도서관	초등3~6	15
9		웹툰교실 『네모안상상이야기』(1)	구로3동주민센터	초등3~4	15
10		웹툰교실 『네모안상상이야기』(2)			15
11		창의목공교실 『목공+anything』	OO목공소	초등3~4	20
12	신체/ 놀이	놀이 배우는 세시풍속 『놀이월령가』	구로3동주민센터	초등1~\$	15
13		놀이로 떠나는 세계 여행	구로초구립도서관		15
14		다같이 놀자 동네한바퀴	OO소공원		15

출처: 구로구교육통합포털 홈페이지(<http://edu.guro.go.kr>, 검색일: 2017. 11. 10.).

나. 노원구

노원구의 마을방과후학교는 초·중학교 3개교를 선정하여 마을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
해 지역여건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마을학교를 개설하여
문화·예술·체육·전통놀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
다.

노원구의 마을학교는 주민 공모 마을학교와 지역커뮤니티 마을학교로 구분된다. 각 마
울학교는 인문·사회, 창의·공학, 예체능, 생활·기타 네 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주
민 공모 마을학교는 개인이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학교를 개설하는 것으로, 주로 초등생
대상이며 보드게임, 한자, 우쿨렐레, 클레이, 숲 이야기, 피아노, 종이접기, 로봇제작,
중국어, 독서논술, 글쓰기, 스피치 등 1000여개에 이른다. 지역커뮤니티 마을학교는
보통 아파트 관리사무소, 초등학교, 사랑방 등에서 이루어지며, 성인들도 참여하고 있

다. 마을학교-역사보드게임, 솜사탕캘리그래피, 로봇과학 등 40여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표 3-7〉 노원구 마을학교 프로그램 유형

분야	프로그램	대 상	분야	프로그램	대 상
인문·사회	프랑스어회화	초·중·고	예체능	캐릭터/애니메이션	초등
	한자 쓱쓱	초등		꿈지락하우스-클레이	미취학
	지도와 함께하는 세계여행	초등		책이랑 미술이랑	미취학
	중국어야 놀자	초등		감성공예교실	미취학
	신나는 미디어 논술	초등		역사와 만나는 전통놀이	초등
창의·공학	창의로봇	초등	생활·기타	창의쓱쓱 요리쿡쿡	초등
	직업진로체험교실	초등		신기한 마을숲이야기	초등
	3D프린팅 배움터	초등		캘리그래피	초등
	친구랑 보드랑	미취학		재활용공작소와 꿈꾸며 날아오른 과학자	초등
	창의리더과학	초등		우리, 꽃 하자!	고등

출처: 노원구마을학교지원센터 홈페이지(<http://https://nest2.nowon.kr>, 검색일: 2017. 11. 13.).

다. 도봉구

도봉구는 ‘자연에서 배우고 마을에서 키우는 사람 중심 교육도시’라는 도봉혁신교육지구 핵심 비전 아래,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교육시설과 자원을 적극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람 중심의 마을교육공동체를 조성하고 있다. 도봉 방과후 마을학교는 거점 방과후 마을학교, 주민설계 방과후 마을학교로 구분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거점 방과후 마을학교의 운영주체는 비영리 청소년 교육기관, 시설 및 법인·단체이며, 사업 내용은 규모 있는 기관의 특성을 살린 특화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도봉구 4권역별 2개의 거점 마을 지정 등이다.

주민설계 방과후 마을학교의 사업주체는 학생 교육 능력을 갖춘 관내 3인 이상의 주민모임으로 주민 모임별 세밀한 특성을 살린 창의적 방과후 프로그램, 주민 설계 마을학교 공간 확보 지원 및 마을학교 네트워크 구축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다(도봉구,

2017).

도봉구의 거점 및 주민설계 방과후 마을학교는 방과후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고자 도봉구에서 공모를 거쳐 지정하여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도봉구에서는 도봉 마을교사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봉 마을 교사는 방과후 마을학교 강사뿐 아니라 문예체·창체 협력교사 및 도봉혁신교육지구 특화사업 강사로도 활동할 수 있다.

〈표 3-8〉 2017년 선정 도봉 거점 마을학교

연번	신청기관	사업명
1	그린트리 예술창작센터	그린트리 마을학교
2	극단 그린아이	도봉청소년 연극학교
3	도봉구 체육회	즐겁고 신나게 뛰어놀자!
4	한국사회교육원도봉지부 (한국문화센터)	또래수공예 거점마을학교
5	식생활교육도봉네트	도봉바른밥상 식생활배움터
6	쌍문동청소년문화의집	토토숲과 함께하는 건강한 먹거리학교
7	쿤스트하우스	(도봉청소년)DK-POP 엔터테인먼트
8	둘리뮤지엄	도전! 청소년학예사(큐레이터)직업체험
9	창동청소년문화의집	마을을 그리는 과학다락방
10	쌍문동청소년랜드	마을 아동 청소년을 위한 예술통섭프로그램 "예술로 해바라기"

출처: 도봉혁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http://happyedu.dobong.go.kr>, 검색일: 2017. 11. 15.).

라. 은평구⁴⁾

은평구는 은평마을방과후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교육콘텐츠 연계사업, 마을방과후 시범학교 지원 사업, 1개동 1개교 거점 마을배움터 지원 사업, 마을 강사 지원 사업, 일반고 학교복지사 배치사업, 꿈나무마을 방과후학교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마을방과후 시범학교 사업은 ‘은평형 마을방과후’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학교를 지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은평형 마을방과후’는 개별 학교의 상황과 학생 요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방과후수업을 지원하는 모델이다.

4) 은평구마을방과후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blog.naver.com/epcon0222>)를 참고로 재구성함(검색일: 2017. 11. 15.).

수강료 보전·재료비 지원·마을자원 연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방과후수업을 지원하는 한편, 시범학교의 상황에 맞게 유동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콘텐츠 연계사업을 통해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교육콘텐츠를 지원하고 있다. 은평 교육 콘텐츠 연계사업은 진로활동과 문화예술, 탐구영역, 심리정서, 인성교육 등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콘텐츠를 보유한 지역 기관·단체·주민이 사업 참여 신청을 하면, 학교는 은평구가 배당한 예산 범위 내에서 원하는 수업이나 강좌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2012년부터 이와 같은 사업을 펼쳐 온 은평구는 6월 현재 174개 단체, 239개 프로그램을 확보했다.

마. 양천구

양천구는 방과후와 돌봄에 대한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마을방과후 운영을 목적으로 해누리 마을방과후학교 운영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신월7동 지양마을 작은도서관 거점형 마을방과후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관 및 주민설계형 마을방과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사회 연계 학교방과후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다. 양천구의 거점형마을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표 3-9>와 같다.

<표 3-9> 양천구 거점형 마을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현황

연번	프로그램명	장소	대상
1	가족과 함께 숲으로	지양마을 작은도서관	초등1~3학년
2	그림책이랑 놀자	지양마을 작은도서관	초등1~3학년
3	놀이로 쑥! 쑥!!(전래-창의-인성)	지양마을 작은도서관	초등1~3학년
4	동글동글 풍선놀이	지양마을 작은도서관	초등1~3학년
5	밥상머리 예절교육	지양마을 작은도서관	초등1~3학년
6	야~가을이다! 숲에서 놀자	지양마을 작은도서관	초등1~3학년
7	영어동화책	지양마을 작은도서관	초등1~3학년
8	해설이 있는 『우리고장 탐방』	양천구 전역	초등생 가족
9	3D 퍼니사이언스	고운달 작은도서관	초등2~5학년
10	그림책이랑 뽀글뽀글	은행정 책마당	초등1~3학년
11	꼬물꼬물 미술놀이	고운맘 작은도서관	초등1~3학년
12	내일 디자이너	달빛마을 작은도서관	초등1~3학년

연번	프로그램명	장소	대상
13	도깨비 학교	목4동 청소년독서실	초등1~3학년
14	빨대로 배우는 도형	신원1동 청소년독서실	초등1~3학년
15	아두이노 코딩	신원5동 정보화교실	초등3~6학년
16	역사야, 친구하자	달빛마을 작은도서관	초등3~5학년

출처: 양천구통합예약포털 홈페이지(<http://http://lifestudy.yangcheon.go.kr/reservation/reservation>, 검색일: 2017. 11. 15.).

바. 시사점 및 한계 분석

서울혁신교육지구의 마을방과후 사업은 자치구의 특성에 따라 그 성격이 조금씩 상이하나, 마을(자치구)과 학교(교육청)가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장을 위하여 협력하고 있다는 점은 일맥상통하였다. 그러나 9개 자치구의 마을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통해 한계점을 살펴봄으로써 좀 더 성공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마을방과후학교 사업을 전담하고 각 주체와 연계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모든 자치구의 마을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수많은 인프라와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다. 학교, 교육청, 자치구,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 성격이 다른 주체들을 마을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각 주체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과 협력의 관점에서 전문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구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위해 전담조직의 위상과 인력, 예산, 관련 법령 정비 등은 절대적으로 수반되어야 것이다.

둘째, 마을방과후학교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와 이를 위한 전략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마을방과후학교는 지역사회의 역할이 필수적이며,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시민들 역시 마을방과후학교 사업의 주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차원적인 홍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홍보 대상별·기관별·장소별 전략을 수립하여 다차원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참여를 제고해야할 것이다.

셋째, 마을방과후학교 사업의 안전에 대한 문제를 철저히 대비해야한다. 금천구와 같이 전용공간을 마련하거나 은평구와 같이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는 형식의 마을방과후학

교 프로그램은 학교 내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밖으로 이동할 일이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마을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교 밖 도서관, 주민센터, 평생학습관 등에서 운영되므로 학생들의 이동에 따른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에 법적·행정적·의료적 대비를 철저히 하여 학부모와 학생, 교사 모두에게 마을방과후학교가 믿고 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마을방과후학교 사업 관계자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와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마을방과후학교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공감은 있으나 운영주체별 구체적 역할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한편 교육을 둘러싼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상적인 취지와 철학만을 강조함으로 인해, 입시·진학 등과 같은 현실적인 교육문제와 학부모들의 요구를 어떠한 관점으로 이해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4. 방과후학교 및 마을방과후학교 질적 연구

가. 질적 조사 개요

현행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있어 현장 운영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의견수렴간담회 및 공청회를 실시하였고, 방과후학교 및 마을방과후학교 관계자,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담 및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질적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2017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이루어졌고, 공식적인 의견수렴간담회 및 공청회, 심층면담, 관계자 회의 및 포럼에 참가하여 참여관찰을 하는 등 폭넓게 자료를 취합하여 현장의 소리를 통해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연구결과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1) 간담회 및 공청회

우선 연구주제에 대하여 최근의 다양한 현장 실태파악을 위해 공식적으로 간담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와 공청회에는 마을방과후학교를 담당하는 각 지자체 담당자, 교육청 관계자, 각 급 학교 관리자 및 교사, 마을방과후학교 교사 및 방과후학교 담당교사, 학부모 등 연구주제에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관계자들을 제한 없이 참석하도록

하였다. 간담회에서는 각 급 학교의 교장 및 교감 등 관리자와 방과후학교 제도를 운영하는 담당교사, 마을방과후학교 및 방과후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사전에 발표용 원고를 작성하여 마을방과후학교 및 방과후학교의 현황, 실태 그리고 우수사례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참석한 관계자 및 학부모들도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발표하고 교환하는 과정을 거쳤다. 공청회에서는 방과후학교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각 급 학교의 마을방과후학교 및 방과후학교의 프로그램 활성화방안에 대해 토의를 하며 의견을 종합하였다. 간담회와 공청회의 발표자 의견은 사전에 원고 형태로 취합하였고, 그 외 발표자들의 의견은 주요 내용을 메모하는 형식으로 문서화 작업을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2) 심층면담

심층면담은 연구의 목적과 문제에 부합하는 질문을 활용하였다. 심층면담 사전에 반구조화된 질문으로 설문 문항을 구성하여 심층면담 참가자에게 전달하고 유선으로 사전 설명을 실시하여 연구주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층면담은 평균 60~90분 정도 소요가 되었으며,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구한 뒤 면담내용은 녹음을 하였다. 면담이 끝난 후 녹음파일은 분석에 용이하게 문서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의 참가자 선정은 연구주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지자체와 교육청 업무 담당자로부터 시작하여, 이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추가 면담자를 선정하는 눈덩이포집방법을 사용하였다. 주로 마을방과후학교 및 방과후학교를 담당하는 학교 교사, 강사, 학부모 운영위원 등 본 연구문제에 답변을 줄 수 있는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사람들과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 시작 전 연구의 주제와 목적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며 연구주제에 부합하는 자료 수집을 위해 노력하였다.

3) 서면 면담

서면을 이용한 면담은 면담참가자로 선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연구진과 면담시간이 맞지 않아 면대면 심층면담을 실시하지 못한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서면을 이용한 연구절차는 연구진이 우선, 메일로 반 구조화된 설문지

를 발송하고 연구 참여자가 충분히 검토하여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부여한 뒤 서면으로 기술된 의견서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사전에 서면인터뷰 참가자 추천을 받으면서 참가자의 상황을 듣고 방과후학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것인지 마을방과후학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것인지 판단하였다. 서면을 통한 반 구조화된 질문을 위해 교사용 면담지와 학부모용 면담지 2부를 제작하여 활용하였다.

교사는 방과후학교, 학부모는 방과후학교와 마을방과후학교를 구분하여 질의하였다. 교사용 면담지는 학교에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형태를 먼저 확인하고 위탁운영의 경우 학교가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현재까지 방과후학교의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방과후학교 참여율 저하 원인, 방과후학교에서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분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학부모대상 방과후학교용 면담지의 경우에는 방과후학교 참여 계기, 만족한 프로그램, 학교에서 개설되기 원하는 프로그램, 방과후학교가 활성화되기 위해 개선할 부분에 대해 질의하였다. 마을방과후학교는 시범사업기간이므로 마을방과후학교 취지에 대한 의견, 마을방과후학교에서의 지역사회와 학교의 역할, 적절한 참여형태 그리고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선행되어야 할 점등을 질문하였다.

4) 참여관찰

참여관찰은 연구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포럼과 관계자협의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포럼과 관계자협의회를 참여관찰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연구주제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참여함으로써 현장에 기반한 현황과 실태 파악이 용이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포럼은 참가제한이 없이 포럼주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열려있었기 때문에 연구진이 자유롭게 참석하여 포럼에 참가한 전문가들을 통해 개진되는 의견을 파악하였다. 관계자협의회는 사전에 관계자협의회를 주최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관계자를 통해 참석자 전원에게 사전에 본 연구의 자료수집의 목적으로 연구진이 참석해도 괜찮다는 허락을 얻은 뒤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포럼과 관계자협의회는 참여관찰은 현장노트를 사용하여 논의되는 주요내용을

메모하는 형식으로 자료가 수집되었다.

〈표 3-10〉 질적 연구 대상 및 연구참여자 정보

구분	자료	일시	참가자
간담회	토론자 및 방청객 의견	2017.10.30.	▪ 간담회 토론자 A: 고등학교 교사
			▪ 간담회 토론자 B: 초등학교 교장
			▪ 간담회 토론자 C: 고등학교 교감
			▪ 간담회 토론자 D: 방과후학교 강사
			▪ 간담회 토론자 E: 마을방과후학교 운영&강사
			▪ 간담회 토론자 F: 중학교 교장
			▪ 간담회 방청객 G: 학부모(초등자녀)
			▪ 간담회 방청객 H: 초등학교 교장
			▪ 간담회 방청객 I: 지자체 관계자
			▪ 간담회 방청객 J: 지자체 관계자
			▪ 간담회 방청객 K: 학부모(중등자녀)
공청회	토론자 및 방청객 의견	2017.11.29.	▪ 공청회 토론자 A: 내부 연구진
			▪ 공청회 토론자 B: 초등학교 교장
			▪ 공청회 토론자 C: 고등학교 교사
			▪ 공청회 토론자 D: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장
			▪ 공청회 방청객 E: 고등학교 교사
			▪ 공청회 방청객 F: 학부모(고등자녀)
			▪ 공청회 방청객 G: 학부모(중등자녀)
심층면담 서면면담	관계자 -개별면담	2017.09.26.	▪ 심층면담 지자체 관계자 A
		2017.11.15.	▪ 심층면담 교육연구소 관계자 B
		2017.11.16.	▪ 심층면담 지자체 관계자 C
		2017.11.30.	▪ 심층면담 방과후학교 교사 D
	학부모 -개별면담 -서면	2017.11.29.	▪ 심층면담 학부모 A (초등자녀)
		2017.11.29.	▪ 심층면담 학부모 B (초등자녀)
		2017.12.01.	▪ 서면면담 학부모 C (중등자녀)
		2017.12.01.	▪ 서면면담 학부모 D (중등자녀)
		2017.12.01.	▪ 서면면담 학부모 E (중등자녀)
		2017.12.04.	▪ 서면면담 학부모 F (중등자녀)
		2017.12.08.	▪ 서면면담 학부모 G (고등자녀)
	학교관계자 -면대면 -서면	2017.11.21.	▪ 심층면담 고등학교 방과후학교 담당 교사 A
		2017.12.02.	▪ 서면면담 고등학교 방과후학교 담당 교사 B
		2017.12.04.	▪ 서면면담 중학교 방과후학교 담당 교사 C

구분	자료	일시	참가자
		2017.12.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면면담 중학교 방과후학교 담당 교사 D
참여관찰	관계자 협의회 -회의내용 -발표의견	2017.1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자협의회 교육청 관계자 A 관계자협의회 지자체 관계자 B 관계자협의회 지자체 관계자 C 관계자협의회 지자체 관계자 D 관계자협의회 지자체 관계자 E 관계자협의회 지자체 관계자 F 관계자협의회 지자체 관계자 G 관계자협의회 지자체 관계자 H 관계자협의회 교육청 관계자 I 관계자협의회 교육청 관계자 J 관계자협의회 교육청 관계자 K 관계자협의회 교육청 관계자 L
	포럼 발표자 의견	2017.1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럼 발표자 A: 관련 연구자 포럼 발표자 B: 지자체 관계자 포럼 발표자 C: 지자체 관계자 포럼 발표자 D: 지자체 관계자 포럼 발표자 E: 중학교 교사 포럼 발표자 F: 마을방과후학교 운영 포럼 발표자 G: 지자체 관계자 포럼 발표자 H: 마을방과후학교 운영 포럼 발표자 I: 초등학교 교장 포럼 발표자 J: 대학 관계자

5) 대상별 주요 의견수렴 내용

연구대상별로 의견을 취합한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 및 서면면담을 통한 의견수렴에서는 마을방과후학교 및 방과후학교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개선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취합하였다. 마을방과후학교를 담당하는 지자체 담당자의 경우는 마을방과후학교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였으며, 주로 마을방과후학교의 운영 현황, 추진과정, 운영과정에서의 주요 이

슈, 제도 개선방안 및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교육청관계자 및 학교의 마을방과후 혹은 방과후학교 담당교사의 경우는 지자체 담당자와 유사하게 마을방과후학교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였으며, 방과후학교의 운영상 문제 및 주요 이슈에 대해해서 함께 의견을 청취하였다. 간담회와 공청회는 교육청관계자, 지자체관계자, 학교 교장 및 교감 등 관리자와 교사, 마을방과후학교 관계자, 학부모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였으며,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뒤 자유롭게 참가자의 발표시간이 이어졌다. 포럼과 관계자협의회 참관에서는 주로 마을방과후학교 관계자가 참여하였기 때문에 마을방과후학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표 3-11〉 참조).

〈표 3-11〉 대상별 주요 질의 및 의견 수렴내용

구분	내용
학부모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학교 자녀 참여경험 ▪ 방과후학교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개선사항 ▪ 마을방과후학교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 마을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서 선행되어야 할 점 ▪ 마을방과후학교에서의 학교와 지역사회 역할
지자체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 마을방과후학교 추진과정 ▪ 마을방과후학교 운영상 주요 이슈 및 개선방안 ▪ 마을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교육청 및 학교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방과후학교 및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지원 현황) ▪ 마을방과후학교 및 방과후학교 추진과정 ▪ 마을방과후학교 및 방과후학교 운영상 주요 이슈 ▪ 마을방과후학교 및 방과후학교 학부모의 요구 ▪ 마을방과후학교 및 방과후학교 제도 개선 방안 ▪ 마을방과후학교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포럼, 간담회, 공청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방과후학교 및 방과후학교의 운영 현황 ▪ 마을방과후학교 및 방과후학교 운영상 주요 이슈 ▪ 마을방과후학교 및 방과후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 ▪ 마을방과후학교 및 방과후학교 제도 개선 방안 ▪ 마을방과후학교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관계자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방과후학교 시범 사업 운영 현황 ▪ 마을방과후학교 운영상 주요 이슈 ▪ 마을방과후학교 제도적 개선 방안 ▪ 마을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6) 자료분석

간담회 및 공청회, 심층면담, 서면, 관계자협의회 및 포럼 참관 등 다양한 대상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서울특별시와 시교육청에서 시범운영 중인 마을방과후학교와 시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해 활용되었다. 그런데 현장의 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교교사와 학부모들에게서 마을방과후학교가 기존 방과후학교와 명확하게 구분되기보다는 개념과 사업을 혼용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시범사업 중인 마을방과후학교가 아직 학교교사와 학부모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방과후학교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시내의 지자체 중에는 자체 조례를 통해 마을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리고 마을결합형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에서 학부모 및 지역의 강사를 채용하기 때문에 방과후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마을과 연계하는 형태를 띠고 있어 방과후학교인지 마을방과후학교인지 구분하기 모호하여 방과후학교 관련 심층면담이지만, 마을방과후학교로 인식하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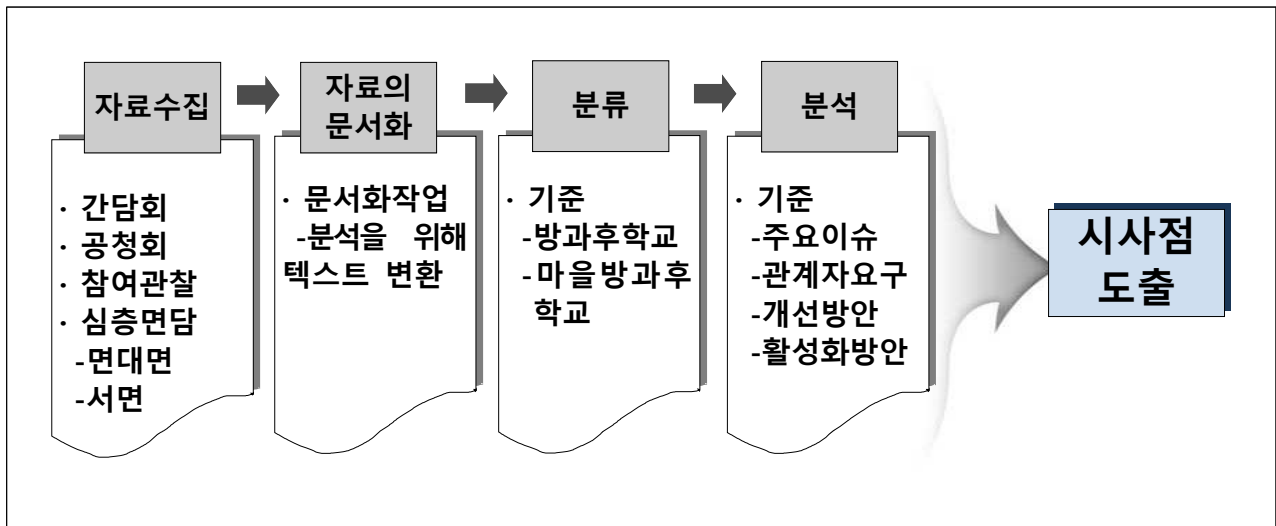
또한 학부모들의 경우 방과후학교와 마을방과후학교를 각각의 독립적인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았고, 대부분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연유로 의견을 취합할 때 연구 참여자의 구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였다. 연구진이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마을방과후학교와 방과후학교에 대해 구분하여 질문을 하였지만, 명확하게 구분지어 대답을 하지 않는 경우 연구 참여자의 생각과 의견을 토대로 분석 작업에서 연구진이 마을방과후학교와 방과후학교에 대한 의견을 구분하였다.

수집된 의견은 전문 속기사의 텍스트화 작업을 통해 분석에 용이한 문서자료로 변환하였다. 1차적으로 공식적인 토의 및 토론이 이루어졌던 간담회와 공청회는 발표자들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주요 의견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간담회와 공청회에서 자료를 포함하여 모든 문서자료는 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1차적으로 마을방과후학교에 대한 의견인지, 방과후학교에 대한 의견인지 구분한 뒤

분석기준에 따라 유목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주요 틀은 마을방과후학교와 방과후학교에 대한 운영과정에서 주요 이슈,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요구, 제도 개선방안, 프로그램 활성화방안이다.

〈그림 3-3〉 자료 분석 흐름 및 분석기준



나. 간담회 및 공청회 주요 의견

1) 간담회

간담회는 2017년 10월 30일(10:00~11:30)에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2층 회의실에서 의견수렴을 위해 실시되었다. 방과후학교 관계자 및 담당교사 대상 간담회 개최를 통해 현장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토론자로는 고등학교 교사(간담회 토론자 A), 초등학교 교장(간담회 토론자 B), 고등학교 교감(간담회 토론자 C), 방과후학교 강사(간담회 토론자 D), 마을방과후학교 운영 및 강사(간담회 토론자 E), 중학교 교장(간담회 토론자 F)등 총 6명이 참여하였다. 방청객으로는 주제에 관심이 있는 교육청, 학교, 지자체 관계자, 학부모가 주로 참석하였다.

의견수렴 간담회에서는 마을방과후학교 및 방과후학교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발표자별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표3-12〉 참조).

〈표 3-12〉 간담회 발표자 주요 의견

구분	주요의견
<p>■ 간담회 토론자 A: 고등학교 교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방과후 활성화 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질의 교수자 확보 위해 외부 방과후 전담업체 위탁 지양 ◦ 초·중·고 학교별 프로그램 차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기초학습, 독서지도 - 중학교: 독서논술, 예체능 - 고등학교: 수능 및 내신위주의 교과목 ◦ 운영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학기 중 방과 후, 방학 동안 ◦ 마을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차체의 주민센터, 도서관, 학습관 등
<p>■ 간담회 토론자 B: 초등학교 교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학교와 마을방과후학교의 연계성과 한계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 ◦ 마을 방과후 업무의 행정 능력이 복잡하고 많은 업무를 소화할 조직체계 구성이 어려움 ◦ 검증된 강사활용으로 강사의 질제고 ◦ 지자체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발 ◦ 마을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교과교육은 학교에서 비교과 활동은 마을에서 역할 분담 ◦ 마을방과후학교의 활동을 학생 봉사활동과의 연계 고려
<p>■ 간담회 토론자 C: 고등학교 교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상황에서 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프로그램은 입시중심이므로 강사의 질이 확보가 된 학교교사, 비교과는 마을자원 활용 - 자치구 내의 청소년센터 혹은 직업전문훈련기관에서 직업 체험 및 직업기술을 향상할 수 있는 기술지도 - 실제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하는 교육 운영
<p>■ 간담회 토론자 D: 방과후학교강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를 마을방과후에 대해 학부모 홍보를 실시 ◦ 해당 자치구에서 강사를 관리 감독 ◦ 마을방과후학교 일부 수업은 학교수업으로 인정 ◦ 마을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수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통해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 고려 ◦ 아동청소년기의 발달에 따른 프로그램 개설
<p>■ 간담회 토론자 E: 마을방과후학교 운영 및 강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방과후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받은 내용과 관련된 자원봉사 - 혁신교육축제나 마을 행사에 참여하여 부스 운영 - 마을의 음악회나 청소년문화제에서 공연 ◦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기관과의 네트워크가 필요

구분	주요의견
<p>■ 간담회 토론자 F: 중학교 교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 담당자의 마을방과후학교에 대한 이해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에서 업무담당자가 교체되는 경우 정책과 제도운영에 대한 업무 파악에 시간이 걸려 학교와의 연계 시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마을방과후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상 이유로 학생들의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 개설보다 기존의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개설되는 상황이 발생(특기적성 관련 프로그램) ◦ 마을결합형 방과후학교는 학생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공간을 넘어 학생들이 방과후 접근성이 좋은 주민센터, 마을회관 등의 공간에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함 ◦ 지자체와 학교의 특성을 살린 업무 분담과 연계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는 교육전문성을 지닌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을, 기관에서는 행정전문성을 지닌 실무담당자가 할 수 있는 일을 각각 고유한 영역으로 실행하는 것이 필요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가. 프로그램 기획: 학교 담당자(필요한 프로그램을 가장 잘 알고)와 기관 담당자(현실적인 실행 가능성을 잘 아는)가 협력하여 공동 기획함</p> <p>나. 학생 모집: 학교에서 진행(학생들과 바로 소통할 수 있으므로)</p> <p>다. 강사 모집: 학교와 담당자가 협의하여 진행함</p> <p>라. 이외의 행정적 절차(수강료 징수, 강사료 지급 등): 행정업무가 주요 업무인 기관이 전담</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학교 혹은 마을방과후학교를 통해 마을의 유용한 공간 지원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리실습 가능한 곳, 수영장, 승마장 등등 학교 시설로는 부족한 공간에 대한 지원이 필요

공통적으로 나온 의견을 정리해 보면 우선 프로그램 활성화와 관련하여 학교 급별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마을방과후학교는 마을의 자원을 활용하는 마을결합형 방과후학교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 때 초등학생들을 특기적성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이 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중·고등학생들의 경우는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입시 준비와 취업준비로 구분이 되는데, 마을방과후학교에서는 특히 취업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마을의 다양한 자원을 통해 직업체험을 하고 직업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

었다. 또한 교과목 프로그램은 교사가 전담하고, 비교과 강사는 마을의 자원을 활용하여 교과목 관련 프로그램의 강사수준을 제고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마을과 학교의 연계 및 결합이라는 차원에서 지자체와 학교의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며, 상호 더 잘 할 수 있는 분야의 업무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학교 관리자 및 교사들은 마을방과후를 통해 학교에서 지원해 주지 못하는 다양한 체험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마을과 지자체가 그러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2) 공청회

공청회는 마을방과후학교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 논의를 목적으로 2017년 11월 29일(16:00~17:30)에 숭실대학교에서 실시되었다. 내부 연구진(공청회 토론자 A), 초등학교 교장(공청회 토론자 B), 고등학교 교사(공청회 토론자 C), 학부모(공청회 토론자 D)가 토론자로 참가하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학부모, 고등학교 교사, 학부모들이 방청객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었다.

우선 전체적인 의견을 종합해보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같은 경우는 저학년과 고학년을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초등 저학년을 돌봄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초등 고학년을 돌봄과 함께 특기적성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함께 제공될 것을 제안하였다. 초등학교 방과후와 관련하여 또 다른 활성화방안은 마을 방과후와의 연계이다. 마을방과후를 통해 다양한 체험위주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인 강사문제에 대한 의견이 간담회와 마찬가지로 논의되었으며, 이들의 실력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학부모들 중에는 강사품질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 방과후학교에 참여시키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마을자원을 활용하는 부분에서 강사의 경우는 최근 지자체별 마을강사 양성과정을 통해 양성된 마을주민들을 교육청과 연계해 방과후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역량이 되는 학부모를 마을방과후학교에서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제시되었다. 그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실질적으로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입시를 지원해 줘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3-13〉 공청회 발표자 주요 의견

구분	주요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청회 발표자 A: 내부 연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과후학교의 활성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저학년 돌봄 중심, 초등고학년 프로그램 방안 마련 마을 자원과 함께하는 방과 후 교육 지자체별 마을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방과후학교 강사 질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청회 토론자 B: 초등학교 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는 마을방과후와 연계해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담당교사 업무부담 학교 자원은 제한적이며, 다양하지 못함 마을의 인력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의 유효인력의 발굴 및 활용 마을의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마을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강사품질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사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 방안이 필요함 마을 전문 인력들을 활용하여 직업교육과 진로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청회 토론자 C: 고등학교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율저조로 인한 악순환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율이 저조하면 수익자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수익자 비용부담이 증가하면 가격경쟁에서 뒤쳐져 학생 참여율이 저조해지는 악순환 발생 저소득학생의 프로그램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력수준이 떨어져 방과후학교 강좌에서 원활한 수업이 어려워 기초강좌를 들어야 하는데, 기초강좌 신청은 낙인효과가 발생 기초학력과 스포츠 활동, 연극 및 뮤지컬 공연관람 등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일반학생과 저소득층학생을 함께 참여시키고 있으며, 낙인효과 없이 참여율이 좋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청회 토론자 D: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과후학교에서 마을자원 활성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역량이 되는 학부모를 마을방과후학교에 활용 중학교는 진로탐색, 고등학교는 스터디 형식의 동아리 활동 초등학교 방과후는 되도록 체험활동 위주로 실시 지역의 근접성이 좋은 공간을 활용 학교수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프로그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청회 방청객 E: 고등학교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층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참여로 성적이 향상되지 않음. 학원에서 학생들이 혼자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과 같이 방과후학교에서도 입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방안 마련 서울과 같은 도시지역에서는 마을방과후가 입시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청회 방청객 F: 학부모 (고등학생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에서는 입시가 위주이기 때문에 방과후학교에서 취미활동을 들 수 없음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도 사교육을 받음. ◦ 방과후학교는 대학을 가기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청회 방청객 G: 학부모 (중학생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학교 외주업체의 검증되지 않은 강사에게 자녀 교육을 맡길 수 없음 ◦ 방과후학교는 학교 시험과 눈높이를 같이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함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에서는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공청회는 마을방과후학교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발표자에게 의견을 요청하였고, 방청객에게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 공청회에서 초등학교는 기존의 방과후학교가 마을방과후학교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마을방과후학교로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특기적성 프로그램, 체험학습프로그램, 협동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리고 중등과 고등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에서 입시를 지원해주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중등과 고등학교 단계에서 마을방과후학교는 직업탐색과 체험, 지역의 다양한 직업훈련기관 및 기업 등의 현장을 활용하여 학교에서 부족한 부분에 보완적 역할 수행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다. 질적 연구 분석결과

1) 마을방과후학교

가) 마을방과후학교의 운영상 주요 이슈

① 마을방과후학교 관점 및 개념 확립이 필요

마을방과후학교가 시범 운영되고 각 지자체마다 마을결합형 방과후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지만 마을방과후학교가 시행되고 있는 현장에서는 마을방과후학교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정책과 제도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담당자 및 관계자의 의견차이가 생기게 되고 마을방과후학교를 이용하는 학부모도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정

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마을방과후학교 운영에서 마을방과후학교에 대한 개념 정립과 관점 구축이 선결과제로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우리가 기왕에 기존의 방과 후 학교를 약간 새롭게 다시 디자인한다고 했을 때는 학교에 있던 걸 마을로 옮기는 방식,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방과 후 학교의 어떤 개념 자체를 좀 확대하고, 바람직한 어떤 아동청소년 성장에 필요한 교육적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

■ 심층면담 교육연구소 관계자 B

② 마을과 학교의 업무연계방안에 대한 문제

‘서울형혁신교육지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마을방과후학교는 대부분 지자체와 학교의 협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범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부학교의 운영형태는 학교에서 마을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운영형태에서는 과거 협력적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희박했던 마을과 학교가 어떻게 업무를 연계하고 역할을 배분할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새롭게 마을방과후학교 업무를 맡게 되는 지자체의 담당자는 업무가 가중되는 문제가 야기되고, 담당자 혼자 의사결정을 하며 책임을 지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학교와의 업무 연계성입니다. 어느 정도 연계를 가질 것인가. 또 어느 정도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마을에서 운영할 것인가? ...”

■ 간담회 토론자 B: 초등학교 교장

“자치구의 공무원들이 왜 그것을 부담스러워 하느냐 하면 이게 소위 말해서 학교가 하던 일을 지자체가 한 번 해보자고 해서 하는 거라서 업무량이 증가하잖아요. 그리고 그것 자체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업무를 가져오더라도 여기서 혼자 해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이걸 떼 가지고 여기를 왔을 때 문제가 많거든요.”

■ 심층면담 지자체 관계자 C

③ 강사 관련 문제

교육의 질은 교육자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마을방과후학교에서도 강사의 교수역량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마을방과후학교는 기존 방과후학교에 마을이 결합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마을의 자원을 방과후학교에 결합시키는 운영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 중 하나가 마을 주민 혹은 학부모를 강사로 활용하거나 마을에 위치한 업체를 통해 강사를 섭외하는 경우이다. 학부모들은 학교 선생님이 아닌 마을주민과 외부 업체를 통해 강사가 섭외되었을 경우 가르치는 실력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의 교육을 맡긴다는 것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마을주민 혹은 학부모 강사의 질적 수준에 대한 학교와 학부모의 우려가 발생한다.

“외주 업체가 들어오면 선생님들께서 일을 하시는 건 많이 줄어들 거예요. 확실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됐을 때 검증되지 않은 교사에게 어떤 교육을 받고 제대로 이 자리에 서 계시는지 모르는 방과 후 교사에게 저희 아이를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 공청회 방청객 G: 학부모(중등자녀)

학생들의 마을 중심 활동을 위해 운영하는 활동클럽의 주체가 마을과 연계된 사람들이기보다는 외부업체 사람들이고 이러한 경우는 진정한 마을방과후 형태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외부업체에서 강사를 고용하는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

마을주민으로 방과후학교에서 강사로 활동하여 마을방과후학교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이 강사가 실력이 좋은 경우 방과후학교 강사를 알선해주는 업체로 소속을 옮겨 자신이 거주하는 마을뿐 아니라 교육수요가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강의를 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기존 방과후학교와 마찬가지로 강사의 처우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더 나아가 진정한 마을결합형 방과후학교 취지에 적합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뭔가 배우고 싶은 애들은 활동, 축구 클럽 이런 다양한 클럽들이 개설되어야 되잖아요. 이 클럽들을 개설하는 주체가, 기존 방과 후는 누구냐 하면, 업자들이 예요. 그래서 재능 있는 사람들도 업자가 되어버렸어요. 큰 방과후 업체에 소속된 고용인인 경우도 있고, 본인이 보따리 들고 다니면서 애들에게 가르치고, 강사료 받는... 그러다 보니까 마을 결합형이 전혀 안 되죠.”

■ 심층면담 지자체 관계자 C

④ 기존 방과후학교의 문제점 답습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체계를 수립하는 첫 단계로 마을방과후학교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는 차원에서 마을방과후학교는 기존 방과후학교와는 기본적으로 패러다임을 달리하고 있다. 하지만 시범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관계자는 마을방과후학교에서 기존 방과후학교 운영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마을방과후학교가 기존과 다른 정책이라고는 하나 학교, 지자체, 마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연계되어 있어, 제도를 시행하는 주체들이 모두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기존의 제도 운영상의 관행이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로 인해 학교개방에 대한 문제와 강사처우에서 유사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저희가 3년 동안 지자체에서 해보니까 여전히 똑같아요. 학교 벽은 여전히 높고 학교 문은 개방되지 않고 또 마을에 들어가는 강사분들의 처우는 여전히 똑같고...”

■ 간담회 방청객 I: 지자체 관계자

⑤ 마을방과후학교의 지속성의 문제

마을방과후학교의 본연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마을방과후학교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 인력의 투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문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확보되어야만 전문 인력 고용을 통한 안정적인 제도 정착이 실현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마을방과후학교에 대한 지속적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정책과 제도를 깊이 이해하는 전문 인력이 투입되어야 마을방과후학교에 대한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마을과 학교의 연계를 지원하며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지속성을 위해 인건비

를 위한 예산확보는 마을방과후학교 사업에서 중요한 이슈로 논의되고 있다.

“학교 입장에서 보면 인력이 학교로 들어오는 형태기 때문에. 이게 고민이 뭐냐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구조인 거예요.”

■ 관계자협의회 교육청 관계자 A

“그래서 확장을 많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초기에 (마을방과후학교) 세팅할 때 먼저 기획을 했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인건비는 감내해야 될 부분이예요.”

■ 관계자협의회 지자체 관계자 C

⑥ 마을운영의 공공성 확보 시급성

마을방과후학교 운영에서 공공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마을방과후학교가 학교 밖에서 실시될 때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와 직결되는 부분이다. 학교는 공적인 기관이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지만 마을방과후학교는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부분은 마을방과후학교의 관계자 및 학부모에게 마을방과후학교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마을방과후학교의 공공성을 확립하여 학교와 같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학생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을에서 한다고 했을 때 그 공공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안함이 있고, 또 공간 자체가 마을방과후가 될 경우 학교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 바깥에 나가는 경우도 많은데 안전사고 문제를, 학교가 방과후를 할 때는 안전공제회나 이런 적용을 받는데 이런 부분, 사고 위험도 높고, 사고가 났을 때 대처 방식도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나 이런 건 되게 현실적으로 존재하더라고요.”

■ 심층면담 교육연구소 관계자 B

나) 마을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요구

① 각 급 학교별 프로그램 요구의 상이함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단계에 따라 요구가 상이하기 때문에 마을방과후학교에서도 각 급 학교에 따라 마을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다르게 나타난다. 주로 초등학교는 마을방과후학교에서 마을중심의 다양한 체험활동에 대한 요구가 있으며, 돌봄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초등 같은 경우는 돌봄 기능을 같이 하셔서 사실 돌봄의 기능이라는 것이 학부모들의 수요나 요구가 되게 높으신 부분이잖아요.”

■ 관계자협의회 교육청 관계자 A

초등학교의 경우는 학교선생님들이 방과후학교 운영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이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중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의 비율이 초등학교에 비해 1/3 수준이어서 담당교사가 가까스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중학교에서는 동아리 중심 활동에 대한 요구가 있다.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동아리 활동의 형태로 마을방과후학교 활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학교 관리자들의 의견이 있다.

“초등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하는 것 자체를 선생님들이 부담스러워 하고, 일이라는 것보다는 그러면서 마을과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런 강력한 요구가 있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방과후학교 자체가 전반적으로 초등에 비해 3분의 1도 안 되는 수치로 운영되다 보니까 방과후 부장님이 그냥 운영하기는 하는데 중학교의 고민은 동아리가 잘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이 방과후학교에게 그런 요구가 많아요.”

■ 관계자협의회 지자체 관계자 D

고등학교에서는 현실적으로 마을방과후학교에 대한 논의가 잘 되고 있지 않다. 고등학교에서 오랜 시간 방과후학교를 담당하고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담당교사 A는 현실적으로 마을방과후학교에 대한 논의 이전에 입시문제라는 우리나라의 교육적 현실을 무시할 수 없으며, 마을방과후학교가 고등학교에서 정착을 하려면 현실에 기반한 교육적 요구를 반영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일단 고등학교 학부모는 솔직하게 입시가 항상 우선순위라 다른 것을 하면 더 싫어하시고, 거꾸로 더 싫어하세요.”

▪ 심층면담 고등학교 방과후학교 담당 교사 A

②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 요구 반영의 어려움

마을방과후학교는 초등학생 뿐 아니라 중·고등학생들도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중·고등학교는 내신과 입시위주의 교육이 중심이 되고 있어 마을방과후학교에서는 이들의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기획과 제안이 어려운 실정이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수준에 적합한 마을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 자체가 어렵다.

“중·고등학교는, 초등학교는 다 하는 건데, 고등학교 정도 되면 거기에 맞는 수준에, 고등학교에 맞는 수준에 마을방과가 만들어지기 어렵죠.

▪ 심층면담 고등학교 방과후학교 담당 교사 A

마을방과후학교의 취지에 적합한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설되면 중·고등학생들의 참여율은 저조하다. 프로그램도 3-4개 정도 개설되고, 개설된 프로그램에도 3-4명 혹은 7-8명 정도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현행 진행하는 게 세 개 있습니다. 탁구, 매주 토요일 14시에서 16시 탁구 하나하고요. 에너지 프론티어, 이거는 조금 되는데 이게 제일 많은 게 7명입니다. 탁구는 2-3명이 와요. 하나 더 있는 프로그램이 공관 같은 그 하나. 공부를 위한 이 3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모두 저희 학교 학생입니다. 그 안에 있는 중학교 제가 ...그런데 최고가 7명이고 3, 4명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간담회 토론자 F: 중학교 교장

적은 인원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하다보니 수익자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가 발생하고, 이는 다시 저조한 참여율의 원인이 되고 있다.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않는 악순환구조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원수가 제 기억에는 3-4명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거를 개설을 해 주냐 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거든요. 수요자들도 학교로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인니까. 물론 구청에서 지원을 하기는 하겠지만 비용이 굉장히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 관계자협의회 지자체 관계자 D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저조한 참여율은 대부분의 학부모에게 자녀의 입시가 교육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마을방과후학교에 자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꺼리는 것에 기인한다. 학부모들의 교육적 요구가 사교육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아직도 방과후에 마을로 나가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세요, 마을방과후에 대한 의미를 기존에 본인들의 사교육에 대한 욕심과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런 공공성을 저희가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숙제 아닌 숙제로 남아있고요.

■ 관계자협의회 지자체 관계자 B

다) 마을방과후학교 제도의 개선 방안

① 사회기반 구축 및 교육생태계 조성의 선결문제

제도개선을 위한 선결과제로 지나친 경쟁적 사회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시스템구축과 학생들의 삶터인 마을에서 교육생태계가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회적인 제도개선이 아닌,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경쟁구도의 사회체제 개편, 마을중심 직업과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고등학교에서 만약에 마을방과후를 하면, 일단 사회가 지나친 경쟁이 아니어야 되고, 사회적 지원시스템이 마련이 돼 있으면서, 지역에서 지역사회 기반으로 한 어떤 진로 관련 방과후가 있으면 좋겠죠.

■ 심층면담 고등학교 방과후학교 담당 교사 A

또한 마을방과후학교에서의 활동이 프로그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야 하며, 학습과 성장을 위한 생태계가 조성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자전거 타고 싶으면 애들하고, 친구들과 행주산성 갔다 오는 것도 방과 후 활동이고, 또 동네 사이클 동아리 아저씨가 해 주면 더 좋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애들이 세대 간도 만나고 해서 완전히 학교라는 것은 같은 나이 또래만 만나는 인위적이고도, 제한적 공간에 있던 아이들이 어른도 만나는 거예요, 학년 구분 없이. 그걸 통해서 아주 다른 새로운 학습이, 성장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는데...

■ 심층면담 지자체 관계자 C

② 전담인력채용 및 팀신설을 통한 효율적 운영지원 필요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제도가 원활하게 안착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 교육청, 지자체, 마을 등의 연계기관들이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유사한 업무는 통합하며, 실제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100개가 넘습니다. 4개 학교가... 그러면 4개 학교에 100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8명의 기존의 학교 선생님이 했다면 이것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이냐? 굳이 똑같은 업무를 똑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방향에서 마을학교나 방과후학교나 이런 것을 통합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체제로서는 결국은 지금 지자체가 맡아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닌가 생각합니다.

■ 관계자협의회 지자체 관계자 D

교육청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어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업무 부서의 통합이 필요하며, 담당인력의 확보가 제도개선 방안에서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소속 학교의 교사가 담당하기보다는 지자체에서 통합·관리할 수 있는 전담인력 고용을 통한 효율적 구조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사실은 이게 복지팀이나 협력팀으로 있는 게 아니라 아예 팀이 하나였으면 복지랑 협력이 더 연계가 됐을 텐데 오히려 장학사님들은 보시면서 복지사업하는 게 우리랑 다 연계돼야 되는데 이게 팀 간에 2개로 나뉘어있으면 눈치 보면서 연계 못하고 이런 답답함이 있어요. 인력충원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관계자협의회 교육청 관계자 A

구체적인 효율화 방안으로는 교육청에 마을방과후 전담 부서의 구축 및 시 차원에서 전담하는 센터 운영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지자체에서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필요성도 논의되고 있다. 교육청에서도 지자체의 담당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부서 및 전담 팀을 형성하여 사업지원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소속교사와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경감 차원이 아닌 효율적 운영과 체제 수립을 위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아까 센터 이야기 나왔잖아요. 시 차원에서 움직여서 지역의 권역별로 센터를 하나씩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애들이 학교 끝나면 그쪽으로 가서 배울 애들은 배우고, 학원 갈 애들은 학원가고, 집에서 쉬고 싶은 애들은 쉬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 관계자협의회 지자체 관계자 H

③ 초등학교 단계의 활성화가 급선무

마을방과후학교는 기존의 학교를 혁신하자는 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사교육문제인데 마을방과후학교를 통해 단시간에 사교육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마을방과후가 제도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중·고등학교보다는 우선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집중해야 한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마을방과후학교 사업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제시되고 있다.

“사실 초등 같은 경우는 사교육하고도 조금 약간 거리가 있어서 오히려 초등을 집중 공략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고민들이 있고요. 결과적으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 중학교는 동아리 형태 지원이 일단 거의 그렇게 정리가 됐죠.”

■ 관계자협의회 지자체 관계자 C

라) 마을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

① 학부모의 인식 변화 및 기관의 철학 확립 필요

마을방과후학교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이전에 선결과제로서 학부모의 인식을 변화시키려는 노력과 기관이 마을방과후학교에 대한 철학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 관계자협의회에서 논의되었다. 마을방과후학교의 제도와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아도 수요자인 학부모에게 제대로 인식을 시키지 못한다면 마을방과후학교가 지역에서 제대로 착근하기 힘들다.

마을방과후를 하는 목적 중의 하나는 학교의 업무경감 차원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정규교육이 끝난 이후에 놀 권리와 쉼 권리를 주자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권리를 박탈하는 핵심 주요 멤버 중의 하나가 학부모란 말이에요. 학부모들에 대한 생각의 변화, 고민 이것도 함께 지금 같이 가야 되는 고민 중의 하나여서...

▪ 관계자협의회 교육청 관계자 A

그리고 기관에서도 마을결합형 학교가 활성화되고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들이 마을방과후학교의 기본철학을 알고 이에 동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을 결합형 학교가 좀 더 활성화되려고 한다면 철학적인 것부터 기관적인 거는 잘 다져야 되는 거는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실제 필요한 땅은 발 디딜 만큼의 거리입니다. 그렇지만 세상길을 걸어가는데 발 디딜 만큼 땅만 필요한 게 아니죠. 다음 길이 절벽이면 못 걸어가잖아요. 마을 결합형 학교도 결국은 어떤 차원, 어떤 입장에서 이걸 접근하면 굉장히 도움 될 것 같습니다.

▪ 간담회 토론자 F: 중학교 교장

② 참가학생의 실제적인 요구를 반영한 활동중심의 프로그램

한 지자체 관계자는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프로그램의 수요자인 학생들의 요구에 기반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제안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기존 방과후학교는 학생들의 실제 요구보다 학부모의 의견 반영 및 강사섭외가 용이한 과

목 등이 개설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지자체 관계자는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활동중심의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지향해야 될 것은 학교가 끝나면 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된다. 그걸 애프터는 액티비티라고, 활동..., 방과후 활동이죠. 대개는 클럽 활동 같은 게 있잖아요. 서클..., 대학생은 동아리처럼 자기들이 자유롭게 하는 거죠. 놀러갈 수도 있고, 또는 스포츠클럽을 할 수도 있고, 음악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그룹 스터디 할 수도 있고, 알아서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사실, 저는 굉장히 이걸 주장하고 있고, 교육청도 그렇고, 실장님도 그렇고 이런 쪽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는 중이에요.”

■ 심층면담 지자체 관계자 A

마을방과후학교는 마을과 협력하여 마을에서 학생들이 실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요구에 적합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기존의 교육이 마을방과후 활동과 연계가 된다면 마을방과후 활동에 지속성이 생기게 되고, 진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간담회 토론자는 마을방과후학교 활동이 학교교육과 연계되면서 입시에도 좋은 결과를 만든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다.

“중학교와 연계해 가지고 마을방과후학교를 운영했었어요. 이 친구들이 매주 1회 청소년 영어 스토리텔러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영어 그림책과 영어 동화책들을 읽으면서, 매주 토요일에 와서 유아, 유치원 5세에서 7세 정도의 아이들에게 영어 그림책과 동화책을 읽어주는 그런 자원봉사를 같이 했거든요.

저희가 전략적으로 뭔가를 구상한 건 아니었는데 그 친구들이 영어를 그렇게 해서 굉장히 흥미를 가지게 되고 잘하게 되고 또 아이를 가르치면서 실력이 향상되면서 그 반에서 한 70%의 학생들이 외고로 진학을 했어요.”

■ 간담회 토론자 E: 마을방과후학교 운영 및 강사

더불어 중·고등학생들은 마을중심 활동에 진로 및 직업교육에 대한 개념을 접목하여 취업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수험생들의 경우 취업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아르바이트 등의 단발성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데,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을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현실에 기반한 의견도 있었다.

“많은 학생들은 그러면 수험생을 했지만 다른 진로의 설계가 없기 때문에 수험생에 합류는 하지만 대부분 진학을 졸업 후의 진학을 못하고 아르바이트라든가 재수한다거나 혹은 이런 소속이 없는 이런 경우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라면 진학이 아니라 진로와 관련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한다면 취업과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을 마을에서 개설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간담회 토론자 C: 고등학교 교감

③ 지역자원의 활용

마을방과후학교의 마을과의 연계는 행·재정부분의 경우 마을과의 연계 차원에서 마을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을과 지속적인 연계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경우 지역의 학부모 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학부모들 중 교육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우수한 자들을 마을방과후에 투입시키는 것이 유용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자녀양육과 함께 교육에 관심이 있고, 교육에 열의가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므로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제가 학부모 입장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역량이 마을 강사라는 그런 어떤 마을에서의 어떤 활동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학부모 연수도 받으시고, 진로 코칭단, 상담 관련해서 교육 많이 받으시잖아요, 교육청 통해서. 그런 역량들을 좀 더 활용을 해 주는 것이 저는 지역자원 활용이라고 생각합니다

■ 공청회 토론자 D: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장

마을방과후학교의 마을과의 연계는 마을의 인적 자원 활용뿐 아니라 공간사용에 대한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교육에서 환경과 시설이 갖추어진 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며, 학교 내 부족한 학습공간을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간이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육하는 활동 교과 시간 이외에 자기들이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저희 자녀가 다니는 중학교에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리하시는 분도 없고요. 학교 수업 끝나면 나가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공간들을 많이 활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공청회 토론자 D: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장

④ 학교중심 지역사회 참여 형태의 적절함

마을방과후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은 마을에서 자녀의 교육을 전담하는 부분에 아직까지 신뢰가 형성되지 못하였다. 신뢰감이 부족하다는 것은 강사의 품질 및 안전에 대한 문제로 프로그램에 자녀를 참여시키는데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의 활성화 초기단계에는 학교가 중심이 되는 마을방과후학교의 운영이 필요하다.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교에서 진행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심적 안정감이 생기므로) 학교에 중심을 두고 지역사회는 제반시설이나 행·재정적 지원, 강사지원 등 하는 관계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심층면담 학부모 C (중등자녀)

2) 방과후학교

가) 방과후학교 운영상의 문제

① 강사문제

방과후학교에서 강사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중·고등학교는 지금 대부분의 학교가 소속교사를 방과후학교 교사로 채용하고 있으며, 교사의 역량과는 상관 없이 본 교과에 대한 연구 및 교수개발에 대한 시간부족으로 본 수업의 질이 저하된다. 그리고 방과후학교 업무담당 교사는 행정업무가 불가피하기에 업무가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고등학교에서는 방과후 강사가 91.6% 정도가 그 학교 소속의 교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방과후 수업이 활성화되는 것이 필요하지만 사실 본질은 교과의 본 수업입니다. 교사가 방과후 수업을 많은 에너지와 많은 노력을 해야 할 때, 본 수업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교과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일인데 이렇게 방과후 수업을 많이 하는 것이 과연 유익하기만 할까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업무의 과중 문제입니다. 방과후 업무 담당자들은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수업료를 계산하고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출석관리를 하고 마지막에 수업이 다 종료되었을 때 방과후 강사의 강사료까지 지급하는 업무는 물론 재정적인 문제들은 행정실에서 직접 담당하지만 그 실제로 기획하고 액수까지 산정해내는 것은 방과후 담당 업무 교사의 몫입니다.” ▪ 간담회 토론자 C: 고등학교 교감

강사활용에 대한 문제는 소속 학교 교사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외부 업체를 통해 강사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업체가 고용한 낮은 강사로 등 강사의 처우가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 강사의 질이 떨어진다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방과후학교가 운영되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문제이다.

“보통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1시간에 강사비를 제가 근무했을 때 4만원 계산해서 주면 위탁업체에서는 실제 강사에게 12,000원 정도밖에 안 준답니다. 깜짝 놀랐었는데 그래서 그 후로부터 위탁을 안 하는데, 그러한 강사 문제도 아마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간담회 토론자 A: 고등학교 교사

외부업체에 고용되어 처우가 열악한 강사문제뿐 아니라 외부의 스타강사를 직접적으로 고용한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학교에서 지급하는 비용이 기존 강사활동 후 받는 비용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지속성이 떨어지고, 소속교사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속교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강사비가 높게 책정될수록 수익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비용 지출이 불가피하게 상승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일단 잘 나가는 학원 강사들, 흔히 말하는 스타강사가 와서 싸게 한다, 이게 안 돼요. 오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시도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리고 아직도 아마 자사고들은 하지 않을까요? 아직도 할 거예요. 자사고나 지방기숙형 독립학교들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 심층면담 고등학교 방과후학교 담당 교사 A

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비활성화

중·고등학교에서는 최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이 많이 줄면서 실제 운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방과후학교가 운영된다하더라도 무늬만 방과후일뿐 실체는 과거의 보충수업으로 볼 수 있다.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방과후 참여 개설 프로그램 수도 그렇고, 참여자 수도 이제 강제적으로 안 되니까 많이 줄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방과후가 이름만 방과후이고 옛날 보충수업이기 때문에 거의 무늬만 방과후예요.”

■ 심층면담 교육연구소 관계자 B

또한 입시위주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는 기초학력이 없는 학생들은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어 심화학습 중심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참여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중급수준 정도의 강좌에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기초학력 학생들은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진행되는 강좌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주로 입시 관련된 거, 교과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수준별로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대부분 기초학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중급 강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 공청회 토론자 C: 고등학교 교사

그리고 학교에 운영방침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상황도 발생하여 현실적으로 비 활성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8교시에 방과후 수업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습을 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게 현장에서 전해드리는 직접적인 얘기입니다. 저희 학교는 7교시가 끝나면 담임선생님들이 다 종례를 해버리십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못 가요. 왜냐하면 8교시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이죠. 8교시를 학생들이 숙된 말로 째고 집에 가려고 하면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자율학습을 해서 자습을 1시간 동안 버티고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방과후를 들어야 됩니다.”

■ 심층면담 고등학교 방과후학교 담당 교사 B

③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정책

방과후학교에 관하여 학부모들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교육정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입시정책도 자주 바뀌는 상황에 방과후학교가 자주 변화하는 교육정책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만이 있다. 왜 학원에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 찾아다니는지 그 원인을 중등자녀를 둔 한 학부모가 제시하고 있다.

“자주 바뀌는 입시정책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은 매년 혼선과 혼란을 빚고 있는데, 정작 학교와 방과후학교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고답적인 정책으로 선행금지, 특기적성 등 현실을 외면하는 방과후학교 운영방침을 고수하고 있기에 더욱 더 공교육이나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난하며 학부모들이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전문학원가를 찾고 매달리고, 아이들도 먼 거리의 학원을 찾아다니면서 시간과 에너지 등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있음.”

■ 심층면담 학부모 A (중등자녀)

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① 수요자가 직접 프로그램 제안에 참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설할 때 기존에는 담당교사 중심으로 개설되었다. 그러나 최근 마을방과후학교의 우수사례가 공유되고 있어, 다양한 우수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학생 및 학부모가 직접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학생도 참여할 수 있고, 학부모도 참여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비슷한 형태로 D지자체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초·중·고로 진행하고 있는 ‘개관오분전 프로젝트’도 아이들이 기획하고 아이들이 주도하는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방과후도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요.”

■ 심층면담 고등학교 방과후학교 담당 교사 A

② 현실적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제공

일부 교사들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마을방과후학교와 마찬가지로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초등학교는 다양한 체험 및 활동 그리고 돌봄을 실시하고, 중·고등학생은 입시위주의 교과목 보충에 대한 프로그램 개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프로그램 문제도 너무 개입에 지금 중심이 맞춰져서 국·영·수 위주로 하게 된다면 아마 조금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고등학생을 타겟으로 한다면 그게 나올 것 같은데 아마 초·중·고생이면 너무 국·영·수에 치중하게 되면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간담회 토론자 A: 고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은 주로 1, 2학년의 저학년 학생들이다.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부부 아이를 돌봐줄 곳이 필요한 부모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는 저렴한 가격에 학교에 학생을 맡긴다는 인식이 학부모들에게 퍼져 있다.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의 핵심은 1, 2학년이에요. 애들을 맡길 데가 없고, 어디 학원에 보내자니 비싸기도 하고, 애들이 걸어가자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수업 끝나고 이거 했다가 이렇게 해서 어디 갔다가 만나,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애를 공부를 시키겠다는 개념보다도 싼 값에 아이들을 학교에서 돌본다는 이런 개념이 커요. 그런 개념 속에 방과후학교 개념이 좀 있어요.”

■ 심층면담 지자체 관계자 C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한국의 교육적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학교에서 방과후학교는 저렴한 가격에 사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값비싼 학원의 역할을 해주기를 실질적으로 바라고 있음을 공청회의 방청객의 의견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본연의 목적과 취지가 있음에도 선행학습을 할 수 없는 정책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저희 애를 국어를 가르칠까, 수학을 가르칠까, 영어를 가르칠까 하지, 다른 사교육에도 돈을 쏟아 붓지만 보충을 받고 방과후를 시킨 다음에 다시 또 사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라에서 사교육 안 된다. 선행학습 안 된다. 그러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 공청회 방청객 F: 학부모(고등자녀)

방과후학교를 참여하는 경우의 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에서 과목을 담당하고 있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문제를 제출하는 교사가 강사로 교육을 하는 경우에

부모들은 방과후에 참여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내신에 도움을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작용되고 있다.

“학교의 교사가 운영을 하면, 학교 공부를 그대로 보충하는 형태라 내신준비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됨.”

■ 심층면담 학부모 B (중등자녀)

다) 방과후학교 제도의 개선 방안

① 강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방과후학교 운영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강사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대부분 모든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특히 방과후학교는 낮은 임금으로 고용되는 강사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수업을 할 수 있는 강사가 유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바로 수익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혜택으로 직결되며 이것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방과후학교에 대한 불만과 비참여로 연결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강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기존 방과후학교의 교육 이미지가 싸고 학생관리 안되고, 수업의 질이 낮다는 것이다. 강사의 질을 높이고, 이들의 책임수준을 높이기 위해 강사에게 어느 정도 안정적 직업의 기회를 제공하던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던지, 안정적인 전용 교실을 제공하던지 해서 강사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공청회 토론자 C: 고등학교 교사

② 학부모와 학생의 요구 반영에 대한 제도개선의 시급함

방과후학교는 수익자부담이 원칙이나 실제 교육비를 부담하는 학부모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선행학습 금지 혹은 교과목의 수를 제한하는 정책은 실제 학부모의 요구와 괴리가 있는 정책으로 오히려 학생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제한한다고 받아들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 학부모는 학부모와 학생의 요구를 실제적으로

반영한 프로그램 개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학부모와 학생의 요구에 최대한 대응해야 활성화될 수 있음. 무조건 선행을 금지한다거나, 교과수업 수를 제한하는 것은 수요자 중심 요구에 맞지 않은 것으로 방과후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제한하고 있는 불필요한 정책으로 보임.”

■ 심층면담 학부모 B (중등자녀)

그리고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입시준비를 하는 자녀들이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략적인 내신준비와 입시준비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방과후학교의 프로그램은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입시교육현실에서 현실적으로 전략적인 내신 준비와 입시 준비 이외의 목적으로 방과후 수업을 듣는 것은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으로 생각함.”

■ 심층면담 학부모 B (중등자녀)

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

① 학교급별로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마을결합형, 마을방과후학교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초등학생들의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창의적 사고를 지원하고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다양한 방과 후 시간, 여가 시간을 활용한 창의적인 그런 사고 활동도 할 수 있고, 활동적인 일도 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 마을 방과 후와 연계를 해서 하면 어떨까...

■ 공청회 토론자 B: 초등학교 교장

마을방과후학교와 마찬가지로 방과후학교에서도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진학과 취업을 지원하고 연계하는 활성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고등학생들이 직면한 문제인 진학과 취업을 실제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방과후학교는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는 의

전이다. 그리고 진학과 취업을 실제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강사가 책무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활성화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고등학교 방과후학교에서는 일반적인 취미나 교양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학생의 진로와 진학과 관련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국·영·수 위주 또는 탐구과목 위주의 교과수업을 보완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가 수업을 운영하는 강사가 진로진학과 관련되는 것이니 만큼 전문성과 책무성이 확실하게 담보가 되어야 합니다.

▪ 간담회 토론자 C: 고등학교 교감

② 학부모의 인식전환을 위한 제도적 통로 마련

방과후학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부모가 방과후학교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간담회 방청객으로 참석한 학부모로부터 나오고 있다. 방과후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학부모의 인식변화가 학생들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며 학부모 인식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어떤 분은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직접 아이들 홍보를 해가면서, 그러면 아이들 스스로 따라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 초점도 있지만 방과후를 하기 위해서는 마을 주민, 즉, 어머님들, 학교 학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지 무관심으로 방관해서 학교에서 해 달라, 교육청에서 해 달라, 누구한테 해 달라 이걸 말이 안 되는 거죠. 주체적으로 하셔야만 거기에 대한 보상이 아이들한테 따라 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간담회 방청객 G: 학부모(초등자녀)

5 실태 및 질적 연구 분석 결과

가. 마을방과후학교 운영상 문제점

1) 개념에 대한 합의 및 인식공유

마을방과후학교에 대한 개념 정립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마을방과후학교에 대한 기존의 각종 마을단위 사업과 방과후학교에 대한 개념이 뒤섞여 마을방과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마을방과후학교를 받아들이는 인식수준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실제 프로그램 참여에 영향을 받고 있는 학부모의 경우는 마을방과후학교에 대한 인식이 기존의 방과후학교에 대한 인식과 유사하며 본래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학교교사 및 지자체담당자들도 공교육정상화와 학생들에게 방과후에 마을중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본래의 취지보다 마을결합형 방과후학교에 대한 인식이 강해 마을의 강사 및 교육 자원과 결합되는 것이 마을방과후학교라는 단선적인 인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을방과후학교가 지속성을 갖고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념정립과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표 3-14〉 마을방과후학교에 대한 인식

구분	마을방과후학교에 대한 인식	대비되는 마을방과후학교에 대한 인식
학교교사 및 지자체 관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방과후학교에 마을 주민 강사 활용 - 기존 방과후학교에 마을의 기관 및 시설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중심의 활동 지원 체계 수립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학교와 마을방과후학교에 대한 명확한 인식 차이 없음 	-

2) 운영체계 구축

마을방과후학교 운영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마을방과후학교가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현재 지자체별로 상황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으나, 한 두 사람

의 사업의 적극성을 띄는 스타플레이어에 의해 사업의 성패가 결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마을방과후학교에 대한 지속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며, 시스템 기반이 아닌 운영인력 기반의 사업이 되어 운영인력의 관심과 업무집중도에 의해 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실무진들과 현장 담당 교사들에 의해 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담부서 신설, 체계적인 추진체계 구축, 지속적인 사업비 확보 등이 선결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마을방과후학교의 전담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 확보는 필수적인 사항이며, 전담 인력의 고용안정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3)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마을과 학교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애로사항이 많다. 마을방과후학교 운영방식에 관하여 학교와 지역 연계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있었으나, 여전히 학교의 담은 공고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마을방과후학교 사업은 다양한 주체가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며 상호간 협력을 통해 운영되는 것이 기본 취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 협력, 연계라는 가치로 인해 운영주체로서의 역할과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생겨난다. 공동체의 가치아래 거버넌스를 통한 운영방식의 취지를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며 협치, 협력의 구성에서도 분명한 주체 선정과 그에 따른 역할 규명이 필요하다.

일부 마을방과후학교 관계자들은 학교의 폐쇄적 태도와 교사들의 무관심을 언급하고 있다. 한편 교사들은 마을방과후 자원의 질적 수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다. 마을 자원에 대한 교사들의 불신이 이러한 관계를 형성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마을과 학교가 함께 방과후학교를 진행하더라도 학교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책임, 관리주체는 학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학교와 마을 관계자들의 사업에 대한 업무에 대한 책임이 다를 수 있다.

4) 법적·제도적 시스템 정비

마을방과후학교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시스템 등을 정비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방과후교육에 대한 법령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마을방과후 사업을 위해선 기존 학교방과후에서 지원되는 세액공제, 바우처제도, 안전공제 등의 행정적 업무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마련과 함께 나아가 상위법과 조례 등의 마련이 요청된다.

나. 마을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1) 각 학교급별 특성을 적용한 프로그램 개발

마을방과후학교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각 급 학교별 요구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에 기반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기존 방과후학교와 마찬가지로 초 등에서는 다양한 특기적성을 함양하고 체험중심의 활동프로그램, 그리고 돌봄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중·고등에서는 진로 및 직업체험, 그리고 입시를 위한 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마을방과후학교에 대한 현장의 인식이 부족한 관계로 방과후학교에서의 요구사항이 마을방과후학교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나거나, 마을방과후학교의 취지를 이해하고 있어도 당장 중·고등학생들의 경우는 입시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교과목에 대한 교육적 요구가 있었다. 마을방과후학교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입시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 준비 및 지원에 대한 교육적 요구가 쉽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중·고등학교에서 이러한 교육적 요구와 마을방과후학교에 대한 요구를 적절한 수준에서 반영한 프로그램이 기획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현실적 요구를 반영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참여율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어 프로그램이 기획단계에서 머물고 개설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마을방과후학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때까지 현실적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기획을 고려할 수 있다.

〈표 3-15〉 각 급 학교별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구분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초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저학년 경우 돌봄 프로그램 - 마을중심 체험 - 마을중심 다양한 활동 - 마을의 자원 활용을 통한 창의적 사고 배양 프로그램
중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과정과 연계·보완되는 과정 - 동아리 구성 및 지원을 통한 자기주도적 활동 프로그램 - 마을중심 활동과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
고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시·진학 관련 과목 - 주요 교과목 보충 및 연계학습 - 내신준비를 위한 학습 ▪ 진로 및 취업준비과목 - 마을 자원을 활용한 직업체험 - 마을 자원을 활용한 직업기술 습득 및 훈련

2) 마을자원과 학교의 연계 지원체계 구축

마을과 학교의 연계에서 직접적인 주체가 되는 학교의 관리자 및 교사들은 마을방과후의 취지, 목적 등은 이미 혁신교육 등을 통하여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마을방과후학교에서 실질적인 사업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있다. 기존의 마을방과후학교 기본방향을 살펴보더라도 지역사회 자원이 학교로 들어오는 것인지, 학교 밖에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마을방과후교육에 대한 개념 정의와 구현되는 상을 통해 마을과 학교의 연계를 살펴보면 많은 교사와 학부모들, 마을교육 관계자들은 지역자원 활용측면에서 마을교육공동체와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역사회 자원이 학교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관하여도 학교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학생들의 안전 문제 등을 학교가 보장하므로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긍정적 반응이 있다. 그러나 학교 교사들의 업무과중, 지역사회 자원과의 원활하고 자유로운 연계가 어려울 수 있다.

마을방과후학교에 대해 교사들은 지역 연계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먼저 지역자원이나 인프라 부족, 지역자원과 학교를 연계하는 체계의 부재, 지역 교육자원에 대한 정보부족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무관심과 비협조 등이다.

다음으로 지역 내 교육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자원의 부족 등의 문제이다. 지역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이 교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 목록화되어야 하고, 전담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마을자원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업무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3) 우수한 강사의 확보 및 활용

마을방과후학교의 강사의 질적 수준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방과후학교와 마찬가지로 마을방과후학교에서도 강사의 질적 수준에 대한 문제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교사에 대한 기준이 학교교사나 학원강사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마을에서 활동하는 주민강사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 교육이 실시될 경우 학교관리자들은 질적으로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기에 강사역량을 검증하고 싶어 한다. 이러한 부분은 기존의 방과후학교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유사한 형태로 강사처우 및 업체 활용 등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 기존의 강사문제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을자원을 대상으로 한 강사양성 및 강사의 역량강화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마을방과후학교 운영자가 직접 강사를 면접하여 고용하거나, 마을의 강사 협동조합을 통해 질적으로 우수한 강사풀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4) 학부모 인식 개선

학부모들은 무엇보다도 마을방과후학교와 기존 방과후학교의 차이를 체감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일선 관계자들도 아직 학부모들의 인식은 지역연계의 필요성, 취지 등을 공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마을방과후학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부모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마을과 학교가 상호 보완하는 관계를 형성하고 자원 활용 연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학생들이 마을을 중심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지원과 함께 인식변화 그리고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제Ⅳ장

국내·외 마을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분석

IV. 국·내외 마을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분석

1. 다른 시·도 교육청별 마을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분석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마을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대부분 혁신교육지구 사업 중 하나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전국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중심으로 마을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서울특별시 마을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가. 다른 시·도 운영 현황

전국의 혁신교육지구사업은 2010년 경기에서 시작하여 전북, 서울 등을 거쳐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의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경기의 ‘혁신교육지구’, 전남의 ‘무지개 학교교육지구’ 등 명칭은 다르지만 광주·전남·인천·세종에서도 시행중이며, 각 지역마다 고유성을 기반으로 한 정책을 통해 서로 다른 운영을 하고 있다(최창의, 2016).

전국의 혁신교육지구사업 내용은 점차 마을교육공동체 형태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혁신교육지구사업 내용 가운데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사업내용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1〉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내용

지역	지구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사업내용
경기	광명	광명교육협력지원센터, 꿈의 학교
	구리	미래교육협력지원센터, 꿈의 학교
	시흥	행복교육지원센터, 마을과 학교 상생 프로젝트(꿈의 학교 등)
	안양	꿈의 학교
	오산	학교축제와 마을축제 연계지원
	의정부	꿈이룸 배움터,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화성	교육협력지원센터, 꿈의 학교
	안산	교육협력센터, 마을교육공동체(꿈의 학교 등) 추진
	부천	교육협력지원협의체 운영, 꿈의 학교 운영, 교육자원봉사센터
	군포	교육협력지원센터, 꿈의 학교

지역	지구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사업내용
서울	강북구	지역협력 마을학교, 마을배움터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지원
	관악구	토닥토닥 마을학교, 마을학교 총괄코디네이터, 학교협동조합활성화, 마을 교육자원 발굴지원
	구로구	온마을교육센터, 온마을강사 활성화 사업
	금천구	마을교사 '꿈마샘' 협력교사, 마을결합형 방과후학교
	노원구	북부마을결합형학교, 문·예·체 및 창의적 체험학습 협력교사 지원, 다양한 마을학교 개설, 우리고장 마을여행 운영 등
	도봉구	마을학교 지정 및 프로그램 운영, 마을결합형학교, 마을 교육자원 연계 학교지원 사업
	은평구	은평 교육콘텐츠 연계사업, 학교-마을 연계사업
	종로구	마을교사 양성교육, 우리마을 청소년동아리, 해설사와 함께하는 '골목길 나들이' 문화가 있는 날 '미술관 나들이', 오감만족 '박물관 나들이', 마을연계 초3사회과 수업지원, 마을결합형 학교 등
	강동구	'우리 동네 책방' 프로젝트, 마을교사 양성, 행복한 배움공동체 '강동마을', 청소년 대안교실, 방학만큼 행복한 방과활동 '방과후학교' 등
	동작구	마을교육풀 구축, 마을학교, 마을교육 플래너, 마을강사 양성, 동마을 학교지원 사업 등
	서대문구	자유학기제 마을강사단 구축, '누구나' 프로젝트, 대안교실, 서대문 진로직업체험 등
	성북구	마을과 학교가 만나는 1동 1교, 마을교사 역량강화, 마을에서 길을 찾다 '꿈틀꿈틀 프로젝트', 방과후학교에서 방과후마을로, 안전한 마을 품 틈새돌봄, 우리고장 마을여행
	양천구	해누리 마을방과후학교, 마을탐방교실, 오감톡톡 건강을 배우는 스쿨팜, 책읽는 학교 책읽는 마을 만들기
	강서구	책 읽는 마을 '온두레 학교', 강서마을 방과후학교, 마을결합형 운영
	동대문구	마을과 함께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마을교육 멘토단, 마을상담사, 마을강사 양성, 주말놀이학교 운영
	영등포구	마을방과후학교, 마을학교 프로젝트, 사회적기업 연계 방과후학교 지원, 학교협동조합 지원
	광진구	지역 커뮤니티형 마을 학교 네트워크 구축, 마을을 담은 학교 운영 지원
	마포구	마을결합형학교 지원, 책 읽고 토론하는 학교와 마을, 마을방과후학교 청소년 마을축제 기획단 운영 등
	성동구	성동 마을강사 학교 운영, 책 읽고 토론하는 학교와 마을, 마을을 담은 학교 운영, 맞춤형 교육복지를 통한 희망만들기
	중구	방과후 마을강사 육성, 학교 밖 방과후 마을학교 운영, 초등학교 지역 사회 연계 마을교육 및 체험활동 지원, 학교-마을협력 교육사업 지원 등
전북	남원	고을교육공동체 만들기, 지역 연계 프로젝트, 학교와 함께 하는 지역 축제(춘향제, 흥부제 등), 남원 유관기관 연계 문·예·체 프로그램 운영

지역	지구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사업내용
	완주	토요방과후마을학교 및 지역사회 돌봄교실(완주청소년문화의 집, 온고을방과후협동조합, 아동·청소년나라사회적협동조합, 완주교육지원협동조합), 학교-지역연계교육 프로그램 발굴활용(온누리살이 협동조합), 마을 교과서 연구 및 개발, 학교-마을이 함께 만드는 교육과정
	전주	전주다움교육지원센터 구축 운영, 학교 및 지역사회의 협력네트워크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마을과 학교 상생 프로젝트 운영, 학교밖의 학교! 온고을방과후학교
	정읍	특색교육과정운영(샘고을빛깔 교육과정 운영), 지역사회연계동아리지원(마을선생님), 지역 문·예·체 교육지원(소리와 놀자, 빛때깔과 놀자, 몸으로 놀자), 지역사회연계책모임(책샘 프로젝트), 샘고을(정읍) 교육박람회
전남	강진	지역사회연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고흥	고흥 온마을학교와 연계한 자유학기제 운영지원
	광양	지역사회 연계 토요프로그램, 전통예절교실, 가족애 키우기 캠프 등
	나주	꿈길 찾아 떠나는 나주 진로 콘서트, '2천년의 시간여행' 목사골 탐방 프로젝트, 나주예절 학당
	담양	대숲맑은 문화예술 프로그램, 청죽골 명인 프로젝트
	무안	무안 모아 프로그램 운영, 행복가득 지역사회학교(마을학교) 운영지원, 무안교육희망연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영광	무지개학교네트워크, 학부모네트워크 구축
	영암	기의 고장 체험,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지원센터 구축
	함평	나飛를 위한 진로·직업 체험, 문화가 있는 토요일
	해남	우리 지역 맥 잇기, 우리 역사 바로 알기 교실 운영
강원	태백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한밤 마을교육공동체」운영
	화천	행복 방과후학교 운영(방과후학교 지원시스템), 행복한 음악여행 '한여름밤의 하모니'
인천	남구	남구 온마을학교 운영 지원(교육과정 및 방과후 프로그램), 남구 특성화 프로그램(청소년 민주시민아카데미, 찾아가는 구정교실) 참부모 연구학습지원, 남구온마을교육 지원센터 운영
충북	(지구)	지역교육협의체 구축, 지역공동체 만들기(교육협동조합 등), 지역 교육자원 지도제작, 지역인적자원 양성, 지역 연계교육과정, 지역 문화예술자원 활용, 학교밖 청소년배움터 운영, 마을 인문학을 통한 평생교육 등)

출처: 서울특별시·서울시교육청(2017a)을 참고로 재구성함.

나. 경기도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현황

경기도에서는 혁신교육지구사업 확산사업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통해 마을방과후학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의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혁신교육지구 사업과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지역의 혁신교육지구사업과도 연계되고 있다.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꿈의 학교’이며, 본 마을방과후학교 연구에 시사점을 줄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의 의미, 사업현황, 우수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공동체, 지역교육공동체 등 유사한 용어가 많을 뿐만 아니라 학자에 따라 정의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조운정·이병곤·김경미·목정연(2016)은 마을교육공동체를 청소년들이 마을에 대해, 그리고 마을 속에서 배우며, 마을을 위해서 활동하고, 학교,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 주민, 지역사회 단체 등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청소년들을 함께 교육하는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를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아이들이 마을의 주인이 되도록 학교, 교육청, 지자체, 시민사회 등이 협력하고 지원하고 연대하는 교육공동체라고 정의하고 있다’(경기도교육청, 2016b).

마을교육공동체의 정의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여러 연구와 실천 사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마을학교)의 개념에는 몇 가지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첫째, 공교육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역사회로 확장하는 것이다. 둘째, 마을 또는 지역사회의 교육적 활용이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지역을 교육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의 자원을 교육과정에서 이용하는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마을주체)의 양성이다. 지역인재 양성은 어린 학생들을 지역 인재로 길러낸다는 것과 성인 구성원들의 계속적 성장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나타난다. 넷째, 지역공동체의 성장이다(백병부 외, 2016).

경기도의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제3기 교육감 선거 공약에서 제안되어 경기도교육청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백병부 외(2016)는 경기도 마을교육공동체 추진 배경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 혁신교육지구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평을 넓혀가고자 도입되었다. 그동안 혁신교육지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지역

교육공동체 구축이 미흡했고 정책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고, 교육생태계 확장을 위한 새로운 마을교육공동체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 것이다. 즉, 혁신교육의 철학⁵⁾과 지향은 수용하되, 새로운 정책을 통해서 학교와 지역 간 협력의 문화와 거버넌스 구축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마을교육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기존의 학교교육으로는 학생들의 꿈을 실현하고 성장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학교라는 경계를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새로운 배움의 형태를 시도한 것이다. 마을(지역)도 하나의 배움터로서 학교와 함께 교육적 기능을 담당하지 않으면 진정한 교육을 실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추진방식이 학교 교육력 제고에 중점을 두는 것과 무관하지 않으며, 여기에는 마을교육공동체의 궁극적 목적은 학교 교육력 제고를 통해서 학생들의 성장, 발달을 지원해주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전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기도의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마을교육공동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한 중점사업은 ‘경기꿈의학교, 교육자원봉사센터, 교육협동조합, 학부모참여 지원’과 같이 네 개가 실시되고 있다. ‘경기꿈의학교’는 학교 밖의 학생들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 참여·기획·운영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이다.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은 학생들이 배움의 주체로서 무한히 상상하고, 질문하며, 스스로 기획·도전하고, 성찰하면서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도록 촉진하고 지원한다.

‘경기꿈의학교’는 운영주체에 따라 학생이 만들어가는 ‘경기꿈의학교’와 학생이 찾아가는 ‘경기꿈의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예산 지원에 따른 분류로는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꿈의학교’(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중심)와 시·군지자체,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는 ‘꿈의학교’(교육지원청 중심)가 있다. 마지막으로 운영형태에 따른 분류는 방과후 ‘꿈의학교’(주중, 주말), 쉼표형 ‘꿈의학교’(방학기간), 심화(전문)형 ‘꿈의학교’(경기남부/북부 각 1교씩 심화형 ‘꿈의학교’ 운영)가 있다.

5) 그동안 혁신교육지구에서는 지역교육공동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이제정 교육감 이후 마을교육공동체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함. 그러나 마을교육공동체의 정의를 살펴보면, ‘학교 교육력 제고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학교, 지자체, 교육청, 시민사회, 주민 등이 협력, 지원, 연대하는 교육공동체’ (경기도교육청, 2016b)로서 기존의 지역교육공동체라는 용어와 그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음. 다만, 학술적으로 마을은 생활권이 일치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 정체성을 단위로 사용되는 질적 개념으로, 행정구역 단위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등의 물리적 공간을 의미하는 지역과는 차이가 있는 개념(이호, 2006)이며, 이를 엄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마을교육공동체라는 용어변경이 정책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음.

〈표 4-2〉 2017년 경기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계획

연번	사업명	사업 내용
1	경기꿈의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꿈의학교 360교 운영 저명인사가 참여하는 꿈의학교 운영 학교-마을 공동실천모임 확대 교육협동조합과 연계 및 학부모 참여 확대
2	교육자원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교육청 모집 홍보(관계기관 협력) 자원봉사지원단 필수 운영 자원봉사자문협의회 구성 운영
3	교육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조성지원 다양화 사회적 경제교육 및 동아리 운영 확대 지역단위 교육협동조합 운영 지원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협동조합 활동
4	학부모참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정책 연수 강화 공모사업 확대(1,000교) 학부모 소통 앱 활용 활성화
5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와 협업 강화 홍보 및 기록 강화 마을사람 참여 지원 강화 마중물 꿈의학교 100교

출처: 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goe.go.kr>, 검색일: 2017. 11. 7.).

‘경기꿈의학교’는 2015년 143개교, 2016년 363개교에서 운영되었으며, 자유학기제 및 교교육 정상화와 연계하여 ‘경기꿈의학교’를 확대하라는 요구가 있다. 그러나 아직 까지 ‘경기꿈의학교’에 대한 인지도나 이해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교육청, 2016a). ‘경기꿈의학교’에 참여하는 방법은 마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에서 신청(별도의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에는 토론·3D·예술·중창단·커피환경·음악·사진·책·직업체험·연극·골프 등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에서는 커뮤니티 맵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마을에 있는 유·무형의 교육 자원 정보를 지도 형태로 공유하고 있어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원격연수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다양한 주체가 마을교육공동체의 개념, 필요성, 사례 등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온라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수증도 발급하고 있다.

교육자원봉사는 학교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마을단위 교육자원으로서 제공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마을교육공동체 정신과 협력의 원칙에 입각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학교에 제공하는 활동이다. 경기도에서는 25개 교육지원청별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인력풀을 구성하고 기본교육 및 성범죄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여 역량을 강화한다. 육성된 교육자원봉사자는 매칭을 시켜 학교의 행정실무업무, 현장 체험학습 시 보조업무, 급식실 배식, 꿈의학교 강사 지원 등 학교를 돕는 활동을 연계해주고 있다. 교육자원봉사자는 2015년 8월 4,130명, 2016년 6월 5,776명이 활동하였으며, 72%는 학부모, 14%는 주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자원봉사센터의 역량에 따라 지역별로 활성화 편차가 크며, 교육 자원봉사 활용을 위한 학교의 인지도나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교육청, 2016a).

교육협동조합은 마을교육공동체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며, 사업이윤은 교육공동체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조직이다. 경기도에서는 지역단위 교육협동조합 4개교에서 설립을 준비하는 중이며, 학교단위 교육협동조합은 12개교 운영, 1개교 인가 진행중에 있다. 사회적 경제 동아리는 2015년 29팀, 2016년 45개 팀에서 운영하였다(경기도교육청, 2016a).

학부모 참여 지원 활동은 교육주체인 학부모가 학생의 행복한 교육활동을 위해 건강하게 참여하고 지원하는 민주적 교육문화 형성 활동이다. 경기도에서는 2016년도 학부모 학교 참여 공모사업을 운영하였고, 2015년 41개교에서 2016년 638개교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간담회 등 학부모 정책을 31회 실현하였으나, 아직까지 현장 중심의 다가가는 민주적 교육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며, 학부모에게 교육정책의 신속정확한 정보제공과 소통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교육청, 2016a).

다. 경기도 마을교육공동체 프로그램 사례

1) 경기도 시흥시⁶⁾

시흥시는 2015년 5월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립했다. 센터는 시흥시청 교육청소년과의 4개팀(교육지원팀, 청소년팀, 청소년국제교류팀, 행복교육지원센터) 중 하나로 시흥시 공무원과 시흥 교육지원청에서 파견한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 「마을교육공동체 실천사례 연구: 시흥과 의정부를 중심으로」 및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발췌·정리한 것임.

팀장 1명, 주무관 2명, 사무지원인력 2명이 교육청소녀와 산하에 배치되어 있다. 시흥 교육지원청은 교사 1명, 주무관 1명을 센터로 파견하여 총 7명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의 운영 목적은 ‘마을과 학교 사이의 허브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마을의 교육 자원을 발굴하고 인프라를 형성하여 마을교육공동체 실현을 앞당기는 것이다. 이 센터가 설립됨으로써 시청, 교육지원청, 혁신교육지구, 마을학교,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학교와 학부모를 연계하여 마을교육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조직적 기초가 형성되었다.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는 2016년 2학기부터 실시되는 도시숲체험학교, 도시농업생태공원, 천문관 방문, 시흥문화관광탐방, 능곡선사문화체험 등 253차례의 학교 밖 체험현장 지원 계획을 모두 수립한 상태이다. 시흥시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286학급 10,455명의 학생들이 이 센터가 연계한 체험학습 현장의 지원을 받게 된다. 방문 처연계는 물론 학습 현장으로 가는 버스 지원까지 모두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원 프로그램의 종류와 성격을 살펴볼 때 학생들은 교과와 연관한 체험학습과 자신이 살아가는 고장에 대한 전문도 넓힐 수 있게 되어 있다.

행복교육지원센터의 주요사업은 시흥창의체험학교, 마을교육과정, 학부모성장프로젝트이다. 시흥창의체험학교는 시흥의 생태, 문화, 역사, 환경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학년별 교육과정과 연계한 시흥 현장학습이다. 시흥창의체험학교 운영의 핵심은 학교에서 학교 밖 체험처로 학생들을 데리고 나가 학교 교육과정과 연관된 공부를 현장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2016년 1학기에는 관내 60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17,00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하는 프로젝트를 설계했다. 시흥시에서는 세 가지를 지원한다. 체험처를 오가는 45인승 차량, 현장에서 필요한 강사 또는 프로그램 매칭,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협의이다.

시흥창의체험학교는 온라인 접수, 교육프로그램 매칭, 운영, 모니터링 및 보완의 절차로 이루어지며, 과학·문화·예술·생태 등 9개 분야에서 총 79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표 4-3〉 참조).

〈표 4-3〉 시흥창의체험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

분야	프로그램명
과학	부천로보파크, 천문관
문화	도일마을 골목길 여행, 참이슬마을공동체여행, 경기도 미술관 여행, 우리동네 한옥 체험, 우리고장시흥 문화관광탐방, 다문화체험교육, 코끼리교실(바라지물길여행),
생태	오이도갯벌체험, 시흥갯골탐방 A, B, 백년정원생태교실, 쌀의여행 추수체험(저어새가 찾아오는 호조벌, 도시숲프로그램 1~4, 도시숲프로그램 1~3, 시흥연체험학습, 함줄도시농업공원 생태체험, 어린이 도시농업체험, 늬내길생태문화탐방, 초록배움터(연꽃테마파크)1~6,
안전	안전체험학교, 어린이 안전체험관
역사	시흥역사문화전시관람, 능곡선사문화체험, 오이도 발굴조사체험(오이도 Go, Back, Jump!), 오이도 발굴조사체험(오이도 패총이야기)
예술	방산동 가마터 아트스쿨, 이상한 나라의 올빼미 집
체육	시화나래 요트아카데미, 학생승마체험, 론볼 체험, 누구나 게이트볼, 스포츠 클라이밍, 전통스포츠 궁도, 코끼리교실(맨땅에 그린), 갯골캠핑학교, 시화나래마린페스티벌 체험(초등, 중등)
행정	코끼리교실(행정기관탐방)
환경	청소년 물사랑 체험마당, 나는 미래의 녹색일꾼, 시흥에코센터 초록배곧1~6, 조력에너지, 오감체험 숲교실

출처: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홈페이지(<https://happyedu.siheung.go.kr>, 검색일: 2017. 11. 10.).

시흥의 마을교육과정은 시흥시의 특색을 반영한 지역교육기관의 마을교육 프로그램을 학교교육과정에 연계하여 운영하는 사업이다. 지역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학교 교육과정에 부합하도록 개발함으로써 지속적인 교육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흥시 교육발전의 시너지를 발휘하고자 운영되었다. 시흥시 마을교육과정은 관내 초·중·고 80개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업내용은 아동·청소년대상 교육프로그램 수행이 가능한 지역 교육기관(단체·개인 포함)이 학교교육과정에 맞춘 프로그램을 발굴·신청하며,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프로그램을 마을강사와 학교교사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흥의 학부모 성장 프로젝트는 자녀 중심의 개별 학부모를 넘어서, 학부모가 학교의 공동 주체로서 건강한 교육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학교 참여로 확산토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학부모 네트워크프로젝트, 학부모 포럼(학교참여바로알기, 학부모특강), 학부모지원협의체(부모지원 전문가 자문회의, 행정지원 실무협의회)

를 운영하고 있다.

2) 경기도 의정부시⁷⁾

경기도 혁신교육 지구사업은 학교와 마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교육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의 인프라를 공유하며, 지역과 주민, 마을과 학교가 중심이 되는 학교 밖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의정부에 마을교육공동체가 뿌리내릴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의정부는 혁신교육 지구사업 시즌 II 사업을 통해 꿈의 학교, 교육자원 봉사센터, 교육협동조합의 운영 및 마을축제, 마을동아리 등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인프라 연계망을 구축하는 노력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정부에서 마을교육공동체의 토대가 싹튼 것은 혁신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면서부터이다. 혁신학교는 지역사회에서 배움의 재료를 찾고 학습한 것을 실천하는 장(場)으로서 지역을 선택하는 마을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사들은 교육과정의 실행 범위를 학교 내에서 지역사회로 확대하여 교육이 지역사회와 관련을 맺어야 한다는 것과 지역사회가 학생들의 배움이 이루어지는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 의정부의 E 여중에서는 2011년부터 마을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학교에서 마을로~’라는 교과통합 프로젝트와 지역자원 활용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7) 조윤정·이병곤·김경미·목정연(2016)의 「마을교육공동체 실천사례 연구: 시흥과 의정부를 중심으로」에서 발췌·정리한 것임.

〈표 4-4〉 의정부 E여중 ‘학교에서 마을로~’ 교과통합프로젝트

프로젝트명	장소	중학교과 또는 담당부서	참여 대상	실행연도
우리 마실 가자	의정부내 22곳	1학년 사회 '도시'단원	1학년	2014년
친구와 함께 하는 요리 여행	학교 주변 마트, 의정부 제일시장	2학년 기술·가정	2학년	2012년
재래시장 프로젝트	행복로, 제일시장	1학년 사회	1학년	2011년
소중한 나(자존감교육)	E여중~행복로	1학년 기술·가정	1학년	2012년
자연과 이웃의 상생을 꿈꾸는 생태프로젝트	한살림 외 7곳	2학년 기술·가정·국어	2학년	2013년, 2014년
'내 삶의 나침판' (진로, 공동체속의 나)	관내외 고등학교	3학년 기술·가정	3학년	2013년, 2014년
동아리 전일제 재능기부	40여개 쏜동아리 섭외	동아리·창체부	쏜학년	2012~4년

출처: 조운정·이병곤·김경미·목정연, 2016, p.140.

또 다른 사례는 의정부의 S초등학교이다. 이 학교는 2012년 혁신학교로 지정받았으며,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수업에 필요한 지역의 자원을 이용하기도 하고 교육활동을 통하여 마을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S초등학교는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교육적 경험이 중요한데, 그 경험은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 지역사회로까지 확산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 학년의 학생이 학교 주변의 주말농장을 임대해서 텃밭을 경작하고, 텃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이용하여 요리수업을 하며, 학교축제에서 농산물을 판매하기도 하였다. 또 마을주민과 함께 벼룩시장을 운영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와 마을이 연계되면서 수업공간이 학교에서 마을로 이동하였고, 수업내용과 자원을 마을에서 찾아 활용하는 등 수업의 패러다임과 틀을 확장시켰던 혁신학교의 새로운 시도는 마을교육공동체가 형성되는데 또 하나의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혁신학교에서 실시했던 마을교육과정이나 마을학교 프로그램이 마을교육공동체 형성의 토대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첫째, 교육이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면서 교육의 영역을 학교 안에서 지역사회로 확대하였다는 점에 있다. 둘째, 학생들에게 배움을 줄 수 있는 대상이 교사뿐 아니라 특정 영역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역량을 갖춘 마을 주민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셋째, 학교 밖에서 교육활동을 하면서 마을의 주민과 직접 만나고 자신의 삶이나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마을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마을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되고 마을을 변화시키는 활동을 하는 수준까지 발전하게 된 것이다.

3) 경기도 고양시⁸⁾

A중학교는 경기도 고양시 외곽에 위치한 소규모 공립학교이다.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폐교 위기에 처했으나 2009년 혁신학교로 지정되면서 차츰 학교가 쇠신되고 학생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A 중학교는 화전마을학교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화전마을학교는 학부모활동에서부터 시작하여 마을활동으로 발전했다는 특징이 있다.

화전마을과 A학교의 연계 활동으로 가장 주요한 부분은 방과후학교 위탁운영이다. 2014년 말부터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마을학교가 방과후학교를 위탁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A중학교는 이전부터 다양하거나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 등 방과후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고, 마을학교에 방과후학교 운영을 제안하게 되었다. 마을학교에서는 흔쾌히 방과후학교 운영을 맡아 방과후학교 협의회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논의, 강사 섭외, 회계 등 역할을 보상 없이 운영하였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 끝에 봉사형태로 방과후 코디네이터 자리를 신설하여 소규모의 봉사 활동비를 제공하고 방과후학교 운영을 하게 하였다. 학교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만족감을 표시했으며, 학생 면담에서도 이러한 성과가 드러났다. 또한 마을학교 대표가 잘 알고 있는 강사를 섭외하여 일반 방과후 강사들이 학생들과 맺는 관계와는 질적으로 다른 관계들이 형성된다는 것을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보았다.

A 학교에서는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마을과 학교의 연계하는 3주간의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하여 운영하였다. 마을학교에서는 엄마들이 강사로 참여하여 목공활동, 팔찌 공예,

8) 자유학기제와 마을교육공동체 연계방안(백병부 외, 2016)에서 정리·발췌한 것임.

망월산 생태 나들이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운영하였으며, 이러한 수업연계의 경험은 이후 자유학기제 연계로 확장되게 된다. 수업연계를 통하여 마을의 가능성을 느끼고,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마을학교와 연계하는 것을 시도하게 된 것이다.

A 학교는 2016년 2학기 자유학기제를 앞두고 겨울방학부터 사전 모임을 시작하였다. 부장교사와 교감, 마을학교 학부모회가 함께 참여하여 자유학기제의 방향과 영역, 시수 배정 등을 함께 논의하였고, 마을학교는 최종적으로 진로선택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후에 마을학교가 추천한 진로전문가가 합류하게 되었고, 마을학교, 진로전문가, 교사가 함께 ‘마을 안에서 나의 진로 찾기’라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마을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기획한 이유는 진로전문가와 논의과정 속에서 기존 진로체험교육의 한계를 인식하였고, 마을 안에서 나의 존재와 진로를 탐색하고 마을 어른을 통해서 삶과 진로를 몸으로 느끼고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화전마을학교는 2016년 8월 ‘경기꿈의학교’를 시작하였다. 엄마들이 강사로 활동하면서 엄마들이 또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꿈의 학교는 학교와는 상관없는 마을학교의 활동이기도 하지만, A 학교와 매우 밀접하게 결합하여 진행될 계획이다. 우선 꿈의 학교 학생이 모두 A초등학교와 A중학교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고, ‘나눔탐험대’라는 이름으로 중학생들의 동아리 활동과 연계하여 중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을 지도하는 스태프로 참여하게 된다. 방학 중의 프로그램을 참관한 결과 중학생들이 자신들의 동아리활동이나 특기를 활용해서 체스, 영어, 농구, 자수, 전통놀이 등의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운영자로 참여하고 있었다. 학교에서는 이 시간을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해준다.

라. 시사점

경기도의 경우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를 통해 자치구에 상관없이 마을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 필요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의 경우 각 자치구나 전담부서의 홈페이지를 찾아야 하며, 이 경우에도 자치구별로 전담부서나 전담조직 명칭이 상이(OO방과후활동운영센터, OO혁신교육지원센터 등)하여 정보습득에 어려움이 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라는 중간조직과 홈페이지가 있지만 이곳에는 총괄적인 자치구 마을교육 프로그램만 있을 뿐 마을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수요자 입장에서 마을방

과후학교 프로그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원격연수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다양한 주체를 대상으로 온라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마을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시민들의 인식 제고가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온라인 교육은 물론 대상별 맞춤형 오프라인 교육, 지역축제 시 홍보부스 운영, 학교 및 아파트 전단지 부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고양시 A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협의회라는 마을학교와 학교 교사들간의 공식적인 소통과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백병부 외, 2016). 이를 통해 서로간의 신뢰구축과 효율적인 방과후학교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다. 타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자체, 교육청 등 다양한 주체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사업에 대한 철학적 이해와 공감대 형성, 그리고 적극적 참여를 위한 소통과 협력 시스템 구축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지역사회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은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서 체험처에 교육 담당자를 배치하고, 담당자의 교육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수나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한 ‘경기꿈의학교’의 경우 기존 업체에 강사로 지급, 현장과 마을교육공동체 정책과의 괴리가 발생한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세밀한 정책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교육선진국의 마을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분석

마을방과후학교의 개념이 마을을 통한 교육이고 이는 지역사회의 인적·문화적·문화적·환경적·역사적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미 학교와 지역이 하나의 교육공동체로서 지역의 학령기 학생들의 돌봄과 교육을 주도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미국

1) 지역사회학교(Community school)

미국에서는 학교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이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1990년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지역사회학교(Community school)는 1960년대부터 미국의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학교와 지역의 연계를 성공적으로 구현한 하나의 모형으로 자리 잡았다.

지역사회학교(이하 커뮤니티 스쿨)란 학생들의 학업과 건강 및 발달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공공 및 민간기관들과 파트너십을 가지는 동시에, 관련된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센터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공립초·중등학교이다. 기본적으로는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에 관심을 두지만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학업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은 학습이나 폭력, 약물 등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기 쉬운데, 이런 문제를 학교가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역의 다양한 기관들과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커뮤니티 스쿨은 지역의 사회복지기관, 가족지원센터, 청소년 조직, 기업,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 다양한 기관들과 관계를 맺고 협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 수준을 향상시키고 학생이 속한 가정을 건강하게 가꾸며, 최종적으로는 지역사회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끌어올려야 하는 경우에는 인근 대학의 교수와 대학생들이 방과 후 교사로 자원 활동을 하고, 보건지원이 필요한 곳은 지역 보건소와 병원이 아동과 부모를 위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은 지역 재단의 후원으로 아침 저녁식사를 제공하기도 하고 청소년 취업 교육을 실시하는 곳도 있다. 미국 전역 약 5,000여개가 운영되고 있고 전 세계에는 27,000여개가 운영되고 있다.

가) 시카고 커뮤니티 스쿨

미국의 지역사회학교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된 곳은 시카고 커뮤니티 스쿨이다. 시카고 지역의 기업과 자선단체 리더 들이 시카고 공립학교에 커뮤니티 스쿨의 확대를 요청하였고, 학교도 이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그 결과 2015년 기준으로 600개 이

상의 학교가 소속되어 있는 시카고 교육 구에 200개 이상의 커뮤니티 스쿨이 운영 중이다.

시카고 커뮤니티 스쿨은 스쿨 이니셔티브(Community Schools Initiative: CSI)의 지원을 받고 있다. CSI가 하는 역할은 첫째, 공립학교를 개방하여 지역사회의 중심 센터가 되도록 변화시키는 것, 둘째, 어린이와 가정의 개인적·경제적 안녕을 촉진하는 서비스를 연결시키는 것, 셋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 부모와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것 등이다.

CSI 커뮤니티 스쿨은 학생들과 부모를 위한 학업 지원, 학교 시간에 이루어지는 사회적·문화적 교육 내실화, 학생과 가족을 위한 건강 및 웰빙 서비스, 학생들의 사회적·정서적 건강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학생과 성인을 위한 방과후교육 프로그램과 주말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한다. 학생들을 위해서는 스포츠, 레저, 예술과 문화활동, 개인교습, 학업 지도 등을 수행한다.

방과후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교사는 학교 교사들인 경우도 있지만, ENLACE⁹⁾같은 비영리단체가 하는 경우가 많다.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먼저 학교시간을 확장하여 학교 종료시간인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둘째, 학교 밖 시간을 풍부하게 활용한다. 학교당 평균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수학, 과학, 문학 등의 교과 학습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감정적 유연성을 기르는 학습을 균형 있게 제공한다. 또한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의 참여를 촉진해서 사회복지기관, 청소년기관, 대학 기반 기관, 기업 등 여러 기관이 골고루 참여하도록 한다.

다른 특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커뮤니티 스쿨 기획과 감독에 직접 참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커뮤니티 스쿨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 관계자, 자원 코디네이터, 학부모, 학생, 기업이나 재단 대표자, 주민 등을 참여시킨다. 특히 학부모 참여를 독려하여 학부모 참여 수업이 증가하였다. 일부 학부모 중에는 프로그램 운영 스태프로 참여하기도 한다.

9) ENLACE Chicago는 시카고 주민을 위한 NPO이다. 다수가 히스패닉인 지역 주민들을 위해 공동체교육과 경제개발, 폭력 예방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러한 활동으로 인한 성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다른 학교 학생에 비해 높아졌다. 둘째,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을 제공했다. CSI 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 학생 징계 건수가 적었는데, 이는 지역사회 파트너 기관들과 협력하여 학생들이 징계 받기 전에 대응을 했기 때문이다.

나) 멀트노마 카운티 커뮤니티 스쿨

미국 Oregon주에 있는 멀트노마 카운티는 인구 75만 명이 사는 지역이다. 인종 간 학업 성취 차이 심화, 빈곤 증가, 방치되는 어린이 증가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와 이웃의 연합’(Schools Uniting Neighborhoods: SUN) 커뮤니티 스쿨 제도를 시행하였다. SUN 커뮤니티 스쿨은 평일에 일찍 학교를 개방하여 학생들이 학교에서 아침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숙제나 기술 향상 활동을 하게 한다. 방과후에는 정규 학교 수업을 보완하는 학습이나 문화·여가 활동을 제공한다.

이를 통한 성과는 먼저 만성적인 결석률을 낮추는 데 기여했다는 것이다. 둘째, 고등학교 커뮤니티 스쿨은 학생들의 졸업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셋째, 빈곤가정이나 유색인종, 이민자 가정, 난민가정 등 교육 취약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학업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김영철 외, 2016).

미국의 커뮤니티 스쿨은 학교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지닌 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전문기관이나 정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생겨난 제도이다. 그러나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학습과 성장을 위한 교육환경을 만들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업시간 외 시간은 학교를 지역에 개방하고, 지역의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여 돌봄, 건강 지원, 학습 지도, 여가 활동, 폭력 예방, 법률 상담, 알코올 중독 예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커뮤니티 스쿨 설립과 운영지원을 위해 여러 중간지원 조직이 있다. 이들은 학교와 그 지역의 대학과 기업, 자원봉사자, 단체, 기관 등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주요 재원은 연방정부와 주 정부, 교육청을 통해 마련하며 재단기금과 기업후원 등의 민간 자금도 적극 활용한다. 1997년 설립된 커뮤니티 스쿨연합회는 142개의 커뮤니티 스쿨 지원 단체 및 관련기관의 연합체로 커뮤니티 스쿨의 효과와 발전방법을 연구하고 연방

정부와 주정부의 지원정책도 연구하는 등 커뮤니티 스쿨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미국의 커뮤니티 스쿨은 학교만의 틀을 벗어나 마을과 지역사회의 모든 자원과 인력, 자금이 어우러져 학교를 공동체의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학교-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리가 중간조직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간조직을 통해 사업담당자가 지정되고 이들의 전문성이 신장됨에 따라 프로그램의 질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된다.

사업 기획부터 새로운 파트너의 발굴과 연수, 참여자와의 의사소통, 사업의 운영과 지정, 프로그램 관련 학생 자료 수입과 분석, 성과 평가 등 전 과정을 전담하면서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한다. 그리고 이들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는 제3의 기관에 의해 성과 평가와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도록 하여 공정한 관리를 유도하고 재정투자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여 다음 계획수립에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미국의 커뮤니티 스쿨을 지속적 성공 사례로 이끄는 주요 요인이다(정제영, 2015).

2) 방과후학교

미국에서 방과후학교는 일하는 여성의 자녀에 대한 보육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4H나 YMCA와 같은 청소년 발달(youth development)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발전되었고, 최근에는 청소년 비행과 위험의 예방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 부모가 직장에 있는 동안 아동이 다양한 경험, 체험, 실습 기반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미국의 경우, 전 가정의 1/4 정도가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자녀를 두고 있다.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체육 활동부터 학업 및 예술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지난 10-15년 동안 미국에서는 방과후학교의 학업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었다. 21세기 커뮤니티센터(21st community center) 등을 통한 정부의 예산 지원은 방과후학교에 참여하여 학생의 교육 성취를 높이는데 사용되었고,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에도 역점을 두었다. 특히 방과후학교의 학업적 측면은 학생들이 과학이나 기술과 같은 분야의 과목에서 자신의 흥미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과 같은 분야에서

자신의 학업 성과를 향상시키면서, 한편으로는 라이프 스킬과 같은 청소년 발달 관련 성과도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양면적 성격(double bottom line)을 가지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STEM 교육이 중요해짐에 따라, 약 69%의 학생들이 방과후학교를 통해 STEM 교육 활동, 특히 탐색과 체험 기반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정규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STEM 교육 기법 때문에 과학에 흥미를 잃는 학생들이 과학으로 다가서게 되는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한편 미국의 방과후학교는 긍정적인 청소년 발달에도 기여한다. 방과후학교는 다양한 관계 형성, 성인과의 멘토링 경험, 협력적 활동, 지역사회 연계 활동, 새로운 역량과 흥미의 발견, 체험 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 함양, 팀워크와 협업역량 배양, 합리적 선택과 다양한 의견 교환의 기회를 갖는다.

나. 일본

일본의 ‘지역사회 기반 학교’ 이해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나가하타 미노루, 2014 ; 희망제작소, 2017 재인용). ‘지역사회 기반 학교’는 학교 교육의 역할과 한계를 인식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가정과 지역이 연계하여 학교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특히 지역이 운영에 참가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립학교(커뮤니티 스쿨¹⁰⁾)을 시정촌이 설치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검토하였고, 이것이 지역사회 기반 학교법제화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2004년 ‘지방교육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제도화되어, 현재까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사회 기반 학교 법제화의 목적은 가정이나 지역주민의 교육 요구를 반영하여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을 전개하려는 것이 첫 번째이다. 두 번째 목적은 학교와 가정, 지역주민이 하나가 되어 아동·청소년의 ‘살아갈 힘’을 육성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마을을 만드는 것이다. 세 번째 목적은 학교와 가정, 지역주민이 하나가 되어 지역화 된 교육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는 것이다(김영철 외, 2016).

한편, 문부성과 건강노동복지부(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가 협

10) 커뮤니티 스쿨이 법률상의 정식 명칭은 아니나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다. ‘지역운영학교’로 사용되기도 한다 (김영철 외, 2016).

력하여, 안전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성숙한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방과후학교 종합 방안’을 만들었다. 건강노동복지부는 ‘방과후 아동 클럽(After-school children club)’을 운영하는데, 이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이 놀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제공한다. 반면 문부성이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지역주민, 은퇴교사, NPO 등과 협력하여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학습과 체험 활동을 제공한다. ‘방과후학교 종합 방안’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방과후 아동 클럽’의 협력을 증진하고, 2019년까지 전국 20,000개의 초등학교에서 통합된 방식이나 파트너십 방식으로 운영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 중 10,000개 이상의 학교에서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다. 방과후 아동 클럽은 300,000명 이상의 아동을 수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설치되며, 80% 이상의 클럽이 초등학교 내에서 운영될 것이다(교육부, 2017).

2015년에 일본 문부성은 ‘차세대 학교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방안’을 수립하였다. 여기에는 2020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학교 교육과정에 ‘교육과정의 사회적 요구에 대한 개방과 부응’ 그리고 이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 학교’로의 이행이 있다.

‘차세대 학교와 지역사회 건설을 위한 학교와 지역 공동체의 협력과 협업 방안’에 부응하여, 2017년에 사회교육법이 개정되었다. 동법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지역 공동체 협력 네트워크(Community cooperation network)’를 만들고, 이를 위해 학교 교사와 지역주민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정부는 ‘지역 공동체 협력 활동(community cooperation activities)’을 위해 ‘공동체 코디네이터’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1) 호후시 오미치 초등학교 · 중학교

일본 지역사회 기반 학교의 구체적인 사례는 호후시 오미치 초등학교 · 중학교를 들 수 있다. 오미치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호후시 남부에 있는 학교이다. 호후시는 교통의 요지이고 역사적 유산이 많이 남아 있는 지역이다. 지역 주민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역의 아이들은 지역이 키운다’는 풍토가 강해서 지역과 학교의 협력 체계가 존재하고 있었다.

학교와 지역이 연계된 주된 활동은 내 고장 학습, 직업체험학습, 초 · 중 합동 자원봉

사활동(지역환경미화), 오미치 축제, 커뮤니티 코너 개설 등이 있다. 특화된 활동은 리싸이클링 활동, 초·중 합동 청소 자원봉사, 수영기술지도, 유카타 입는 법, 전통악기연주, 보충학습 등의 학습지원 봉사활동, 홍보활동 지원(홈페이지, 홍보지 작성) 등이 있다. 리싸이클링 활동은 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지역기관의 협조를 얻어 담당 지구를 돌며 재생자원을 회수하는 활동이다. 초·중 합동 청소 자원봉사는 초·중학교 합동 실행위원회가 기획하고 지역의 협력을 얻어 실시하는 활동이다.

이처럼 일본 커뮤니티 스쿨의 특징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육활동을 서로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호후시처럼 규모가 작은 지역은 초·중학교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여 지역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오랫동안 관찰하고 지원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김영철 외, 2016).

2) 일본의 학사융합

일본은 평생학습의 범주에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8년부터 학교를 응원하는 지역응원단이라는 슬로건 아래 학교지원지역본부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지역 전체 학교교육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학교의 요구와 지역의 힘을 매칭하고 학교지원 자원봉사 등을 조정한다. 기본구조로 지역 코디네이터, 학교지원 자원봉사, 지역교육협의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지역코디네이터는 학교와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자 간의 연락조정을 통해 학교지원지역본부의 실질적인 운영을 하며 학교지원자원봉사자는 교육지원에 의욕이 있는 지역주민들로 구성되어 학교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한다. 학교장, 교직원, 지자체공무원, 공민관 관장 등으로 구성된 지역교육협의회가 실시 주체가 되어 학습지원 활동, 특별활동지도, 환경정비, 학교-지역과의 합동행사 개최 등을 지원한다.

일본의 학교평생교육은 사회적 변화에 따른 학교 역할 변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 학교와 사회의 유기적 연계를 강조하면서 2008년 학사융합의 이념 아래 학교와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학사협동모델을 모색하였다. 학사융합은 학교교육의 경직성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교부적응, 학교기피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시작한 것으로 지역의 교육력 향상이라는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목표를 공유하나 각각이 주체가 되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상호간 교육-학습 작용을 도입하고, 학사융합에 의해

생긴 활동은 상호평가의 대상이 됨을 강조하였다.

일본의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에 의한 교육은 전통문화견학, 체험학습, 조사학습 등 지역의 교육자원을 학교교육에 활용하는 방식,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학교 내의 교육을 위하여 활용하는 방식, 지역주민들이 평생교육을 위하여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방식, 지역주민이 평생교육에 학교의 인적 자원을 투입하는 방식,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학교교육으로 활용하는 방식, 학교 수업이나 동아리 활동을 지역주민이 평생교육으로 활용하는 방식, 주민 평생교육담당자와 학교교사가 학생, 지역주민,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기획하여 운영하는 방식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구교정, 2008).

일본의 사례는 우리나라 사업 사례와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특히 경직된 사회체계가 강하게 남아 있어 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우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교육체계가 지자체에 통합된 형태가 아니라 분리 운영되고 있어 관-관 거버넌스가 우선 이루어지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독일

독일 부모들은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격언을 점차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좋은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인식한다. 이를 위한 마을, 즉 많은 사람들이 한 아이를 위해 다양한 재능을 가져와서 정겹게 관계를 이어가는 마을이 어디 있는지, 또한 우리 아이들이 신뢰하고 스스로 삶의 기쁨을 찾고 세상에 선사하도록 돕는 사람들이 있는 마을, 이러한 마을을 구축하기 위해 이 공동체는 한 학교와 한 유치원을 공동 개념으로 묶어 아동과 청소년을 키우고 성장하도록 시도하고 있다(이희수, 2016).

마을사람들은 호텔 레스토랑기업, 수공예사업과 다른 작은 일들을 논의하고, 농장 일을 하며, 다른 지역들에 교육 과정과 세미나를 제공한다. 또한 문화행사를 개최하며 콘서트, 독서, 전시회 등을 제공한다. 이들은 스스로 건강한 의식, 생태적이고 문화적이면서 지원받는 공동의 삶의 한 사례가 되고자 한다. 이런 공동체적 삶과 나이를 초월한 통합으로 젊은이들을 유치하려는 동시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고향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아이디어와 관련, 그들의 아이들이 그들의 아이디어와 비전에 따라 성장하고 살 수 있도록 ‘마을’에서 자유학교를 설립하였다. 자유학교는 이러한 관점에서 더 많은 가족을 유치하여 지역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이희수, 2016).

라. 홍콩¹¹⁾

홍콩은 학교 차원에서 전인교육을 목적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예전에는 운영되는 과목이 교사 중심이었다면 현재는 학생을 위한 전인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다른 학습 경험(Other Learning Experiences: OLE)과 평생학습(Life-wide learning: LWL) 형태로 운영된다.

OLE와 LWL은 교실 밖 학습과 학생들의 일상생활의 다른 측면들을 의미한다. 이는 학생들이 교과과정 외에 자신의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체험 학습(experiential learning)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LWL의 예로는 박물관 등의 견학 프로그램, 지역 사회 봉사 활동, 리더십 향상 프로그램, 의사소통 프로그램 등이 있다.

학생들은 진정한 여가(serious leisure)를 위해 자기주도적으로 방과후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진정한 여가란 참여자가 특별한 기술, 지식 및 경험의 조합을 습득하고 표현하는 진로를 찾기에 충분하고 실질적이며 흥미롭고 성취하는 아마추어, 애호가 또는 자원 봉사자의 핵심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개별 참가자가 학습 과정을 명확하게 통제하여 의도적이고 스스로 계획하는 자기 주도 학습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 활동에 참여한 학생에 대한 연구는 참여자들이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삶의 풍요로움을 느끼고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자신의 진로와 연계시키는 것이 가능해지는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 시사점

11) 2017년 방과후학교 국제포럼 자료집(교육부, 2017)에서 정리·발췌한 것임.

국내에서 연구된 국외의 방과후 활동 사례를 살펴보면, 이미 외국은 학생들의 방과후 활동을 학교와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과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방과후활동 정책 중, ‘특별 비상근 강사활용사업’, ‘지역사회학교사업’은 지역과 학교, 마을이 아동을 함께 양육한다는 취지와 방과후활동을 매개로 학교를 개방하여 상호교류의 장을 만든 사례이다. 이러한 외국의 방과후 활동 사례를 통해, 마을방과후학교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방과후지역의 아동청소년을 마을이 돌보는 것에 대한 책임의식에 사회적 공감의 확실히 이루어져야 하고, 학교와 지역의 적극적인 역할 분담, 안정적인 재원확보, 효율적인 행정의 도움, 전담 전문조직과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마을방과후활동에 대한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 프랑스의 경우 교육부의 시행지침에 의해 각 급 학교와 각종 지역사회 교육활동기관들 간의 계약과 지원이 긴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주정흔 외, 2017). 서울특별시도 일부 학교가 아닌 전 학교를 대상으로 마을방과후학교를 시행하려면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마을방과후활동을 추진하는 중간거점조직 구축이 필요하다. 미국 뉴욕시의 TASC(The After-School Cooperation)는 지역 청소년들에게 방과후활동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운영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지역의 비영리 단체가 방과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체들이 TASC를 통해 공립학교와 연계하고 예산을 지원받는다. TASC는 방과후 프로그램의 질 관리를 위하여 직원 연수, 프로그램 기획 지원, 성공 사례 공유 등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한다. 이처럼 마을방과후활동의 목적을 구현하고 긍정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시스템으로서 중간거점조직 구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차원은 아니지만 학교와 지역이 상호 개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마을방과후학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긴밀한 연계가 필수적이다.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의 국가는 지역사회와 방과후학교의 연계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고 실제로 사례에서 다룬 것처럼 상호 교류가 활발하다.

제 V 장

마을방과후학교 운영의 개선방안

V. 마을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1. 마을방과후학교에 대한 종합적 평가 및 활성화 방안

본 연구의 목적은 마을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구동될 수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마을방과후학교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은 전제를 기반으로 제시되었다.

마을방과후학교는 마을과 함께 공교육의 혁신을 지향하며 마을을 하나의 배움터로서 인식하고 함께 학습하고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마을과 학교의 연계는 단순히 보면 마을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풍부하게 하고 교과과정을 혁신하는 것이다. 그러나 좀 더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마을과 협력하여 교육을 추진하고 마을을 매개로 하여 학습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법적체제, 연계 및 지원방안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가. 법적체제와 기반 정비

마을방과후학교는 지역사회와 학교,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 다양한 자원들이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연대하고 협력하는 공동체로 볼 수 있다. 마을방과후학교는 마을의 자원을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 지역교육청, 학교 등 다양한 관계기관의 협력을 통해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연대와 협력’이라는 느슨한 역할이 명확한 추진체계, 규정, 역할분담의 모호함을 가져왔다. 지자체-학교-마을이 협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역할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적이고 원활하게 구동되기 위해서는 법규 및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전담부서의 신설, 체계적인 추진체계마련, 지속적인 사업비 확보 등과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서울시는 예산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추진주체임도 불구하고 조례상 ‘지원’의 역할로 제한을 받고 있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보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

한편, 마을방과후학교의 지역별 조례제정도 필요하다. 현재 마을방과후학교 사업은 지역별 상황에 맞게 운영 및 역할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마을방과후학교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 계획수립, 실행 추진 기구의 역할 구분, 예산 지원, 실무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을 지역별 특성에 맞게 중앙단위 뿐만 아니라 자치구 단위별 조례제정이 요청된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고유한 특성, 프로그램 영역, 추진전략, 참여자들의 요구, 연계과정에서의 사업 방향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나. 마을방과후학교 개념 정립과 비전 공유

마을방과후학교에 대한 개념 정립과 비전공유는 사업 지속성의 기반이 된다. 마을방과후학교 개념 정립 방향에 따라 추진체제 간의 역할, 취지, 세부 운영방안이 다르게 나타난다. 마을방과후학교 시범사업 뿐만 아니라 마을-학교 연계 실천현장에서도 각 지역이나 개별적 사업 특성은 있지만 마을과 함께 하는 교육의 개념과 비전은 합의되지 못한 실정이다. 마을방과후학교 각각의 실천 주체들이 합의·공유할 수 있는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마을방과후학교에 대한 홍보와 함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학부모는 교육정책의 대상자이며, 한편으론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 관계자이기 때문이다.

다.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마을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협력, 협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참여자와 조직 구성을 규정해야 한다. 마을교육공동체는 지역주민, 학부모, 학생, 마을활동가, 교사, 교육청관계자 등이 마을교육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참여자가 될 수 있다. 마을방과후학교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어야 사업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기대할 수 있다. 마을방과후학교 사업 초기에는 일부 참여자들의 헌신으로 제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는 있다. 그러나 장기적 측면에서 본다면 마을방과후학교 사업은 다양한 주체가 공동체를 기반으로 상호협력을 통해 운영되는 것이 기본취지이다. 현재 마을방과후학교는 핵심 주체인 학부모, 주민, 학생들의 참여방식에 명확한 형태가 제시되지 못한 실정이다. 참여주체를 중심으로 역할분담과 참여 방식, 기능 설정이 필요하다. 지역 활동가 모임, 학부모회 등과 같은 기존의 조직체들과 마을방과후학교 체제와의 연계, 역할 수행 방안 등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라. 지역특성기반 마을사업과의 연계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과 마을방과후학교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마을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한 운영협의체에 마을공동체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자체 마을만들기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마을방과후학교 협의체에 참여함으로써 마을방과후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연계·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 일선학교: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연계가능 프로그램 발굴
- 교육지원청: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마을방과후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 형태(시수, 개설 형태, 활용방안 등) 컨설팅
- 지자체: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마을방과후학교 사업 협력체 구성

학교에서는 마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마을에서도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나 학교에 제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지침 등의 정보가 부족할 수 있다.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마을의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학교와 연계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역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기반한 마을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마을교육의 다양한 주체들과 사업 협력체 구성방안을 모색한다. 마을방과후학교는 교육을 중심으로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는 체제이기에 교사들의 마을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기존에 마을과 함께한 경험이 있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마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형태도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마. 실질적 지원체계 확충

마을방과후학교 운영 취지 및 방향성은 공감되나 지역사회 자원이 학교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학교 밖에서 다양한 자원들이 방과후학교의 기능을 담당할 것인지 등에 대한 합의가 정립되지 못한 상태이다. 마을방과후학교 사업이 활성화된 지역에서는 ‘지원센터’ 등을 설치하고 행정전담 인력을 투입하였다. 이는 지역사회의 풍부한 인적 자원과 교육자원을 학교에 투입하고 방과후학교의 행정 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본연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마을과 학교

를 연결시켜주는 코디네이터의 역할도 현재보다 확충되어야 한다.

바. 참여주체별 역량강화

마을방과후학교 지원인력과 사업에 대한 교육은 각 지역별 특성에 따라 목표와 연수방법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각 단계별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초기단계는 마을방과후학교 사업 취지, 특성 및 비전 등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마을방과후학교 사업 홍보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지지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프로그램 세부내용이나 강사 지원 등은 지역의 상황에 적합한 형태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마을방과후학교의 사업 취지, 교육적 의미, 지역사회에서의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또한, 마을방과후학교 지원인력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정과 학교조직에 대한 이해, 학생에 대한 이해 등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한다. 지자체에서는 지역(마을)자원, 마을 사업 등에 대한 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일선학교에서는 지역 자원과 연계한 마을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발굴을 목적으로 담당인력이 연수과정에 참여한다.

- 일선학교: 마을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한 의제 발굴 및 해결 참여
- 교육지원청: 마을방과후사업 지원 인력에 대한 사전교육 및 매뉴얼제공
- 지자체: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방과후교육 지원인력 양성 및 지원

2. 마을방과후학교 운영모델로서의 학교급별 활성화 방안

가. 초등학교 마을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초등학교 마을방과후학교 사업은 기존의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경험으로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의 구축과 지속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 급에서는 입시와 진학이라는 학부모 수요자들의 현실적인 요구와 기대를 간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질 높은 정규교육과정에 대한 요구는 학

부모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이다. 특히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학부모의 선택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요원한 실정이다.

초등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가 본격화됨으로 인해 학생자치와 창의적 활동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때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지역사회와 연결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지역사회 생태환경, 문화재, 자치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초등학교 마을방과후 프로그램은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른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역 연계형 운영방식이 필요하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일반 강좌형 프로그램으로는 스포츠, 문화예술, 과학 등 특정 진로체험 활동 등이 적합하다.

단, 지역 내 기관은 해당분야의 전문 인력, 시설 설비 전문 콘텐츠를 갖춘 곳을 선정하고 중장기적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학교 밖 지역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이동수단, 귀가지도, 안전관리 등의 전반적인 운영사항 관련하여 세부적인 지침과 프로그램 및 기관 선정기준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나. 중학교 마을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중학교에서는 동아리연계 프로그램이 효율적이다. 학생들 스스로 아젠다를 기획하고 탐구하는 자율형 동아리형태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때 자율 동아리형태는 학교수업과 일정부분 연계성을 갖되, 학교와는 차별성 있는 주제로 구성되어야 중학생들의 참여와 흥미가 높아진다. 중학생이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수행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이 적절하다.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수행방식으로 운영하고 동일한 프로젝트 내에서 개인별 소그룹별 활동으로 운영한다. 단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역 마을을 중심으로 중학생의 주도적인 참여와 프로젝트 결과물을 산출하는 형태를 도입하여 청소년이 활동결과물을 주제로 선정하고 구체화하여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젝트 예산은 강사료, 재료비, 예산을 체험활동비로 편성한다.

지역 내 강사 풀은 지역 내 대학 및 학교, 문화예술단체, 학원연합회 등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프로그램 운영 형태는 개인별 소그룹 프로젝트로 운영하거나, 학교 전체가 하

나의 프로젝트 안에서 소그룹별 프로젝트 주제를 구성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

- 일선학교
 -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 이용가능 프로그램 확인
 -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소규모 자율동아리형태로 참여
- 교육지원청
 - 마을관련 프로그램 및 공모사업에 학교연계가능 프로그램소개 및 네트워킹
- 지자체
 -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동아리지원 프로그램 개설
 - 마을만들기 사업에 학교연계 공동 프로젝트 기획

다. 고등학교 마을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입시부담으로 마을교육과정을 실천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학부모들의 현실적 고민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과후교육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되, 진학예정자와 비 진학자를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먼저 진학자의 경우 학부모들의 현실적인 요구와 수요를 반영하여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되, 진로와 연계된 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진학하고자하는 전공의 과목을 지역사회 대학의 관련학과와 공동 프로젝트로 진행해보는 과정도 시도할 가치가 있다. 이러한 활동은 서울시교육청에서 2016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으며, 당시 학생들의 참여율도 높았고, 무엇보다 해당 프로젝트 결과물의 다양한 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비진학자의 경우 마을방과후학교를 통해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진로탐방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아직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진학을 가장 우선적인 진로로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직업체험, 자격증 취득과 같은 과정에 참여자를 모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향후 개설될 여지와 필요성이 있는 프로그램이다.

3. 국·내외 우수사례 시사점과 방향성 제시

마을방과후학교 우수사례와 함께 현행 방과후학교의 우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마을과 학교와 연합한 사례에서 학교가 먼저 문을 개방하는데 적극적이었다. 학교가 마을활동에 필요한 자원과 공간을 빌려주고 지원해주거나, 교사가 마을 자원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사례도 있었다. 무엇보다 학교가 먼저 지역과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형태가 주를 이뤘다.

첫째, 일반적으로 마을과 학교의 연계에서 교사나 마을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마을방과후학교 시범사업의 경우에서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역할과 주체를 규명하고 조정하는 일이다. 마을방과후학교 사업의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연계를 위해서는 학교교육과정 전체와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은 개별교사들에게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보다는 별도의 행정전담 인력이 배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방과후교육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유기적인 네트워크도 필요하지만 내부적인 관리와 지원 역할도 간과할 수 없다

둘째, 학교 급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연계방안이 필요하다. 마을방과후교육이 학교 급별 특성에 맞게 제시되어야 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자원의 역량, 수준 등에 따라 연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 관점에서 마을방과후교육 자원들의 역량강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살펴보면, 커뮤니티스쿨이 성공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코디네이터의 기능이 중요하였다. 방과후학교의 문제점으로도 제기되는 부분으로 교사들의 교육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야 하며, 다른 업무를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학교와 지역을 연계하는 전담인력이 필요하다. 일본의 커뮤니티스쿨도 코디네이터의 활용정책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학부모나 지역사회자원을 코디네이터로 활용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이들에 대한 역량강화기회도 제공되어야 한다.

4. 일선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차별화정책

마을방과후학교는 학교 안 교육과 지역사회 교육을 연계하는 것으로 지역사회 기반의 교육공동체 추진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존 방과후교육은 학교 안에서 학교가 중심되어 진행된 교육이라면, 마을방과후학교는 교육 추진 주체인 교육청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교육모델이다.

마을방과후학교는 지역사회 참여를 전제로 하며, 학교교육에 대한 요구와 그에 대한 해법은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함께 고민하고 참여해나가는 과정에서 해소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즉,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 마을주민 등이 교육의 영역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는 방과후학교와 마을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차별화를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만들어갈 수 있다.

기존의 자치구에서 이루어졌던 청소년의회, 청소년 자율 동아리, 방과후 진로 탐색 활동 등이 마을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교육선진국의 사례에서도 마을방과후학교는 학교는 본연의 교육에 집중하고 마을의 교육에서는 ‘여가·체험활동, 클럽활동’ 등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긴밀히 협조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일선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서는 실질적인 수요자인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과과정과 연계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과후학교에서의 선행학습금지는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더욱 사교육을 찾게 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을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서는 자율 동아리, 예술, 체육 활동 프로그램형태가 적절하다. 중학생대상으로는 클럽활동 중심으로 지원이 필요하며, 소규모 형태의 동아리, 학교 차원의 기획과제 수행 형태로 청소년 스스로 활동을 기획, 운영하도록 지원해주는 형태가 필요하다. 또한 체육활동 프로그램도 청소년기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으므로 마을 자원을 중심으로 개설하는 것도 필요하다. 고등학생 대상으로는 직업·진로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자격취득 프로그램 등을 개설하는 등 실질적인 수요와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참고 문헌 〉

- 경기도교육청, 「2016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운영계획」, 2016a
- 경기도교육청, 「2016년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2016b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2017년 마을교육공동체 기본계획」 (<http://www.goe.go.kr>, 검색일: 2017. 11. 7.)
- 교육개혁위원회,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1차)」, 1995
- 교육부, 「2017 방과후학교 국제포럼 자료집」, 2017
- 교육인적자원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2004
- 구교정, 「학교 교육력 향상을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 학습연계체제 구축 방안」, 한국교육정책연구소, 2008
- 구로구교육통합포털 홈페이지, 「구로혁신교육」 (<http://edu.guro.go.kr>, 검색일: 2017. 11. 10.)
- 김경근, 「방과후학교는 사회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가」, 교육사회학연구, 19, 1-27, 2009
- 김기홍, 「마을의 재발견: 작은 정치·경제·복지로 더 나은 세상 만들기」 서울: 올림, 2015
- 김성숙·송미영·김준엽·이현숙,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의 지역간 학력 차이에 따른 초·중·고 학교특성 분석」, 교육평가연구, 24, 51-72, 2011
- 김수동, 「우리나라 방과후 학교의 활성화 방안: 외국의 방과후 교육활동이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국일본교육학연구, 12(1), 89-109, 2007
- 김영철·강영택·김용련·조용순·이병곤, 「마을교육공동체 해외사례조사와 정책방향 연구」, 경기도교육연구원, 2016
- 김의영, 「동네 안의 시민경제: 서울대생들이 참여 관찰한 지자체의 사회적경제 사례」, 서울: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1
- 김인숙·변종임·조순옥, 「방과후학교 운영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9

- 김진영, 「성적향상도로 본 방과후학교와 사교육의 상대적 효율성」, 재정학연구, 5(3), 1-32, 2012
- 네이버 지식백과, 「지역사회학교」,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61761&cid=46615&categoryId=46615>, 검색일: 2017. 9. 27.)
- 노원구마을학교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https://nest2.nowon.kr>, 검색일: 2017. 11. 13.)
- 도봉혁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happyedu.dobong.go.kr>, 검색일: 2017. 11. 15.)
- 박진은·한신일·김현철, 「공교육 내실화 추진정책 효과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18(1), 61-82, 2011
- 배상훈·김성식·양애경, 「방과후학교 참여와 사교육비 지출 및 학업성취 수준과의 관계」, 교육행정학연구, 28(2), 55-79, 2010
- 백병부·김위정·김현정·이혜정·최선옥, 「경기도 혁신교육 철학과 정책 특성 분석」, 경기도 교육연구원, 2016
- 변수용·황여정·김경근, 「방과후학교 참여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21, 57-85, 2011
-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운영매뉴얼」, 2013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2012
- 서울특별시교육청, 「방과후학교 협동조합 운영 방안 연구」, 2015
- 서울특별시교육청, 「2017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2017
-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 「2016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종합평가 보고서」, 2017a
-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 「2017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계획」, 2017b
- 서울특별시교육청 방과후학교 홈페이지, 「방과후학교운영현황」, (<http://afterschool.sen.go.kr>, 검색일: 2017. 11. 12.)
-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happyedu.siheung.go.kr>, 검색일: 2017. 11. 10.)

- 양병찬, 「지자체 마을만들기사업에서 ‘마을학교’의 평생교육적 의미: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평생교육연구, 2(1), 1-25, 2014
- 양정호,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종단적 연구: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5(2), 121-145, 2005
- 양천구통합예약포털 홈페이지, (<http://lifestudy.yangcheon.go.kr/reservation/reservation>, 검색일: 2017. 11. 15.)
- 엔도 야스히로, 「이런 마을에 살고 싶다」, 김찬호 역, 서울: 황금가지, 1997
- 오카다 도모히로, 「지역 만들기의 정치경제학: 주민이 직접 만드는 순환형 지역경제」, 양준호·김우영 역, 서울: 한울, 2016
- 은평구마을방과후지원센터, (<https://blog.naver.com/epcon0222>, 검색일: 2017. 11. 15.)
- 이경호, 「방과후학교 정책 분석 및 발전방향 탐색」, 열린교육연구, 18, 173-195, 2010
- 이수정·민병철, 「사교육 수요와 학업 성과에 영향을 학교 특성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18, 179-206, 2009
- 이혜숙, 이영주,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서울: 서울연구원, 2017
- 이호,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도시와 빈곤, 81, 46-60, 2006
- 이희수, 「지속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한 학교와 마을간 상호협력체제 구성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6
- 정제영, 「미국의 학교와 지역사회 간 연계사례와 시사점: ‘커뮤니티 스쿨’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2015
- 조운정·이병곤·김경미·목정연, 「마을교육공동체 실천사례 연구: 시흥과 의정부를 중심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 2016
- 주정훈·강민정·김세희·김보영·최정윤, 「학교와 자치구가 협력하는 마을방과후학교 운영 방안 연구」, 2017
- 최창의, 「지방의회에 대한 교육이익집단 활동의 정치학: 경기도의회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99-107, 2016

한국교육개발원,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분석 연구(Ⅱ): 방과후학교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특성 분석, 2013

한국교육개발원, 「2016 제8회 방과후학교 대상 사례집」, 2017

희망제작소, 「돌봄 및 방과후학교 마을협력 연계방안」, 희망이슈, 32호, 2017

(판권지)

마을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 연구

발 행 일 : 2017년 12월

발 행 처 :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발 행 인 :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장 김경호

주관부서 : 교육전문위원실(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입법조사관 최원종)

입법담당관(입법담당관 배선희, 입법조사관 최현종, 주무관 이수호)

홈페이지 : <http://www.smc.seoul.kr>

연 락 처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전화) 02-3705-1340 (교육전문위원실)

전화) 02-3705-1170 (입법담당관)

과제제안 : 서울특별시의회 허기회 의원

연구기관 :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 : 이기성 숭실대학교 교수

연 락 처 : 02-828-7452

발간등록번호 : 51-6110100-000101-01

※ 본 학술연구용역보고서의 지식재산권은 서울특별시의회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내용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식재산권은 서울특별시의회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서울특별시의회가 해당 학술연구용역 보고서를 대국민 공개한 이후 용역수행자가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음)

ISBN : 979-11-6161-121-1 93370